

金日成著作 解題

1993. 7.

金 炳 魯 (資料調査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報告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 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서 發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資料調查室

要 約

第 I 章 序 論

北韓社會의 諸분야에 대해 金日成著作이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김일성저작 등 1次資料를 통한 北韓研究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김일성저작의 방대한 분량과 네차례 이상의 改作過程으로 인해 변화된 내용을 일괄적으로 추적하기가 곤란하므로 研究資料로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研究은 지금까지 발간된 金日成著作의 내용과 체계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분석·평가함으로써 1次資料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료이용에 대한 效率性を 提高시키는데 目的이 있다. 나아가 金日成著作에 나타나 있는 동일주제에 대한 시기별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北韓體制의 實相과 政策의 變化內容을 歷史的 觀點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解題對象은 김일성의 저작들중 「김일성선집」 제1판과 제2판, 「김일성저작선집」, 「김일성저작집」에 수록된 담화문 및 연설문이며 1986년 이후 발표된 個別文件도 포함하였다.

解題方法은 김일성저작의 편집과정에서 발견되는 段階別 수정과정과 수정내용을 살펴보고 「김일성저작집」을 중심으로 저작을 소개·분석한 후 主題別로 내용을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문헌분석에서는 내용분석방법에 준하여 質的分析方法和 量的分析方法을 병행하였다.

第Ⅱ章 金日成著作의 體系化 過程

1. 「김일성전집」의 形成過程

「김일성전집」 제1판(1953~54, 전4권 134편)→「김일성전집」 제2판(1960~64, 전6권 124편)→「김일성저작선집」(1967~87, 전9권 202편)→「김일성저작집」(1979~92, 전38권 1,228편)→「김일성전집」(1992~)으로 體系化되었다.

2. 金日成著作의 版別 修正內容 및 特徵

가. 「선집 1판」(1953~54)

「선집 1판」은 유고슬라비아 등의 民族主義 路線을 비판하고 蘇聯과 中國을 중심으로 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노선에 충실하도록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南勞黨의 遊擊隊 활동의 의미를 축소시켰다.

나. 「선집 2판」(1960~64)

「선집 2판」은 金日成著作 文헌중 가장 많이 수정되었으며 文헌의 성격도 史料中心에서 보편·추상적인 學習教材의 형태로 발전되었다. 「선집 2판」은 ‘주체’에 대해 처음 소개하였으며 蘇聯에 대한 양면적 태도, 金日成政權의 정당성 확보와 統一戰線構築 등을 목표로 文헌을 수정하였으며 金日成 抗日武裝闘

쟁을 공식화하기 시작하였다.

다. 「저작선집」(1967~87)

「저작선집」은 소위 文化語로 대폭 수정되었다. 내용상의 수정으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서의 탈피 및 맑스-레닌주의 강조를 통한 自主性 標榜 시도, 金日成 唯一體系 確立 등이다. 그러나 ‘조선의 해방자’로서의 蘇聯의 역할은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다.

3. 「저작집」(1979~92)의 特徵과 主要 修正內容

「저작집」은 ‘해방자로서의 蘇聯’에 관한 문구를 모두 삭제하고 혁명전통 확립을 위해 金日成의 抗日武裝鬪爭관련 문건을 처음으로 첨가시켰다. 또한 김일성이외의 이름을 삭제하는 등 다양한 김일성 偶像化 작업을 시도하였고 각종 용어와 내용을 主體思想의 틀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4. 文獻修正의 指向點

김일성문헌의 체계화 및 수정작업의 指向點은 북한체제의 對外자주성 표방, 김일성정권의 抗日革命傳統 樹立, 主體思想의 심화, 對南統一戰線의 확대 등 네가지 방향으로 귀결된다.

第三章 「김일성저작집」을 中心으로 한 金日成著作의 內容分析

1. 제1권~7권(1930.6~1953.7): 抗日鬪爭, 政權樹立 및 「조국해방 전쟁」時期

이 시기의 문헌은 金日成 抗日鬪爭活動, 인민위원회 및 勞動黨 활동에 대한 治績, 統一戰線 構築을 위한 대중사회단체의 조직, 경제발전계획 그리고 「조국해방전쟁」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제8권~14권(1953.8~1960): 戰後 經濟復舊 建設期

전쟁이전 시기에 전체의 17%에 불과했던 經濟復舊 및 發展에 관한 문건이 54%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발전전략 등을 둘러싼 각 政派間의 노선투쟁과 권력투쟁이 극치를 이루었다. 농업협동화와 5개년경제계획, 그리고 主體思想에 대한 최초의 문건이 수록되어 있다.

3. 제15권~25권(1961~1970): 自主-自立路線 推進期

이 시기는 北韓이 中·蘇의 굴레에서 점차 탈피하여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추진한 기간이다.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 「농촌테제」 등 새로운 경제체제의 도입관련 문건과 「4大軍事路線」 및 「3大革命力量」 등 주요군사정책관련 문건이

수록되어 있다.

4. 제26권~35권(1971~1980): 「3대혁명」運動의 展開와 金正日 權力承繼 準備期

이 시기는 1972년 제정된 新憲法에 기초하여 김일성의 권력이 더욱 공고해지자 김정일을 중심으로한 「3대혁명소조」를 발족시키고 후계체제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따라서 「3대혁명」관련 내용이 심도있게 언급되었다. 한편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 등 일련의 통일정책을 발표하여 第3世界를 중심으로 非同盟 統一-外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문건과 社會主義 教育學, 「교육테제」 등 교육방침이 수록되어 있다.

5. 제36권~38권 및 38권 以後의 個別文件(1981~1993): 金正日體制 確立 및 「우리식 사회주의」 固守期

이 시기는 1980년 6次黨大會를 계기로 金正日이 후계자로 공식화되고 3차에 걸친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新世代가 정계에 진출하여 김정일 정권의 기틀을 확립해가는 기간이다. 농업발전과 경공업 및 무역과 관련된 문건 이외에 主體思想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시키는 문건과 사회주의 완전승리, 사회주의의 우월성 등 사상성 강화를 목표로한 문건, 그리고 民族大團結을 통한 통일논의 등이 발표되었다.

第Ⅳ章 金日成著作에 대한 綜合評價

1. 文獻修正의 時期에 대한 評價

「저작집」의 편집에서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내용의 수정을 가한 시기는 1966~70년이다. 이 시기이후 수정사실이 감소한 이유는 1964년 文化語의 문법체계가 정비되었고 1967년 黨의 唯一體系가 확립되어 모든 저술활동이 主體思想의 시각에서 이루어져 내용수정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2. 「저작집」의 主題別 分類 및 時期別 特徵

「저작집」 전체의 내용별 구성에서는 經濟관련 내용이 전체의 3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政治 25%, 社會文化 18%, 軍事 11%, 統一 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국해방전쟁」 이후 경제복구관련 내용이 급증한 이래 경제관련 문건이 계속 증가하였다. 이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問題點이 그만큼 커졌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1970년대 이후에는 統一관련 내용이 급증했다. 이는 대외적으로 北韓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여러가지 국내의 정세를 統一問題와 연결지어 해석하였기 때문이며, 대내적으로는 金日成과 金正日 사이의 役割分擔이 이루어져 金日成이 상대적으로 外交와 統一分野를 전담하였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3. 主題別 內容變化에 대한 評價

가. 主體思想과 政治理念 및 外交

主體思想은 1955년 12월 ‘사상에서의 주체’에 대해 논의한 이후 1967년 12월 국가의 통치이념과 지도원리로 확정되기까지 自立, 自主, 自衛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속에서 발전되어 왔다. 主體思想은 1970년대 들어 초기의 ‘자주성’에 대한 강조에서 점차 ‘민족성’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으며 1982년 金正日에 의해 전면적으로 체계화되었다.

나. 發展戰略 論爭과 經濟發展

北韓의 경제발전전략과 독립채산제 등은 原文을 수정한 것으로 실제 실시시기는 문헌상의 시기보다 다소 늦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경제발전에서 南韓보다 우세하던 1960년대에는 南韓經濟의 劣惡性を 폭로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는 상대적 평가로 전환하면서 ‘主體思想’에 기초한 심리적 만족감을 강조한다.

다. 國家安保와 自衛國防

國防建設은 1961년 이후 他분야보다 우선 추진되어온 중요한 부문이다. 北韓은 1990년대에 직면한 군사적 상황을 1960년대 이후 최악의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

라. 社會主義 文化建設

職盟, 農勤盟, 社勞靑, 女盟 등 각종 대중조직들이 主體思想의 보급활동에 주력하고, 문학예술이 民族的 形式에 社會主義的 內容을 담는 기법을 통해 사상성과 혁명성을 끊임없이 유지하도록 강조한다.

마. 南北關係 및 統一

北韓의 對南戰略은 1972년을 기점으로 폭력혁명 노선을 잠재화시키고 대화와 타협의 전략을 표방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 高麗聯邦制 「10대시정방침」을 발표한 이후 제시된 '3者會談'과 '남북고위급 군사정치회담' 등 다양한 對南接觸 努力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또한 1991년부터는 기존의 '자주적 평화통일'정책에서 선회하여 '민족'과 '민족주의'를 내세워 民族主義 統一戰線을 구축하고자 시도하였다.

第V章 結 論

金日成著作은 4차례의 체계화 작업을 통해 主體思想의 틀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현재는 「김일성전집」으로 확대·편집되고 있으며 김일성의 혁명경력과 인간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확대·미화하는 주도면밀한 편집작업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金日成著作은 김일성이 의도하는 社會主義 革命과 建設의 청

사진으로서 이해해야 하며 연구자료로 사용할 경우 자료의 適
合性 문제를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目 次

第I章 序 論	1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1
2. 研究對象 및 研究範圍	4
3. 研究方法	5
第II章 金日成著作의 體系化 過程	8
1. 「김일성전집」의 形成過程	8
2. 金日成著作의 版別 修正內容 및 特徵	13
가. 「선집 1판」(1953~54)	14
나. 「선집 2판」(1960~64)	18
다. 「저작선집」(1967~1987)	25
3. 「저작집」(1979~92)의 特徵과 主要 修正內容	30
가. 金日成 抗日武裝鬪爭 革命傳統 構築	30
나. 金日成 偶像化 試圖	31
다. 主體思想의 體系化 및 深化	33
4. 文獻修正의 指向點	35
第III章 「김일성저작집」을 中心으로한 金日成著作의 內容分析	40
1. 제1권~7권(1930.6~1953.7): 抗日鬪爭, 政權樹立 및 「조국해방전쟁」時期	40

가. 時代的 背景 및 文獻構成	40
나. 主要文件 및 內容	46
2. 제8권~14권(1953.8~1960): 戰後 經濟復舊 建設期	50
가. 時代的 背景 및 文獻構成	50
나. 主要文件 및 內容	52
3. 제15권~25권(1961~1970): 自主-自立路線 推進期	57
가. 時代的 背景 및 文獻構成	57
나. 主要文件 및 內容	61
4. 제26권~35권(1971~1980): 「3대혁명」運動의 展開와 金正日 權力承繼 準備期	66
가. 時代的 背景 및 文獻構成	66
나. 主要文件 및 內容	70
5. 제36권~38권 및 38권 以後의 個別文件(1981~1993): 金正日體制 確立 및 「우리식 사회주의」 固守期	74
가. 時代的 背景 및 文獻構成	74
나. 主要文件 및 內容	76
第IV章 金日成著作에 대한 綜合評價	81
1. 文獻修正의 時期에 대한 評價	81
2. 「저작집」의 主題別 分類 및 時期別 特徵	83
3. 主題別 內容變化에 대한 評價	87
가. 主體思想과 政治理念 및 外交	88
나. 發展戰略 論爭과 經濟發展	91

다. 國家安保와 自衛國防	95
라. 社會主義 文化建設	97
마. 南北關係 및 統一	101
第V章 結 論	106
參 考 文 獻	111
<附 錄> 「김일성저작집」主題別 索引	119

第 I 章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최근의 北韓研究는 北韓社會를 하나의 단순한 동원체제로 간주하여 공산정권의 폭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던 기존의 全體主義的 접근방법(totalitarian approach)의 틀을 벗어나 매우 다양하고 깊이있게 진행되고 있다.¹⁾ 즉 엘리트접근법, 자유화 접근법, 체계론/조직론적 접근법, 집단갈등론적 접근법, 통일·통합론적 접근법과 세계체계론적 접근법, 하버마스의 위기이론, 계급이론 등의 다양한 方法論이 개발된 것이다.

이러한 接近方法들은 대개 北韓社會를 다른 共產主義 체제와 비교하는 交叉體制分析(cross-systems analysis) 또는 比較體制分析(comparative systems analysis)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현상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과거와의 연결선상에서 현체제의 變化와 力動性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 즉 북한사회의 내적 본질보다는 주로 형식과 제도적인 또는 정책적인 측면들에만 적용되는 한계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것은 내재적 논리와 내적인 社會

1) 北韓研究의 方法論에 관해서는 김남식,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문제점,” 「이대학보」(1986.10.3);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의 現況과 課題,” 「北韓社會의 實相과 變化展望」(民族統一研究院 第1回 國際學術會議, 1991.10.28~29); 산사연 북한사회연구반, “북한사회연구동향: 80년대말 이후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17호(1993년 봄호) pp. 100~144.

發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지 못한데서 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北韓社會의 內在的 力動性을 분석해내기 위해서는 通時的 분석(diachronic analysis) 또는 歷史的 접근방법(historical approach)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역사적, 시간적 조건의 틀 속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방법은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發展論的 接近法과 이데올로기를 중시한 文獻接近法 등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이 두가지 접근방법은 기존의 靜態性에서 탈피하여 북한사회의 動態的 발전과정을 분석해 낸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다. 그러나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는 近代化/發展論的 研究가 객관성 유지의 차원에서 주로 2次資料를 사용하였으나 2차 자료의 부족과 자료의 신뢰도 문제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는 北韓社會의 閉鎖性 때문에 北韓社會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절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 경험적 자료의 축적이 빈약한 상황에서 北韓研究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金日成과 金正日 文獻 등 1次資料이다. 북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著作이 갖는 중요성은 절대적이며 따라서 1次資料를 통한 북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北韓의 모든 정책과 출판물은 이들 著作(選)集을 기초로 만들어지고 형성된다.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대화나 공식연설, 학술논문에 이르기까지 金日成 敎示의 인용이 필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金日成의 이름과 교시의 내

용은 언제나 고딕체 형태로 강조되고 있다. 金日成著作은 北韓의 모든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고 해외에 까지 ‘金日成研究小組’가 조직되어 저작의 해외유포는 물론 각종 토론집회를 개최해오고 있다.²⁾

이렇듯 1次文獻을 통한 북한연구는 북한을 歷史的 觀點에서 조망할뿐 아니라 ‘北韓의 觀點’ 내지는 內在的 시각(internal perspective)으로 분석함으로써 北韓社會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金日成著作의 체계화 및 해석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연구의 핵심인 主體思想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질되어 가는 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적지않은 문제점이 따른다. 1980년대 후반에 폭발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한 北韓의 1次資料를 냉전구도 속에서 편향적으로 축적된 사회과학의 틀에 무비판적으로 대입시키는 형태의 연구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자료의 妥當性과 信賴度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北韓의 현실이 마치 문헌에 나타난 그대로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과오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연구내용이 北韓의 경험적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지는 현상을 낳게 되었다.

더우기 북한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金日成著作은 量的인 면에서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섭렵하기가 쉽지 않

2) 1969~81년 동안만 해도 393개의 小組가 생겨날 정도로 국제적인 조직망을 갖고있다. 北韓研究所, 「北韓總覽」(서울: 北韓研究所, 1983), p. 474 참조.

고 필요한 부분만이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저작이 네차례 이상의 改作過程에서 내용이 많이 添削되었는데 그 修正·變化된 내용을 일괄적으로 추적하기 곤란한 점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의 目的은 지금까지 발간된 金日成著作의 내용과 수정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분석·평가함으로써 北韓의 1次資料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기초위에서 연구자의 1次資料 이용에 대한 效率性을 提高시키는 데 있다. 나아가 김일성저작에 나타난 동일주제에 대한 시기별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北韓體制의 실상과 정책의 變化內容을 歷史的 觀點에서 분석·설명해 보고자 한다.

2. 研究對象 및 研究範圍

본 연구의 解題對象은 김일성저작을 時期別로 편집한 全集類로서 다음과 같다.

- 「김일성선집」 제1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54), 1~4권
- 「김일성선집」 제2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64), 1~6권
- 「김일성저작선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87), 1~9권
- 「김일성저작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92), 1~38권

위의 저작이 포함하고 있지 않은 1987~1993년 기간에 발표된 연설문 및 담화문 등 個別文件도 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간행을 시작한 「김일성전집」은 아직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고 입수가 미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고 다만 제5장 결론부분에서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3. 研究方法

解題의 方法은 우선 金日成著作의 편집과정에서 발견되는 段階別 修正過程과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김일성저작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문헌의 改作과 수정과정 및 그 내용은 선행판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선행판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문헌은 해당년도의 「조선중앙년감」이나 「로동신문」, 「근로자」 등의 자료를 통해서 수정여부를 확인하였다.

전반적인 金日成著作의 내용과약을 위해 현재 北韓에서 김일성문헌의 학습서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김일성저작집」(이하 「저작집」)을 중심으로 문헌을 소개하고 분석·평가하였다. 문헌소개시 개별문건의 중요한 改作 및 修正內容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저작집」을 처음 대할 경우 발생하는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저작집」내 개별문건은 각 卷別로 하지 않고 북한 勞動黨史의 시기구분에 근거한 1~7권(항일투쟁, 정권수립 및 「조국해방전쟁」시기), 8~14권(전후 경제복구 건설기), 15~25권(자립-자주노선 추진기), 26~35권(3대혁명

운동의 전개와 김정일 권력승계 준비기), 36권 이후(김정일체제 확립 및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기)의 5단계로 분류하여 해당시기의 저작을 소개·분석하였다.³⁾ 주요문건은 각 卷別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1~2문건을 선정하였으며, 각 時期別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 등의 主題別 균형도 고려하였다. 또한 김일성의 모든 저작에는 發表日字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문건의 제목과 함께 문헌이 발표된 날짜를 제시하였다.

-
- 3)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는 해방이후 시기를 ① 1945.8~47.2: 주체형의 혁명적 당, 공산당의 창건과 근로인민의 대중적 당, 로동당으로 발전.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과업수행을 위한 당의 투쟁, ② 1947.2~50.6: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혁명단계에로의 이행. 인민경제의 부흥발전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당의 투쟁. 당의 질적 공고화와 령도적 기능의 강화, ③ 1950.6~53.7: 조국해방전쟁 승리를 위한 당의 투쟁. 당대렬의 확대와 당의 조직사상적 강화, ④ 1953.7~1960: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과 사회주의 기초건설을 위한 당의 투쟁.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의 청산, ⑤ 1961~70: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에로의 이행.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며 온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기 위한 당의 투쟁.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⑥ 1970~80: 온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기치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당의 투쟁. 주체위업계승의 빛나는 해결. 당사업의 획기적 발전, ⑦ 1980~현재: 온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당의 투쟁. 전당과 전체인민의 일심단결의 확고한 실현 등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방전 시기와 ①~③을 하나의 시기로 묶어 총 5시기로 구분하였고 시기별 명칭은 필자가 별도로 붙였다. 박태호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에서는 이보다 간략한 명칭을 사용하여 ① 1945.8~50.5: 민주건설시기, ② 1950.6~53.7: 조국해방전쟁시기, ③ 1953.8~59: 사회주의 기초건설시기, ④ 1960~69: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시기, ⑤ 1970~현재: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시기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문헌분석 방법으로는 內容分析(content analysis) 방법에 준하여 개별 문건의 주제(theme)를 단위로 그 주제속에 담겨진 내용(implicit content)을 시기별로 분석·평가하는 質的分析(qualitative analysis) 방법과 주제별 구분에 따른 문건의 數에 근거한 量的分析(quantitative analysis) 방법을 병행·사용하였다.

第Ⅱ章 金日成著作의 體系化 過程

1. 「김일성선집」의 形成過程

北韓에서 金日成著作이 選集의 형태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발간되기 시작한 시기는 韓國戰爭이 끝나갈 무렵인 1953년 5월이다. 최초의 「김일성선집」 제1판(이하 「선집 1판」)은 전4권으로 朝鮮勞動黨出版社에서 발간되었다. 「선집 1판」의 제1, 2권은 초기에 단편적으로 발행된 여러 저작들⁴⁾중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제1, 2권의 제2판(1951년)을 기초로 편집하였으며, 제3, 4권은 韓國戰爭時期를 포괄하는 문헌을 편집한 것이다. 이 「선집 1판」은 1945년 12월부터 1953년 5월까지의 기간에 발표한 金日成의 주요 연설문 및 담화문 134편⁵⁾을 담고 있으며 金日成著作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1954~55년에 再版이 발행되었다.⁶⁾ 「모택동선집」 제1권이 1951년 10월에

4) 초기의 저작들중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의 길」(평양: 북조선 인민위원회, 1947), 「민주조선 자주독립의 길」(평양: 북로당 선전선동부, 1945), 「자주독립 국가건설을 위하여」(평양: 북로당출판사, 1947),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하여」(평양: 북로당출판사, 1948),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제1,2권 (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 등이 있다.

5) 「력사사전(I)」(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은 이보다 9편이 많은 143편의 문건을 실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p. 295). 이것은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선집 1판」이 1949년판 「조국의 통일독립 과 민주화를 위하여」에 기초하였기 때문이며 실제의 「선집 1판」에는 9편이 더 실려있을 가능성이 있다.

6) 사회과학출판사, 위의 책, p. 295.

나왔음을 고려해 볼 때 이 「선집 1판」은 金日成政權의 정당성을 수립하기 위해서 서둘러 출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일성선집」의 제2판(이하 「선집 2판」)은 1960~64년에 發刊되었는데 전6권으로 간행할 예정이었던 처음 편집계획과는 달리 韓國戰爭을 다룬 제3권은 출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⁷⁾ 이 「선집 2판」은 1945년부터 1959년까지의 기간에 발표된 총 124편의 연설문 및 담화문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중 31편은 「선집 1판」으로부터 발췌하여 再收錄하였다. 1, 2권은 해방후 정권수립과정을, 4, 5, 6권은 戰後경제복구시기의 문헌을 수록하고 있으며, 4, 5, 6권은 1965~66년에 걸쳐 再版이 발행되었다.⁸⁾

「김일성저작선집」(이하 「저작선집」)은 1967년에 제1권의 刊行이 시작되어 1987년까지 9권이 출간되었으며 1986년까지 비교적 최근의 저작이 수록되어있다. 제1권(1945~56)은 38편의 문건을 엮어 1967년에 출간하였고 제2권 4권(1958~67)은 55편의 연설문 및 담화문을 엮어 1968년에 출간하였다. 제5권(1968~70)은 1972년에, 제6권(1971~73)은 1974년에, 제7권(1974~77)은 1978년에 각각 출간하였다. 제8권(1978~81)은 발간년도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1982년에서 제9권이 발행된

7) 「선집 2판」 서문에서 제3권에 한국전쟁시기의 저작을 수록하려는 계획이 언급되었지만 출간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사회과학출판사, 위의 책, pp. 295~296).

8) 사회과학출판사, 위의 책, p. 296.

1987년 사이에 출판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저작선집」 제9권은 「저작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1985~86년 사이에 발표된 문건이 수록되어 있어서 「저작집」 이외에 자주 활용되고 있는 문헌이다.

1979년부터는 「김일성저작집」 제1권이 간행되기 시작하여 1992년까지 38권에 이르고 있다.⁹⁾ 「저작집」은 기본적으로 「선집」 1, 2판과 「저작선집」에 수록된 담화문 및 연설문을 총망라하여 1천 2백 28편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중 309편은 先行版으로부터 再收錄한 것이며 나머지는 새로 첨가된 것들이다. 「저작선집」으로부터는 202편을 모두 再收錄하였으나 「선집 1판」에서 「선집 2판」으로의 편집과정에서 폐기된 28편(이중 21편은 스탈린찬사와 관계된 문건임)과 「선집 2판」에 수록되었다가 폐기된 5편, 그리고 「선집 2판」까지 계속 수록되었다가 「저작선집」에서 폐기된 1편¹⁰⁾ 등은 제외되었다. 「저작집」의 경우 대개 1년분을 한권으로 묶었으며 처음 수록된 문건이 많은데 그 중 제1권에 최초로 20편의 김일성의 抗日武裝鬪爭時期 관련 문건을 첨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9) 1993년 4월 「저작집」 제39권이 간행되었다고 보도되었다(「로동신문」, 1993. 4. 24). 여기에는 1985년 1월부터 1986년 5월까지 행한 연설 및 담화 등 30편의 문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주체사상의 구현원칙과 실현방도, 자주·평화·민족대단결에 기초한 통일방침, 비동맹운동 확대방안, 반제투쟁 강화를 위한 전략전술적 방침으로 되어 있다.

10) 이 1편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더욱 충직하자”이며 「선집 1판」에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에 더욱 충직하자”로 수록된 문헌이다.

1992년 3월부터는 「김일성전집」(이하 「전집」)을 出刊하고 있다. 이 「전집」은 金日成의 다른 著作에 비해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출간되고 있으며 「전집」에서는 대략 6개월 단위로 한 권을 묶고 있기 때문에 「저작집」의 분량을 두배로 늘린셈이 된다.

<표2-1> 「김일성전집」의 編輯過程

책이름	권수	발행년도	수룩시기	수룩논문수	재수룩수
「김일성선집 제1판	전4권	1953~54	45.12.17~ 53.5.11	134	
「김일성선집」 제2판	전6권	1960~64	45.10.13~ 59.12.4	124	31
「김일성저작 선집」	전9권	1967~87	45.10.13~ 86.12.30	202	47
「김일성 저작집」	전38권	1979~92	30.6.30~ 84.12.28	1,228	309
「김일성전집」		1992~		전78권이상	예상

이러한 金日成의 著作은 발표직후 全集으로 묶기전에 單一文件別로 소책자를 만들어 全住民에게 보급하고 학습교재로 활용한다. 또한 발표된 문건은 時期別로 정리해 전집류를 간행함과 동시에 朝鮮勞動黨出版社에서 部門別로 다시 편집하여 單行本으로 출판하고 있는데 이는 김일성저작을 主題別로 학습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행본 「우리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1970), 「주체사상에 대하여」(1977) 등 主體思想에 관계된 문헌과 「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1~3권

(1975), 「인민정권 건설에 대하여」 제1~2권(1978) 등 당과 정권에 대한 문헌을 별도로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統一關聯 문헌으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1969),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1981), 「통일전선사업에 대하여」(1982), 「조선해외교포운동에 대하여」(1985) 등이 출판되었고, 外交活動에 관한 문헌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1982),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위하여」(1984) 등이 있고,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1973년이후 계속해서 편집·발행하고 있다.

부문별 단행본중 經濟관련 문헌이 가장 많이 편집되어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에 대하여」(1970),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5권(1970~83), 「사회주의 재정금융사업에 대하여」(1984),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하여」(1986), 「철도운수를 발전시킬데 대하여」(1985) 등이 출간되었다. 그 외에 「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 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제1권~4권(1969~86), 「3대혁명에 대하여」(1980), 「인민보건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1985) 등이 단행본으로 편집되었다.

金日成著作의 體系化 作業은 스탈린이나 모택동의 경우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스탈린의 경우 1922년 집권한 이래 1934년 1월까지 13권으로 구성된 「저작집」만을 출판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출판이 중단되었고 1953년 사망하기까지의 개별저작은 死後에 출판되었다.¹¹⁾ 「모택동

선집」은 1951년에 제1권이 출판되었고 1960년 10월에 제4권이 출판되어 전국에서 「모택동선집」에 대한 학습이 高揚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¹²⁾ 이에 비해 金日成著作은 「선집」으로부터 출발하여 「저작선집」, 「저작집」 「전집」으로 확대·출판되면서 金일성 偶像化 작업으로 치닫고 있다.

2. 金日成著作의 版別 修正內容 및 特徵

金일성저작의 版別편집은 先行著作을 기초로 이루어졌으며 「저작집」이 출판되기까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네차례의 보완·수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문건의 添削이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실린 문건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삭제되거나 보완되었다. 따라서 「저작집」에 수록된 문헌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선집」과 「저작선집」의 편집과정과 문헌 수정내용을 비교해보아야 한다.

문헌의 수정은 단순히 문법적인 것에서 부터 문구를 변경하

11) Leonard Schapiro,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Vantage Books, 1971), p. 635. 1934~53년 시기의 저작은 Robert H. McNeal이 제14권~16권의 3권으로 출판하였다.

12) 嚴家其·高阜, 「다큐멘터리 中國文化革命(上): 毛澤東과 林彪」, 崔景瑋譯 (서울: 三友黨, 1988), p. 115~116. Stuart Schram은 「모택동선집」의 영문판 제5권이 1977년에 출판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선집」 제5권은 제1권~4권에 비해 상당히 늦게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The Thought of Mao Tse-Tu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 213). 그러나 「모택동선집」 전4권의 영문판이 1954년에 이미 출판된 것으로 기록되기도 한다. Maurice Meisner, *Mao's China* (London: The Free Press, 1977), p. 395 참조.

거나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문장을 침삭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저작물 편집의 全段階에 걸쳐 계속 진행되었다. 그러나 내용을 대폭 수정한 것은 대개 초기저작들에 해당되며 후기에 올수록 수정의 幅은 작아졌다. 또한 저작의 版別 수정내용도 다르게 나타난다.

가. 「선집 1판」(1953~54)

「선집 1판」에서는 1949년에 문맹퇴치와 사상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한자사용폐지」로 인해 국한문혼용이었던 先行著作을 모두 한글로 수정하였다.¹³⁾ 그러나 숫자는 여전히 漢字를 사용하였으며 문장구성도 세로쓰기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문장의 중간중간에 (박수), (우리같은 박수), (오랜박수) 등의 指文과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말을 괄호로 설명해주고 있어서 문장의 세련미가 부족하다.

(1)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路線 強調

「선집 1판」은 蘇聯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의 “八·一五해방 二주년 기념보고”에 나타난 蘇聯에 대한 평가에 잘 나타나 있다.

13) 「조선중앙년감」에서는 1950년판까지 漢字가 사용되었으며 1951~2년판부터 한글사용이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에) 소련이 더욱 강대한 국가로 변화된 이 조건은 소련으로 하여금… 전후 국제안전의 보장과 약소민족의 해방을 위한 성벽으로 되게 하였습니다… 소련이 국제민주세력의 선두에선 가장 유력한 강국으로된 이 조건은 전후의 국제정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변의 하나입니다.¹⁴⁾

문헌의 수정은 「선집 1판」에서부터 이미 발견된다. 해방직후 김일성 명의로 발표된 단행본들과 「조선중앙년감」 등에 비추어 「선집 1판」을 비교·분석해 보면 蘇聯에 대한 찬사를 삽입한 사실이 분명히 나타난다. 위의 「선집 1판」에서 언급한 “八. 一五해방 二주년 기념보고”에서 “쏘·미·영 련합국 인민들”을 “쏘련인민들과 그의 위대한 영도자 쓰딸린대원수”로 수정¹⁵⁾하였으며, “력사적인 민주선거를 앞두고(46.11.1)”에서도 ‘연합국 군대’에 의해서 해방되었다는 原文의 내용을 ‘쏘련의 영웅적 군대’에 의해 해방되었다고 수정하였다.

北韓이 8.15해방을 연합국의 승리로 평가했다가 蘇聯의 결정적 역할로 再評價한 시기는 대체로 1947년말 내지는 1948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었다.¹⁶⁾ 이러한 재평가는 1956년 3차 당대회 이후 反金日成勢力을 제거하고 一人統治體制가 굳혀짐에 따라 김일성의 抗日빨치산 혁명전통을 부각시키면서 再修

14) 「선집 1판 1」, pp. 381~382

15) 「조선중앙년감 1949」, p. 377; 「선집 1판 1」, p. 410.

16) 中央情報部, 「金日成選集의 內容變造에 關한 分析(Ⅱ)」(서울: 中央情報部, 1978), p. 23.

正을 가하게 된다.¹⁷⁾ 이것은 1960년대 말에 8.15해방이 마치 김 일성이 조직한 게릴라부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하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韓國戰爭에 개입하여 北韓을 극적으로 구출해 준 中國에 대해서도 독자적 지위를 回復해 주었다 “一九五一年 新년사”에서 “중국민인은… 조선인민군 총사령부 지휘하에”라고 했던 것을 “조선인민군 총사령부 지휘하에”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中國의 위상을 높여준 것이다.¹⁸⁾

한편 “八·一五해방 二주년 기념보고”와 “一九四九年 新년사”에서는 유고슬라비아와 티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는데¹⁹⁾ 이는 티토가 ‘民族共產主義’ 路線을 추구함으로써 스탈린과 티토 간의 충돌이 일어나 유고가 1948년 6월 공산당정보국(코민포름)으로부터 축출당했기 때문이었다. 1946년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청년학생축전에 관한 문건에서는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가 삭제하였으며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축하하는 내용중에서도 民族의 優秀性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삭제하여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고수해 나갔다. 나아가 「조국해방전쟁」에 많은 援助를 제공한 蘇聯과 中國 및 동

17) 中央情報部, 「金日成選集의 內容變造에 關한 分析(I)」(서울: 中央情報部, 1978), p. 37.

18) 「조선중앙년감 1951~52」, p. 38; 「선집 1판 3」, p. 179.

19) 「조선중앙년감 1949」, p. 291, 388; 「선집 1판 2」, p. 303. 「선집 1판」 제1권 p. 161에서는 유고슬라비아와 핀란드가 삭제되고 알바니아가 첨가되었다(「조선중앙년감 1949」, p. 128).

유럽 社會主義 國家들에 대해 이들의 支持와 援助가 없었더라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었다고 회상하면서 國際主義的 連帶를 강조하였다.

요컨대 민족자주노선에 대한 거부와 함께 中國과 蘇聯을 중심으로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노선을 옹호·견지하려 했던 것이 한국전쟁 직후 편집·간행된 「선집 1판」의 수정내용에서 발견되는 뚜렷한 특징이다.

(2) 南勞黨의 遊擊隊活動 縮小

「조선중앙년감 1951~52」의 “신화사 주조선분사 대리사장 류계량동지에게 준 몇가지 문제에 대한 회답(51.2.11)”에 실려 있던 경상남도와 충청도, 지리산 일대에서 활약하던 遊擊隊의 활동내용을 「선집1판」에서 축소시켰다.²⁰⁾ 즉 박종근 유격대, 길원팔 유격대, 리현상 유격대, 운상철과 김용암부대들의 활동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였고 이들 지도자의 이름을 배제한 채 단순한 유격대 활동으로 수정하였다.

南韓內 유격대 활동들이 자칫 南勞黨의 입지를 강화시켜줄 소지가 있었고 김일성 게릴라부대의 활약상을 약화시켜 김일성의 권력구축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추론된다.

20) 「조선중앙년감 1951~51」, p. 41; 「선집 1판 3」, p. 204.

나. 「선집 2판」(1960~64)

김일성저작의 체계화 과정중 「선집 2판」의 편집과정에서 가장 많은 修正과 改作이 진행되었다. 「선집 2판」의 편집을 맡았던 勞動黨 中央委員會 직속 黨歷史研究所는 “표현상 수정을 가한 부분도 있지만 개별저작들은 내용상으로도 약간의 보충 또는 수정이 가하여졌다”²¹⁾라고 언급함으로써 내용수정이 전면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인정하였다. 1956년 8월종파사건 이후 진행된 김일성 권력구축 작업은 1958년에 정착되었고 이러한 기반위에서 김일성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주민에게 교육시키기 위해 새로운 出版事業의 방향이 요구된 것이다.

「선집 2판」의 문체상 특징은 1954년 제정된 「조선어철자법」에 따른 40자모 채택, 사이시옷표시(‘) 사용, 숫자표시의 아라비아숫자 사용, 가로쓰기 사용 등 저작전체가 완전한 한글전용으로 수정되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문장끝에 등장했던 (박수), (열광적 박수), (웃음소리) 등의 指文이 모두 삭제되고 전체적으로 문장이 세련되게 다듬어졌다.

또한 단어사용에 있어서도 문장을 전후 문맥에 맞게 고치고²²⁾ 가능한한 階級主義的 用語로 수정함으로써 공산주의 체제를

21) 「선집 2판 1」 서문.

22) ‘막대한 제문제’를 ‘중대한 제문제’로, ‘적은 기한’을 ‘짧은 기한’으로, ‘동맹파업’을 ‘총파업’으로, 숫자 1을 ‘첫째’로 수정한 것 등이다(“목전조선정치정세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46.2.8),” 「선집 2판 1」).

시급히 구축하고자 하였다. 즉 ‘일본침략주의’를 ‘일본제국주의’로, ‘민중’을 ‘인민’으로, ‘우리동포’를 ‘조선인민’으로, ‘결기’를 ‘투쟁’ 등으로 바꿈으로써 계급주의 사상에 기초한 공산주의 체제의 확립을 시도하였다. 또한 ‘미국인’을 ‘미제²³⁾’로 ‘경성’을 ‘서울’로 수정하여 對美 증오심과 分斷固着化라는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기도 했다.

(1) 學習教材로의 發展

「선집 2판」은 문건의 제목을 세련되게 수정함으로써 이전의 史料的 성격에서 學習教材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예를들면, “각 도 선전관계책임자 련석회의에서 한 연설(47.9.7)”을 “민주조선건설에서의 선전일군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로 제목을 달고 原題를 副題로 사용하는 式이다. 이러한 예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김일성종합대학창립 한뫼기념대회에서 한 연설(47.10.1)”을 “새조선의 우수한 민족간부가 되기 위하여 배우고 또 배워야한다”²⁴⁾로 고쳤으며, “북조선직업총동맹 제2차 대회에서 한 연설(47.12.21)”도 “북조선직업총동맹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로 바꾸었다.

또한 “조선임시정부 수립을 앞두고 20개조 정강발표(46.3.

23) “통일적 민주주의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50.5).”

24) 내용중 프라하에서 개최된 국제청년축전을 치하한 대목을 삭제하였으며 “여러분은 열심히 유학하여 과학기술을 무장”하도록 힘쓰라는 문구를 “과학기술을 소유하며 맑스-레닌주의로 무장”하라는 내용으로 수정하였다(「조선중앙년감 1949」, p. 426~427).

23)”는 “20개조 정강”으로, “민주주의 립시정부수립을 앞두고 조선청년들에게 고함(46.6.23)”은 “미래의 조선은 청년들의 것이다”로, “북조선 립시인민위원회의 산업, 철도, 운수, 체신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발표에 제하여 조선인민에게 고함(46.8.10)”은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자주독립국가의 기초”로, “력사적인 민주선거일을 앞두고 조선인민에게 고함(46.11.1)”은 “력사적인 민주선거를 앞두고” 등으로 각각 수정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 관한 「선집 2판」 제3권은 출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저작선집」과 「저작집」에서 발견되는 이 시기 문헌들에 대한 제목의 수정도 이 당시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호소문」 내지는 「명령문」은 모두 새로운 제목으로 변경하고 원제를 부제로 달았는데 “평양시 해방에 즈음하여(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호소문, 50.12.9)”로 변경하는 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울시 해방에 즈음하여(51.1.5),” “5.1절에 즈음하여(53.5.1)” 등을 수정하였고 “전체작가 예술가들에게(51.12.12)”는 “우리에술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로 수정하는 등 보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學習教科書의 형태로 발전시켰다.

(2) 蘇聯에 대한 兩面的 態度

스탈린사망 이후 후르시초프의 스탈린격하 운동은 蘇聯과의 새로운 관계설정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따라서 「선집 1판」에 대거 등장하였던 직설적인 스탈린찬사 관련 21편의 문건을 「선집 2판」에서 삭제하였다. 그러나 국제질서에서 蘇聯의 영향

력을 감안하여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삭제된 주요문건은 “쓰딸린 대원수에게 보낸 서한(48.9.21),” “모스크와 야로슬라브 역두에서 진술한 연설(49.3.3),” 그리고 1949년 3월에 체결한 “조소량국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의 4차례 담화 등이다. 또한 “소련군대의 위력으로 해방된 북조선은 결정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적 발전의 길에 나섰습니다”라고 했던 내용중 ‘소련군대의 위력으로’라는 수식어를 삭제하였고, “세계인민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은인인 쓰딸린 만세” 등 스탈린 찬양에 대한 구호와 “레닌은 <양곡은 사회주의>라고 말했습니다”등의 내용을 전면삭제하였다.²⁵⁾ 이는 主體思想의 시발점인 對外自主性 확보를 위한 脫蘇聯의 의도를 가지고 스탈린과 蘇聯에 대한 종속적 표현을 모두 삭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²⁶⁾

「선집 1판」의 “북조선 도, 시, 군 인민위원회를 결속하면서 (47.2.20)”에 나타난 “소련인민의 우의적 방조아래서 전체인민들의 열성적 노력에 의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완전독립국가를 건설할 것이며,” “우리민족은 단지 자치할 능력이 있을뿐 아니

25) 「로동신문」, 1956. 8. 15; 「선집 2판 4」, p. 312; 金泰瑞, 「金日成選集 修正內容 分析」(서울: 國土統一院, 1979), p. 190.

26) 이것은 김일성이 蘇聯共産黨 第20次大會(56.2)의 결정을 따른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1기 6차회의(53.12.20)에서 발표한 「소련, 중국방문 보고」에서도 스탈린 찬사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였고 蘇聯과 中國 등 社會主義 國家들과 단결을 강화할 것이라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내용을 대부분 삭제하였다(「조선중앙년감 1955~56」, p. 27; 「선집 2판 4」, p. 81).

라,” “가장 신뢰할만한 가장 민주주의적인 소련국가와 린접하였으며” 등의 문구를 「선집 2판」에서 삭제하였다.²⁷⁾

그러면서도 「선집 2판」은 蘇聯이 조선의 해방자라는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새민주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우리의 과업(45.10.18)”의 문건을 보면 「선집 1판」 제1권(p. 14)에 나타나 있는 “소련의 무력에 의하여 해방된 우리는 소련과의 친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는 문구와 “붉은군대의 피로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표현을 「선집 2판」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또한 “3.1운동 27주년을 맞이하며(46.3.1)”²⁸⁾에서도 “우리민족을 해방한 소련군대 만세”를 “우리민족의 해방자인 소련군대 만세”로 표현을 수정하였지만 蘇聯이 조선의 해방자라는 점은 認定하였다.

한걸음 더 나아가 “8.15해방 1주년기념(46.8.15)”에서는 오히려 蘇聯의 역할을 첨가시키기까지 한다. 즉 “오늘은 일본강도들한테서 우리조선민족이 영원히 해방된 역사적 기념일입니다”를 “오늘은 우리조선민족이 위대한 소련군대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압박에서 해방된지 1년이 되는 역사적 기념일입니다”²⁹⁾라고 수정하여 “소련군대의 영웅적

27) 「선집 1판 2」, p. 195, 290, 294.

28) 내용중 「선집 1판 1」, p. 20에서 “소베트와 련합국인민이 조선을 해방”으로 된 대목을 「선집 2판 1」, p. 53에서는 “소련군대가 조선을 해방”으로 바꾸었고 「저작집」에 가서는 이것을 “소련인민은 우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였다(「저작집 2」, p. 100).

29) 이같은 혼란으로 이 두 문건은 「저작선집」의 편집에서 제외되었으며 「저작집」에 가서야 “소련군대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를 삭제함으로써 최초의 문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되돌려졌다(「저작집 2」, p. 347).

투쟁에 의하여”를 첨가시켰고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소련을 선두로하는 민주진영의 위력이 계속 공고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첨가함으로써 蘇聯의 위상을 크게 부각시킨 점도 특이하다. 이는 「선집 2판」이 간행된 1960년까지 김일성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노선에 가장 충실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³⁰⁾

(3) 政權의 正當性 確保와 統一戰線構築에 대한 強調

「선집 2판」에 再收錄된 31편과 첨가된 문건은 黨과 政權 및 社會團體活動관련 내용으로 「선집 2판」은 김일성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대남통일전선 확대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1950년대 중반까지 김일성정권의 권력기반이 구축되었고 점차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勞動黨의 활동에 대해서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새민주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우리의 과업,” “인민정치위원회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기관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당이 걸어온 길과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등 北韓政權의 활동과 관계된 문헌을 대거 첨가함으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세우려고 시도한 흔적을 역력히 볼 수 있다.

“20개조정강(46.3.23)”에서는 北韓體制의 성격에 대해 ‘자유’

30) 「선집 2판 2」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인민정권의 과업(57.9.20),” p. 308에 나타난 蘇聯, 中國 등 社會主義 陣營을 중심으로 國際的 分業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저작선집 1」, p. 173에서 삭제하지 않은 것을 보면 경제원조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독립국가로 규정했던 원문을 ‘자주’ 독립국가로 수정하고 ‘자유 독립’도 ‘완전독립’으로 고쳤으며 ‘민주정체’라는 말은 아예 삭제함으로써 ‘자유’보다는 ‘자주’를 지향하는 社會主義 體制임을 부각시켰다. 이로써 北韓體制의 성격을 프롤레타리아 階級路線으로 몰아 나가며 체제의 정통성을 세우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선집 2판」 제1권(p. 315)에서는 북한이 “북조선 1300만 인민을 대표”한다는 표현을 “전체민족”을 대표한다고 수정하였다.

한편 「선집 2판」 제4권(p. 65)에서는 정부대표단 명단³¹⁾에 윤공흠과 주황섭의 이름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1956년 8월종파 사건에 연루된 延安派의 윤공흠을 제거하고 1958년 천도교청우당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천도교도인 주황섭을 숙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이외에도 김두봉과 같은 反김일성파들의 이름을 「선집 2판」에서 모두 삭제하여 김일성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세우고자 하였다.

또한 「선집 2판」에서는 “현시기 민전앞에 나선 몇가지 임무에 대하여” 등 統一戰線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民靑 중심의 혁명세력을 조직화하고, 반동분자, 매국도당으로 비난해 오던 김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再評價³²⁾를 내리고 있다.

31) 「조선중앙년감 1954~55」(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4), p. 22.

32) 「선집 1판 1」, p. 84; 「선집 1판 2」, p. 111, 141, 290, 339; 「선집 2판 1」, p. 116; 「선집 2판 2」, p. 138, 162. 김구는 김규식과 함께 「남북정치지도자 연석회의」(48.4.19)를 참석하고 돌아온 후 암살당하였으며 北韓은 이점을 고려하여 김구를 타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같은 의도에서 “청년들의 임무”가 재수록되었고 “민청단체들의 과업”이 첨가되었으며 “5.1절기념,” “보통강 개수공사 기념,” “림시인민위 보고,” “토지개혁 1주년 기념,” “인민위 선거 결과와 금후의 과제,” “8.15 해방 2주년 기념” 등의 문건은 편집에서 除外되었다.

(4) 抗日武裝鬪爭의 公式化와 ‘主體’의 登場

「선집 2판」에서 처음으로 김일성의 抗日鬪爭活動 내용을 첨가시켰다. “1930년대 초부터 국내외에서 치열히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우리인민이 일제를 반대하여 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라는 문장을 첨가³³⁾함으로써 김일성의 항일무장활동을 公式化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를 수록하여 權力鬪爭에서 蘇聯派와 延安派를 제거하고 김일성 甲山派의 입지를 세우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다. 「저작선집」(1967~87)

「선집 2판」이 출간된 1964년 이후 「저작선집」이 간행되기 시작한 1967년까지 北韓社會는 정치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中·蘇紛爭이 첨예화되어 가는 와중에 김일성의 自主路線은 점차 구체화되었고 이에 따라 또다시 문헌수정의 필요

33) “목전 조선정치정세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46.2.8),” 「선집 2판 1」, p. 42.

성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思想學習을 위해서는 1964년 제정된 「조선어 맞춤법」에 맞게 기존의 김일성문헌을 수정할 필요성도 대두된 것이다.

「저작선집」에는 「선집 2판」으로부터 人民委員會 활동과 勞動黨의 업적과 직접 관련있는 47편의 문건을 선택하여 재수록하였고 나머지는 제외시켰으며 60년대 이후의 새로운 문건을 첨가하였다. 「선집 1판」부터 계속해서 수록된 문건은 9편이며 「선집 1판」으로부터 6편이 발췌되었다. 「저작선집」은 1967~68년에 1~4권을 먼저 출간하였고 5~9권의 간행은 1972년 이후부터 재개되었는데 1~4권이 최고인민회의나 黨大會관련 문건을 중심으로 편집된 반면, 5~9권은 「저작집」과 유사한 형태로 경제와 사회분야에도 비중을 할당하였다.

(1) 文化語 使用

1964년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64.1.3)”와 1966년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려 나갈데 대하여 (66.5.14)”의 발표를 계기로 초창기에 많이 사용하였던 露語와 中國語를 소위 文化語로 대폭 수정하였다. 또한 이 문법적 조치로 1954년이래 사용했던 사이시옷표(‘)는 사라지게 되었다.

“사로칭 과업(64.5.15)”에 대한 연설을 예로들어 살펴보면 (제4권 pp. 97~125), 주구→앞잡이, 해결되다→풀리다, 개조하다→고치다, 모방하다→본따다, 일환→한고리, 도발하다→일으키다, 책동하다→꾀하다, 확신하다→굳게 믿다, 애호하다→아끼고 사랑하다, 도입하다→받아들이다, 인식하다→깨닫다, 배양하

다→키우다 등으로 수정하였다.³⁴⁾ 그러나 ‘그루빠,’ ‘깜빠니야’ 등 몇가지 러시아어는 그대로 사용되었다.³⁵⁾

또한 「저작선집」에서부터는 國名을 그 나라의 발음대로 수정·표기한 것이 특징적이다. 체코슬로바키아를 체스꼬슬로벤스꼬로, 파란을 뿔스카로, 루마니아를 로므니아로, 몽고를 몽골로, 비르마를 버마로 각각 수정·표기하였다.

(2) 自主路線 標榜

「선집 2판」에서는 「선집 1판」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에 더욱 충직하자(49.12.15)”를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더욱 충직하자”로 수정, 수록하였으나 「저작선집」에서는 이를 삭제함으로써 점차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대한 태도를 완화했다. 그 이유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蘇聯의 優越權을 인정한 개념이기 때문이었다. 北韓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 마침내 김일성 정권의 自主性을 발전시켜 갔다고 할 수 있다.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48.11)”에서도 “인류사회의 발전법칙을 알게하여”라는 대목을 “선천적 사상과 이론 즉, 맑스-레닌주의로 무장시켜야 한다”로 수정함으로써 北韓의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맑스

34) 이 외에도 축성되다→뒹아지다, 폐지하다→없애다, 제외하고→내놓고, 광범히→널리, 도달하다→이르다, 당당한→똘똘한, 항상→언제나, 거대한→커다란, 전진하다→나아가다, 고수하다→지키다, 진정한→참된, 인도하다→이끌다, 시정해야→고쳐야 등의 수정이 발견된다.

35) 「저작선집 1」, p. 92, 578; 「저작선집 4」, p. 200.

-레닌주의 사상으로 훈련된 것처럼 自主性を 왜곡하였다.

自主路線 標榜은 우선 8.15해방에서 蘇聯의 결정적 역할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면서 시작했다. “8.15해방 10주년 경축보고 (55.8.15)”의 제목 앞에 붙였던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을 시작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62.10.23)”에서는 蘇聯人民에 대해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삭제하였고 「저작선집」 제4권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55.4)”에서는 “위대한 쏘베트군대에 의하여 조선이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었다”고 했던 문구중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를 삭제(p. 196)하여 日帝의 식민지 통치기반에서 해방되었다고 수정·표현하였다.

經濟發展 戰略에서도 親蘇政策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自主路線을 표방하였다. 즉 「선집 2판」의 “건설사업에서의 혁신을 위하여(56.1.30)”에서 수회에 걸쳐 사용했던 “쏘련을 향하여 배우자!”라는 구호를 삭제했다.

그러나 「저작선집」에서는 ‘조선의 해방자’로서의 蘇聯의 역할을 완전히 삭제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저작선집」 제1권 “북조선 공산당 각급 당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45.12.17)”에서 “쏘련의 영웅적 붉은 군대는 우리조국강토에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조선인민에게 자유와 독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p. 10)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목전 조선정치정세”에서는 “우리인민이 쏘련군대에 의하여 해방된지”

(p. 22)라고 기록하고 있다. 「저작선집」 제4권의 “당원들의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에서도 “위대한 쏘베트군대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일제식민지 통치기반에서 해방”(p. 214)되었다는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적 수정사실은 이 시기까지만해도 自主路線을 시도하기는 했으나 1965년부터 親蘇路線으로 再復歸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3) 金日成 唯一體系 確立

「저작선집」의 편집과정에서 초기의 문헌중에는 人民委員會의 활동과 勞動黨의 업적에 관한 내용을 주로 수록하였고 60년대 이후의 시기에는 北韓式 經濟發展에 관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김일성 정권이 정당성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한 것으로 유도하였다. 즉 「혁명」과 「건설」이라는 北韓體制의 理念과 연결시키면서 김일성 唯一體系(1967)를 세우고자 하였다.

한편 1955년 12월에 행한 김일성의 연설 “사상사업에서의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의 내용중 「선집 2판」으로부터 親中的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脫蘇聯化’로서의 ‘주체’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自主路線’으로서의 ‘주체’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3.1운동 27주년”이나 “8.15해방 1주년 기념” 등의 문건은 3.1운동이나 8.15에서 차지하는 김일성의 역할에 대한 주민교육이 미진한 상태였으므로 편집대상에서 일단 제외시켰다. 이렇게함으로써 김일성은 자신의 唯一體系를 확립하는데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 하였

다.

3. 「저작집」(1979~92)의 特徵과 主要 修正內容

「저작집」은 1970년대에 ‘은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하여 사회의 각 분야에 主體思想을 파급시킨다는 김정일의 취지와 주도하에 체계화되었다. 이에 대해 「조선중앙년감」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김일성저작선집」편찬에 이어 「김일성저작집」을 낸 데 대하여 몸소 발기하시고 저작집출판에 나서시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었다”³⁶⁾라고 기록하고 있다. 김정일은 1973년 9월 黨中央委員會 비서에 임명되고 1974년 2월 政治局 위원이 되면서 1972년 황장엽과 양형섭에 의해 수행되어온 기존의 맑스-레닌주의를 주체사상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강화하였다. 이와같은 主體思想의 構圖에 입각해서 「저작집」의 편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가. 金日成 抗日武裝鬪爭 革命傳統 構築

「저작집」은 1930~40년대에 저술했다는 20편의 김일성 抗日武裝鬪爭 활동관련 문건을 처음으로 수록하였다. 이것은 「선집 2판」에 3줄로 삽입시켰던 滿洲항일투쟁 활동을 확대시키고,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革命傳統을 構築하기위해 시도한 것이다. 이 문헌들은 일제시대의 모든 항일운동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36) 「조선중앙년감 1986」, p. 245.

전개되었던 것으로 기록함으로써 김일성을 명실상부한 抗日鬪爭의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다 「저작집」의 중간중간에 김일성의 사진이나 문건의 친필원고 등을 삽입하여 김일성 행적에 대한 歷史的 事實性을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해방이후의 김일성 행적은 물론 1930년대에 김일성이 발표했다는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등의 문건에 잘 나타난다. 따라서 「저작집」은 김일성 항일투쟁활동의 사실성을 부각시켜 김일성 정권의 정통성을 끌어내고자 하였다.

나. 金日成 偶像化 試圖

「저작집」 체계화 과정에서 김일성을 偶像化하기 위해 시도한 작업으로는 우선 이전까지 구체적인 이름을 명기하면서 기록했던 사실들을 이름을 밝히지 않은채 단순한 사건으로 서술한 것을 들 수 있다. 「선집 2판」 2권의 “2개년 인민경제계획의 수행은 조국통일의 물질적 담보(49.2.1)”에서 “아오지탄광기사 김영목 동무는…”(p. 295)을 “아오지탄광의 한 기사는…” 등으로 표현하면서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런식으로 30여명의 이름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北韓의 혁명과 건설의 역사에서 반동분자의 이름을 거명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일성이 외의 다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금지하였다.³⁷⁾

37)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시작한 진용원 등 극소수의 이름이 등장할 뿐이다.

또한 「저작선집」에서는 「스탈린저작집」과 「레닌전집」으로부터 인용한 부분에 註를 달았으나 「저작집」에서는 註를 삭제하여 金日成著作만을 유일한 문헌으로 만들었다. “북조선공산당 각급 당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 “창립1주년을 맞이하는 북조선로동당,” “민청단체들의 기본임무” 등의 문건에서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다.³⁸⁾ 또한 「저작선집」 제1권 “북조선로동당 2차대회”에 나타난 “맥아더장군 포고 제1호에서”(p. 206) 등의 인용 문구를 「저작집」 제4권에서는 삭제(p. 206)하였다.

이것은 1960년대까지 김일성을 ‘천재적 맑스-레닌주의자’라고 자랑하였기 때문에 스탈린과 레닌저작을 인용하는 것이 오히려 博識해 보였을 것이며 「레닌전집」과 「스탈린저작집」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北韓社會에서 상당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을 짐작케 한다.³⁹⁾ 「저작집」에서 김일성저작 이외의 인용을 삭제한 배경에는 이미 1974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이 발표되어 모든 출판물과 강연, 보고, 토론에서 “언제나 수령님의 교시를 정중히 인용하고 그에 기초하여 내용을 전개”해야

38) “북조선공산당 각급 당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 「저작선집 1」, p. 12, 13, 15, 17, 18 「저작집 1」, p. 478, 480, 481~2, 485; “창립1주년을 맞이하는 북조선로동당,” 「저작선집 1」, p. 142→「저작집 3」, p. 412; “민청단체들의 기본임무,” 「저작선집 1」 p. 269→「저작집 4」, p. 487; “현 단계에 있어서의 지방정권기관들의 임무와 역할,” 「저작선집 1」, p. 335→「저작집 7」, p. 29.

39) 1970년 사회과학출판사가 「김일성동지의 로작색인」을 출간하면서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시며 천재적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 동지”라고 극찬하였다.

한다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⁴⁰⁾ 심지어 김일성 이외의 개별 간부들은 어떤 ‘결론’이나 ‘지시’도 내릴수 없고 오직 김일성만이 敎示할 수 있도록 黨의 방침을 정한 것이다.

다. 主體思想의 體系化 및 深化

「저작집」은 우선 용어사용에 있어서 완전히 우리말로 바꾸어 언어에서부터 완전한 주체의식을 세우고자 시도하였다. 「저작선집」까지 사용되던 ‘코민테른’을 ‘국제공산당’으로 바꾸어 사용하였고, 소그루빠적 행동, 반당그루빠도 분파적 행동, 반당파로 각각 變用하였다.⁴¹⁾ 그러나 「저작집」 제9권에서 ‘경제감빠니야’(p. 487)나 「저작집」 제19권의 ‘공산주의 그루빠들’(p. 501), ‘반공감빠니야’(p. 284) 등은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그의 예도 ‘이신작척’이란 용어는 수정하지 않고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⁴²⁾

또한 이전의 계급주의적 용어를 主體思想의 틀에 맞는 용어로 수정하였다. “5.1절과 강계청년 발전소 조업을 경축(64.5.1)”의 연설문에서는 ‘로동자들’을 ‘근로자들’로 수정했다. 이는 혁명과 건설에서의 중심계급을 노동자에서 노동자와 농민, 사무원 모두를 포괄하는 勤勞者로 지칭하면서 주체사상에서의

4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평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74), pp. 37~38.

41) 「저작집 1」, p. 1, 92, 109; 「저작집 2」, p. 408, 444.

42) 「로동신문」, 1992. 11. 22, 1993. 6. 5에서도 발견됨.

혁명주체인 人民大衆을 확대하려는 시도였다.⁴³⁾

문장의 내용에 있어서도 「저작선집」에 잔존해 있던 “소련의 조선해방”에 관한 문구를 전부 삭제하는 대신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 또는 “조선인민이 일제를 격멸” 등의 소위 ‘주체적’인 표현으로 모두 代替하였다.⁴⁴⁾ 「저작선집」 제1권 “북조선 공산당 각급 당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45.12.17)”를 보면 “쏘련의 영웅적 붉은군대는 우리조국 강토에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조선인민에게 자유와 독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p. 10)라는 내용을 「저작집」 제1권에서 “조선인민은 쏘련의 영웅적 붉은군대의 방조밑에 우리조국 강토에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p. 476)로 고쳐 8.15해방이 마치 김일성의 抗日鬪爭의 결과물인양 수정·묘사하였다.

또한 「저작선집」 제2권에서 “우리당과 우리인민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아부하며 그들앞에 굴종하는 유고슬라비아 수정주의자들의 배신적 행위를 견결히 규탄합니다”(p. 227)라고 했던 내용을 「저작집」 제12권에서는 유고슬라비아를 삭제(p. 506)하여

43) 「조선중앙년감 1965」, p. 23.

44)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로동법령초안에 대하여,” 「저작선집 1」, p. 62→「저작집 2」, p. 272;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자주독립 국가 건설의 기초,” 「저작선집 1」, p. 64, 68→「저작집 2」, p. 342, 346; “력사적인 민주선거를 앞두고,” 「저작선집 1」, p. 112→「저작집 2」, p. 513; “창립1주년을 맞이한 북조선 로동당,” 「저작선집 1」, p. 204→「저작집 4」, p. 205.

유고의 民族自主路線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저작선집」 제4권 “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에서도 유고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 16줄(p. 336~337)을 「저작집」 제20권에서는 완전히 삭제(p. 396)하였다. 이는 北韓이 1971년 5월 25일 유고와 貿易協定을 체결하고 그해 9월 2일에 정식으로 外交關係를 수립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유고가 非同盟會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자 비동맹회의에 관심을 갖던 北韓이 유고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저작선집」 1~4권이 간행되었던 1960년대 말까지는 적어도 北韓이 8.15해방에 기여한 蘇聯의 역할을 인정하였다는 점과 民族主體路線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같은 내용들이 「저작집」에서 삭제된 것은 1970년대 초부터 김정일에 의해 주도된 主體思想의 심화·발전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文獻修正의 指向點

이상의 비교분석을 통해 볼 때 수정문헌이 목표하고 있는 몇가지 指向點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것은 主體思想의 형성과정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北韓이 對外的으로 自主性を 지닌 정권과 국가, 민족임을 표방하기 위해 초기문헌에 나타나 있던 종속적인 對蘇, 對中관계의 표현을 다수인민에 의해 자주적으로 세워진 정권인 것처럼 수정하였고 정권수립 이후 줄곧 자주적인 대외정책

을 수행해온 것처럼 문헌을 수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8.15해방에 대한 재평가에 뒤이어 나타난 것이며 北韓이 추구해온 사회주의 혁명이 유럽共産圈 중심의 國際共産主義 運動으로부터 第3世界를 중심으로하는 民族革命의 차원으로 변형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선집 1판」에서는 8.15해방에서 聯合軍의 역할을 한국전쟁직후 蘇聯과 스탈린의 치적으로 급작스럽게 수정하여 선전하다가 1960년 「선집 2판」부터는 점차적으로 그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改作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1967년 「저작선집」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던 조선의 해방자로서의 蘇聯의 역할에 관한 내용은 1979년의 「저작집」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北韓주민들의 學習教材로 사용하고 있는 「김일성저작집」은 北韓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解放직후부터 있었던 것처럼 교육되고 있다.

둘째는 김일성정권이 抗日革命의 전통에 근거하여 세워진 정권이라는 正統性 내지는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일성 抗日武裝鬪爭 삼십, 3.1운동과 8.15해방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南勞黨활동의 격하 등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김일성의 抗日鬪爭傳統을 세우는 작업에 있어서 임춘추와 김도만 등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는데 이들이 「김일성 혁명력사」와 「조선력사」를 재집필하면서 김일성 一家를 혁명투쟁사에 포함시켜 김일성 중심으로 北韓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⁴⁵⁾

45) 金泰瑞, 앞의 책, pp. 43~49.

또한 自由主義的 民族運動이었던 3.1운동을 ‘자주’를 위한 ‘민중’항거로 조심스럽게 변형시켰으며 이것을 김일성 家系와 연결시켜 김형직이 이 운동을 지도했고 김일성도 어렸을 때 참가한 것으로 서술하였다. 8.15해방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美·英·蘇 연합국의 승리로 해방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을 사실대로 인정하였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표현을 하였다. 그래서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을 지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연합국이 아닌 蘇聯의 결정적 역할에 의해 해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北韓정권이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세워졌다는 최초의 내용을 삭제하고 民衆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립된 것처럼 수정하였다.⁴⁶⁾

한편 박헌영과 이승엽 등의 南勞黨系 활동을 축소 내지 삭제함으로써 김일성정권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초기의 「선집 1판」에서 단순히 遊擊活動의 차원에서 활발하게 벌였던 南勞黨의 활동을 축소 내지는 삭제하였고 지도자들을 간첩행위, 북한정권 전복음모 등의 죄목으로 처형하였다. 이로써 김일성의 家系는 혁명적 정통성을 더욱 확보하게 된 것이다.

셋째는 主體思想을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문헌수정

46) “력사적 민주선거일을 앞두고(46.11.1),” 「선집 1판 1」, p. 162, 175; 「선집 2판 1」, p. 231, 240. “민주주의 조선 임시정부수립에 관하여 각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47.6.14),” 「조선중앙년감 1949」, p. 325; 「선집 2판 1」, p. 321.

을 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主體性을 강조하는 용어사용이나 노동자를 근로자로 수정·표현하여 계급주의 노선을 주체사상의 틀에 편입시키려는 시도 내지는 北韓의 民族的 特性을 부각시키려 했던 점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저작집」 제14권에 수록된 1960년 8.15해방 15주년 기념보고문에서는 8.15를 “조선인민의 민족적 명절”로 지칭하면서 民族的 主體를 강조하였다. 이것은 8.15해방이 마치 김일성이 조직한 朝鮮人民軍에 의해 이룩된 것처럼 문헌수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8.15를 民族的 名節로 규정함으로써, 主體思想을 민족적 시각에서 해석하고 김일성을 民族的 입장에 섰던 사람으로 묘사하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對南統一戰線을 끊임없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문헌을 수정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반동분자, 매국노로 비난했던 김구를 이승만과 분리시켜 統一을 염원한 인사로 긍정적인 재평가를 하였다. 김구는 1948년 4월 19일에 열린 「남북지도자 연석회의」에 참석하였고 유엔감시하의 총선거를 통한 南韓政府樹立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이승만과 구분하여 모든 출판물에서 김구를 비난하는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또한 韓國戰爭 직후에는 그동안 사용을 억제해왔던 ‘민주기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南韓內的 容共統一勢力을 확보하고자 하였다.⁴⁷⁾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김일성저작은 각 段階마다 김일성의 행위와 사상을 미화하고 해설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추어 문헌

47) 中央情報部, 「金日成選集의 內容變造에 關한 分析(II)」(서울: 中央情報部, 1978), pp. 30~32.

수정이 정교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저작집」에는 中國과 蘇聯에 대한 찬사 및 對外 屈從的인 문구는 완전히 삭제되었고 부분적으로 自主的이고 主體的인 내용의 문장을 첨가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主體思想의 學習叢書’로 발전하게 되었다.

第三章 「김일성저작집」을 中心으로한 金日成著作의 內容分析

「저작집」은 현재 北韓에서 主體思想의 학습교재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문헌이다. 「저작집」은 黨과 정치활동 중심으로 되어 있던 기존의 문헌형태에서 탈피하여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문헌을 편입시켰으며 매해의 김일성 「신년사」가 비교적 정기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저작집」은 그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 등 각 분야의 기본적인 사상과 논리를 담고” 있는 主體思想의 총서이자 北韓社會主義 革命과 建設의 학습 교과서이다.

본 장에서는 第1章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같이 勞動黨史의 時期區分에 근거하여 「저작집」을 1~7권, 8~14권, 15~25권, 26~35권, 36권 이후의 5부분으로 각각 분류하여 時代的 背景과 文獻構成의 特徵을 살펴보고 主要文件을 분석함으로써 金日成著作의 전반적인 내용과 主體思想의 성격을 파악해 본다.

1. 제1권~7권(1930.6~1953.7): 抗日鬪爭, 政權樹立 및 「조국해방 전쟁」時期

가. 時代的 背景 및 文獻構成

이 시기는 1945년 8월 北韓에 설치된 「소련군사령부」⁴⁸⁾의 지

48) 蘇聯軍은 1948년 12월 北韓으로부터 撤收하였다.

<표3-1> 「김일성저작집」發刊現況 및 構成

권수	발간년도	수록대상시기	수록자료수	시대적 특징 및 중요문건
1	1979	30.6 ~45.12	50(2,5,1)	북조선공산당 사업
2	"	46.1 ~46.12	79(9,26,13)	임시인민위, 당창립총회
3	"	47.1 ~47.12	58(2,9,16)	47년경제계획, 인민위
4	"	48.1 ~48.12	46(8,19,12)	48년경제계획, 2차당대회
5	1980	49.1 ~50.6	48(0,7,10)	2개년경제계획
6	"	50.6 ~51.12	60(5,0,25)	한국전쟁
7	"	52.1 ~53.7	48(2,0,17)	한국전쟁
8	"	53.8 ~54.6	36(2,3)	전후북구발전을 위하여
9	"	54.7 ~55.12	30(6,8)	사상에서의 주체
10	"	56.1 ~56.12	25(2,3)	3차당대회
11	1981	57.1 ~57.12	29(2,12)	최고인민회의 2기
12	"	58.1 ~58.12	36(10,18)	정권창립 10주년
13	"	59.1 ~59.12	34(4,8)	당중앙위 59년 2월회의
14	"	60.1 ~60.12	18(5)	청산리방문, 기술혁명
15	"	61.1 ~61.12	19(6)	4차당대회, 신경제관리체계
16	1982	62.1 ~62.12	23(6)	최고인민회의 3기
17	"	63.1 ~63.12	21(3)	자위국방관철
18	"	64.1 ~64.12	27(8)	농촌테제, 사로청 5차대회
19	"	65.1 ~65.12	22(4)	계획일원화, 당창건 20주년
20	"	65.11~66.12	14(3)	당중앙위 4기 12차회의
21	1983	67. 1~67.12	23(4)	최고인민회의 4기
22	"	68. 1~68.9	18(7)	정권창립 20주년
23	"	68.10~69.5	17(5)	사회주의경제의 문제점
24	"	69. 6~69.12	15(2)	현정세와 정치군사사업
25	"	70. 1~70.12	18(3)	지방공업, 5차당대회
26	1984	71.1 ~71.12	25(8)	당중앙위 5기 2차회의
27	"	72.1 ~72.12	28(6)	최고인민회의 5기, 헌법
28	"	73.1 ~73.12	31(7)	3대혁명, 조국통일 5대방침
29	1985	74.1 ~74.12	34(6)	세금제도폐지
30	"	75.1 ~75.12	41(4)	당창건 30주년
31	1986	76.1 ~76.12	31(2)	소년단창립 30주년
32	"	77.1 ~77.12	36(8)	최고인민회의 6기, 교육테제
33	1987	78.1 ~78.12	30(7)	노동법, 정권창립 30주년
34	"	79.1 ~79.12	33(5)	농업관리체계 개선
35	"	80.1 ~80.12	29(4)	6차당대회
36	1990	81.1 ~81.12	33(7)	사로청 7차, 직총 6차대회
37	1991	82.1 ~83.5	34(8)	최고인민회의 7기
38	1992	83.6 ~84.12	29(9)	주체사상구현의 투쟁사

주: ()안의 숫자는 「저작선집」, 「선집2판」, 「선집1판」순으로 再수록된 文件數를 나타냄.

원하에 北韓政權이 수립되고 經濟建設을 시작할 무렵 「조국해방전쟁」을 맞게되는 기간이다. 조만식을 위시한 民族主義 그룹이 모스크바 3상회의가 결정한 신탁통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탄압, 급속히 쇠락한 후 延安派, 蘇聯派, 南勞黨派와 國內派, 그리고 김일성의 甲山派 등 共產主義 각 派閥들이 政權掌握을 위해 치열하게 競爭하던 때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수록된 문헌을 살펴보면 김일성 抗日鬪爭活動, 임시인민위원회 및 인민위원회 활동, 勞動黨의 업적에 대한 치적, 統一戰線 구축을 위한 대중사회단체의 조직, 경제발전계획, 그리고 「조국해방전쟁」에 관한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1권 前半部에는 「선집」이나 「저작선집」에 실리지 않았던 解放이전 시기에 발표했다는 문헌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들 문헌에는 소위 1930년 「카륜회의」부터 일제말기인 1943년까지의 김일성 抗日武裝鬪爭에 관한 20편의 문건이 실려있다. 이것은 김일성이 이미 20대 청년시절부터 主體思想을 주장하였으며 民衆의 지도자였던 것처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 문헌의 주된 내용은 「조선혁명은 조선사람의 힘으로 해야한다」는 自主的이고 主體的인 鬪爭精神과 「대중에 의거해야 한다」는 群衆路線을 강조한 것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건들의 신빙성 여부는 의문시된다.

1946년 2월 8일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발족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과 「노동법」,⁴⁹⁾ 「농업현물세법」, 「북조

49) 蘇聯의 역할을 격하 내지 삭제하였고 朝鮮人民을 김일성 개인으로 수정하였으

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중요산업 국유화법령」 등 일련의 ‘반제반봉건 민주개혁’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改革의 根幹을 마련해준 것이 바로 “20개조 정강(46.3.23)”⁵⁰⁾이다. 또한 “국영기업의 계획적 관리운영을 위하여(46.1.23),” 土地改革의 시행결과와 시정사항을 밝힌 “토지개혁의 총결과 금후과업(46.4.10),” “토지개혁 총결보고에 대한 결론(46.4.13)” 등에서는 “위대한 민주주의적 개혁인 토지개혁” 또는 “민주주의적 과업을 용감하게 수행했다”는 등의 문구를 첨가시켜 미화하기도 하였다.⁵¹⁾

1946년 11월 3일의 각급 인민위원회 선거를 前後해서는 “력사적인 민주선거를 앞두고(46.11.1),” “인민위원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46.11.13),” “민주선거의 총화와 인민위원회의 당면과업(46.11.25),” “면, 리(동)인민위원회 위원선거(47.1.11)” 등이 발표되었다. 이는 공식적인 北朝鮮 人民委員會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했다. “북조선 도, 시, 군인민위원회 대회를 결속하면서(47.2.20),” “북조선인민위원회의 당면과업(47.2.24)” 등은 人民委員會의 方向을 제시해 주었으며 이듬해인 1948년

며 中國관련 부분을 삭제하여 김일성의 혁명전통과 主體性을 부각시키려 하였다. 또한 김구를 반동분자에서 제외한 수정내용도 발견된다. 李昌夏, 「金日成著作集 修正內容 分析」(서울: 國土統一院, 1982), pp. 44~56 참조.

50) 「20개조 정강」의 근거는 「조국광복 10대강령」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코민테른 第6次大會에서 채택된 「초안강령」을 그대로 채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초안강령」에 대해서는 김홍명, “서장: 마르크스주의 혁명이론과 통일전선론,” 박현채·김홍명 편, 「통일전선과 민주혁명 (I)」(서울: 사계절, 1988)을 참조.

51) 「선집 2판 1」, p. 58.

최고인민회의의 1차회의에서는 “정부의 정강(48.9.10)”⁵²⁾을 채택·발표하였다.

“우리당이 걸어온 길과 당면한 몇가지 과업(46.4.20)”에서는 무소속을 포함한 統一戰線 構築을 과업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후 김두봉의 「조선신민당」(46년 2월 16일 결성)과 합당, 「북조선노동당」을 결성하였고 “근로대중의 통일적 당의 창건을 위하여(46.8.29)”의 創立大會文 및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 총화(46.9.9)”를 채택하였다. 북조선노동당 창립 이후 “남조선노동당의 창건문제(46.9.26)”는 南韓內 공산당, 인민당, 신민당의 3黨合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1948년 3월에 개최된 2次黨大會를 거쳐 1949년 6월에 발표된 “남북조선노동당을 조선노동당으로 합당할데 대하여(49.6.30)”를 계기로 「朝鮮勞動黨」은 확대·발전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北韓에서는 각종 社會團體가 조직되어 統一戰線 形成을 촉구했다. “녀성동맹조직의 결성(45.11.8)”을 예고하는 “현 국제국내정세와 녀성들의 과업(45.10.25)”과 구체적 과업을 제시한 “녀성동맹의 금후과업에 대하여(46.5.9)”를 위시하여 “직업동맹의 조직(45.11.30),” “농민동맹(46.1.18)” 등이 발표되었다. 統一戰線을 구축하기 위해 특히 青年學生들의 조

52) 蘇聯軍隊에 의해서 朝鮮이 해방되었다고 했던 것을 日帝의 식민지 기반에서 해방된 것으로 수정하였고, 南쪽에서도 土地改革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선집 1판 2」, p. 267). 또한 ‘지방인민위원회가 해산당한 지역’을 「선집 2판」에서는 구체적으로 ‘남조선’으로 수정하였다(「선집 1판 2」, p. 270; 「선집 2판 2」, p. 274; 「저작선집 1」, p. 259; 「저작집 4」, p. 441).

직을 강화하였는데 “민주조선 건설에서의 청년들의 임무(46.5.30),” “학생동맹을 민주청년동맹에 통합(45.12.28),” “조선민주청년동맹 북조선위원회(46.1.17),”⁵³⁾ “미래의 조선은 청년들의 것이다(46.6.23)”⁵⁴⁾ 등이 발표되어 한층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또한 당시 130만명의 청년단체임을 自負했던 民靑組織의 2차 대회 연설문 “민주력량의 확대강화를 위한 민청단체들의 과업(46.9.29)”과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위원회를 결성할데 대하여(46.7.22),” “현시기 민전앞에 나선 몇가지 임무에 대하여(46.12.26)” 등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완전 자주독립(46.5.19)”에서는 신탁지지, 이승만, 조만식 등 반동분자 숙청, 蘇聯과의 유대강화 등을 제시하였으며 “민주주의 조선임시정부를 세우는 것과 관련하여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47.6.14)”는 北韓政府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일치단결을 강조하였다. “남조선 단독선거와 관련하여 우리조국에 조성된 정치정세와 조국통일을 위한 장래 투쟁계획(48.6.29)”에서는 5.10총선거로 수립될 南韓單獨政府를 否定하는 동시에 민족, 민주인사에게 統一政府의 비전을 제시하여 김일성의 民主基地路線을

53) 1946년 1월 17일 共產主義靑年同盟(共靑)이 해체되고 民主靑年同盟(民靑)이 결성되었다.

54) 聯合軍에 의해서 해방되었다는 문구를 蘇聯軍隊에 의해서 해방되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였고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게된 것은 조선력사상 처음이며 쏘련을 제외하면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내용에서 ‘소련이외에는’의 문구를 삭제하여 主體性을 부각시켰다.

수립하고자 하였다.⁵⁵⁾ “통일적 민주주의 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50.5)”에서는 蘇聯軍司令部가 日帝下의 산업 시설을 무상으로 넘겨주었다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경제사회발전 통계숫자를 대부분 수정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을 다룬 제6권과 제7권에서는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50.6.26)” 등 戰爭과 관련된 문건 108편이 대거 발표되었다. 「선집 1판」에 실려있던 스탈린과 蘇聯軍隊에 관한 찬사가 이 전쟁시기에 주로 발표되었다. 또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藝術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 3편의 문건이 주목을 끈다.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50.12.24),” “우리 문학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51.6.30),” “우리 예술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51.12.12)” 등은 북한예술을 自然主義에서 寫實主義로 변화시킨 대표적인 문헌들이다.

나. 主要文件 및 內容

(1) “새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45.10.13)”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노동자, 농민, 민족자본가 등 제세력들을 통합하여 民族統一戰線을 결성하자는 내용으로 특히 中國의 사례를 예로들어 국민당과 공산당이 민족적 차원에서 合黨하여 抗日鬪爭을 벌였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55) 李昌夏, 앞의 책, pp. 108~115. 그러나 이 統一政府樹立에 대해서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삭제하였다(「선집 1판 2」, p. 168).

(2) “목전 조선정치정세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46.2.8)”

친일파 숙청, 토지개혁실시, 산업시설복구, 교육제도 개혁, 찬탁결정에 대한 정당성 표명이 주요 내용이다. 朝鮮이 蘇聯군대에 의해서 해방되었다는 原文의 내용은 「저작선집」에서 「저작집」으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日帝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었다고 수정, 蘇聯의 해방자적 역할을 부정하였다. 또한 「독립동맹」의 근원을 의미하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온”이라는 수식어를 삭제하고 민주당과 공산당의 순서를 공산당과 민주당의 順으로 바꾸었으며 3.1운동을 가리키는 수식어 중에서 ‘유명한’을 삭제하기도 하였다.⁵⁶⁾

(3) “20개조정강(46.3.23)”

1936년 창건된 조국광복회의 10대강령을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⁵⁷⁾ 주요내용으로는 식민지 잔재 청산 및 반동분자들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 집회, 출판, 신앙의 자유보장 및 개인재산 보호, 지방인민위원회 결성, 대기업, 은행, 운수, 광산 등 중요산업의 국유화 및 개인수공업, 상업의 자유화, 토지개혁, 8시간노동제, 보험제, 전반적 의무교육 실시 등으로 되어있다.

해방후 北韓政權 수립기에 각종 정책의 주요방향을 제시한

56) 그의 상세한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李昌夏, 앞의 책, pp. 19~27; 金泰瑞, 앞의 책, pp. 127~132를 참조.

57) 「저작선집 9」, p. 338.

이 「20개조 정강」은 그 사실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저작집」의 편집과정에서는 당시에 김일성이 기록했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로작 <20개조 정강>의 친필원고’ 사진을 삽입하였다. 「선집 2판」은 北韓體制의 성격에 대해 ‘자유’독립국가로 규정했던 원문을 ‘자주’독립국가로 수정하고 ‘민주정체’라는 말을 삭제함으로써 自由보다는 自主를 실현하는 社會主義體制임을 강조하였다.⁵⁸⁾

(4) “력사적인 민주선거를 앞두고(46.11.1)”

선거실시의 당위성, 임시인민위원회의 활동치하, 인민위원회 및 위원들의 역할, 선거방해요소의 지적, 선거참여의 강조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선거반대세력으로 특히 宗教界를 지목하면서 이를 분쇄할 것을 지시하였다. ‘연합국 군대’에 의한 朝鮮의 해방이라는 原文의 내용을 「선집 1판」에서 ‘소련의 영웅적 군대’에 의한 해방으로 수정하였다가 「저작집」에서 ‘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自主性を 부각시키려 했다.

(5) “1947년 인민경제발전 계획에 관하여(47.2.19)”

1946년對比 2배성장, 독립채산제도입, 석탄공업발전, 수송부문발전, 농업발전 및 생필품 공급, 상업과 소비조합망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기록된 ‘독립채산제’라는 용어는 원래 사용되지 않았고 「선집 1판」에서 ‘자립경제’라는 용어를 사용

58) 상세한 수정내용은 金泰瑞, 앞의 책, pp. 133~137.

하다가 1960년 「선집 2판」에서 수정⁵⁹⁾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에 관해서는 기업체수와 병원수, 침대수 등을 수정한 것 외에도 “오늘 북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 발전에 있어서 쏘련의 방조가 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蘇聯으로부터의 기술과 자금원조에 관한 5페이지 분량을 삭제하였다.

(6) “반동적 남조선 단독정부 선거를 반대하고 조선의 통일과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48.3.9)”

주요내용은 ①모스크바 3상회의를 반대하고 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신탁통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美國의 주장에 반대, ②美國과 유엔은 朝鮮을 분열시키며 蘇聯노선만이 정당함, ③朝鮮은 통일적 민주주의 국가로 될 것이라고 하면서 5.10선거 不參을 선동한 것 등이다. 北韓은 1993년 3월 9일 문건발표 45주년 기념보고회를 갖고 聯邦制統一을 거듭 주장하였다.⁶⁰⁾

(7) “2개년 인민경제계획 수행은 조국통일의 물질적 담보(49.2.1)”

과거의 경제사회발전 통계를 대폭 수정 내지는 삭제하였고 특히 생산증대에 功을 세운 30여명의 사람들에 대해 일일이 이름을 언급했던 것을 「선집 2판」과 「저작집」에서 모두 삭제

59) 金泰瑞, 앞의 책, pp. 151~152. 일제가 파괴한 산업시설을 2~6 개에서 64개 탄광을 침수시켰고 78개를 부분적으로 파괴시켰다고 수정하였다. 일제하의 보건시설이 국영병원 2~7개, 침대수 713대였던 것을 국가병원 9개소에 침대수 450대로 축소시켰다.

60) 「평양방송」, 1993. 3. 9.

하였다. 또한 “작년도 계획의 성과적 실현은 위대한 소련의 사심없는 원조와 밀접히 련결되어 있습니다. 소련인민의 물질적, 기술적 원조는… 우리나라 경제건설을 촉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對蘇 從屬的 文句를 삭제⁶¹⁾하여 北韓體制의 獨自性을 내세우고자 하였다.

2. 제8권~14권(1953.8~60): 戰後 經濟復舊 建設期

가. 時代的 背景 및 文獻構成

이 시기는 「조국해방전쟁」 직후 파괴된 北韓經濟를 복구하기 위한 3개년계획(1954~56)과 工業化의 기초를 다지는 5개년계획(1957~61)을 추진한 기간이다. 이 시기에 發展戰略 등을 둘러싼 각 정파⁶²⁾간의 社會主義 路線鬭爭과 權力鬭爭도 극심하게 전개되었으나 모두 숙청되고 1958년에 이르러서는 김일성정권의 권력기반이 강력히 구축되었다. 농업협동화(1954~58.8)와 개인 상공업의 社會主義化 등으로 北韓社會主義의 制度的 改革이 정착되었다.

문헌내용을 살펴보면 「조국해방전쟁」 이전 시기에 전체의 17%밖에 차지하지 않았던 經濟復舊 및 發展에 관한 것들이 54%로 대폭 늘어났다. 전쟁 직후인 1953년 8월에 발표된 “모

61) 「선집 2판 2」, p. 293.

62) 韓國戰爭 直後 1953년 8월 7일 박헌영, 이승엽, 이강국, 임화 등을 美帝고용간첩으로 처형함으로써 蘇聯派와 延安派의 두 그룹이 주요한 반대세력으로 남게 되었다.

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를 계기로 폐허가 된 산업시설의 복구작업이 시작되었다.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55.4)”⁶³⁾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고 “쌀은 곧 사회주의(56.1.28)”라는 口號는 農業生産의 增大를 부추기기에 충분했다.

1956년 12월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주의 건설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56.12.13)”는 당시 혼미를 거듭했던 발전전략의 방향을 정리하는 한편 전주민에게 大衆動員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당단체를 튼튼히 꾸리며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57.7.5)”은 후에 천리마운동으로 불리운 大衆運動에 대해서 黨의 지도방침을 밝힌 것이고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이며 상품류통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58.6.7)”는 大衆動員을 통해 주민의 생필품을 보급하는데 해결책을 제시한 문건이기도 하다.

한편 1973년에 구체화된 「3대혁명」의 초기단계로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에 대해 언급한 “시, 군인민위원회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58.8.9)”이 발표되었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58.9.25)”에서는 對外貿易에서 신용을 잘 지켜 무역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특징적이다. “건설사업에서의 혁신을 위하여(56.1.30)”에서는

63) 내용중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朝鮮이 해방되었다는 내용을 “일제의 장구한 식민지 통치기반에서 해방”된 것으로 표현이 수정되었는데 이것은 「선집 2판」에서 「저작선집」으로의 편집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쏘련을 향하여 배우자!”라는 구호가 「저작선집」 제4권에서 삭제(p. 362)되었고 “농촌경리의 금후발전을 위한 우리당의 정책에 관하여(54.11.3)”에서도 戰後 농업협동화가 “쏘련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등 蘇聯의 방식을 모방하여 급속한 발전을 시도하려했던 많은 부분이 「저작선집」에서 삭제되었다.

1955년과 1956년의 경제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중공업 발전이 경공업 및 소비재공업 보다 우선해야 하는 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었고 이는 노선투쟁과 권력쟁탈로 연결되었다. “인민경제계획을 세우는데서 나타난 몇가지 결함(55.10.21)”에서 관료주의적이고 타성적인 업무태도를 버리고 群衆路線을 추구해야 함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이미 발표된 “관료주의를 퇴치할데 대하여(55.4.1)”⁶⁴⁾는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55.12.28)”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박창욱 등 蘇聯派의 입김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깔려있었다고 하겠다.

나. 主要文件 및 內容

(1) “모든것을 전후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53.8.5)”

원문에는 戰後 경제발전전략을 ①기초자재(벽돌, 시멘트, 목재, 철재) 동원 및 생산강조, ②유휴노동력 최대활용, ③소련으로부터 선진기술 습득, ④절약, 저축 및 외화획득, 경공업, 상

64) 「근로자」(19902), pp. 3~12에 全文이 게재되었다.

업부문으로부터의 자본축적 등으로 경제건설을 추진한다는 大衆動員戰略을 제시하였다.⁶⁵⁾ 그러나 「선집 2판」은 24페이지에 달하는 제2절을 새로 첨가하여 戰後 발전전략이 처음부터 체계적이었던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첨가된 내용을 보면 北韓經濟研究에서 자주 인용되는 내용인 “중공업의 선차적 복구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기본방침을 설정한 것이며 공업, 농림수산업, 교통 등 경제 각분야 및 교육, 문화, 보건까지를 포괄하는 總體的 發展方向을 제시한 것 등이다.

(2)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55.12.28)”

발표당시의 「조선중앙년감」에는 실려있지 않은 문건으로 「선집 2판」에 처음 등장한다. 「선집 2판」으로부터 「저작선집」에 再收錄하는 과정에서 두가지 내용을 삭제하였다. 첫째는, 中國의 예를 삭제한 것이다. 光州學生運動을 主體性있게 바라보는 내용에서 “중국에서는 5.4운동을 청년운동의 커다란 사건으로 기념하고 있다”는 문구와 “우리도 중국당에서와 같이 정풍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풍운동이라는 것이 다른것이 아니고 당성단련이며 사상교양입니다”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⁶⁶⁾

둘째는, 한설야의 이름을 세군데에서 삭제하였다. 한설야는

65) 「조선중앙년감 1954~55」(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4), p. 3.

66) 「선집 2판 4」, p. 325, 346.

김일성의 傳記作家이며 1956년 5월 教育相 및 문학예술총동맹 위원장까지 되었으나 1962년 사상 및 개인생활의 타락성의 이유로 숙청되었다.⁶⁷⁾ 박창옥파를 제거하는데 있어서 한설야의 이름이 등장할 경우 파벌싸움으로 희생되었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설야의 이름을 삭제한 것이다.

‘주체’라는 말을 사용한 당초의 의도는 蘇聯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中國과 같은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스탈린의 사망과 후르시초프의 脫스탈린화,⁶⁸⁾ 그리고 中國軍의 北韓內 주둔(1952~58)등으로 인해 親中國 기류가 형성되었고 김일성은 中國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소련파를 제거할 수 있는 호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당내 연안파들의 입지를 세워준 결과가 되었고 급기야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 反金日成 쿠데타가 시도되었으나 실패로 돌아가 최창익 등 연안파 세력도 제거되었다.⁶⁹⁾ 이같은 일련의 사태로 소련파와 연안파가 일시에 제거되었고 김일성의 갑산파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67) Robert A. Scalapino &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Part II): The Socie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p. 885~887.

68) 1956년 2월 흐루시초프는 蘇聯共產黨 第20次大會에서 스탈린 1人獨裁를 비난하고 集團指導體制를 주장하는 등의 스탈린격하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北韓에서도 김일성독재체제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고 여기에 蘇聯과 中國이 개입함으로써 사건은 더욱 심각해졌다(Scalapino &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pp. 514~515).

69) 延安派의 제거에는 發展路線鬭爭과 관련하여 수정주의자로 비난하였다(「저작선집 4」, p. 198; 「저작집 19」, p. 282).

(3)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56.4.23)”

戰後 3개년계획이 蘇聯과 中國 및 東歐社會主義 國家들로부터 경제, 기술원조를 받아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제 1차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서 당시 논란이 되었던 發展路線鬭爭은 일단 ‘중공업우선정책’과 ‘경공업-농업 동시발전’으로 압축되었다.

「선집 2판」 제4권에서 수정된 대표적인 내용은 “중국에서 신민주주의 혁명이 승리했다”는 내용중 ‘신민주주의 혁명’을 ‘인민혁명’으로 수정(p. 438)한 것이다. 한편 “남반부에서 조국통일이 달성되지 못했다”는 내용을 추가(p. 535)하였고 “레닌은 <양곡은 사회주의다>”라고 한 내용과 “북조선에서는 정전후 벌써 4차에 걸쳐 물가인하를 실시했다”는 문장을 삭제(p. 312, 316)하였다.

(4) “사회주의 건설에서 인민정권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57.9.20)”

蘇聯과 中國을 비롯한 社會主義 국가들과의 國際的 分業을 발전시키자는 내용을 삭제하였다.⁷⁰⁾ 당시 국제적 분업은 중공업건설을 반대하고 생필품 육성을 주장하던 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므로 김일성은 이들을 修正主義者로 몰아 숙청하였다.⁷¹⁾

70) 「조선중앙년감 1958」, p. 33; 「저작선집 2」, p. 28.

71) 「저작선집 4」, p. 211.

(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59년 2월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59.2.25)”

「선집 2판」 제6권에 수록되었던 5페이지 분량(pp. 247~252)의 제1절 「쏘련공산당 립시제21차대회에 대하여」를 「저작집」 제13권에서는 모두 삭제하였다. 삭제된 부분의 내용은 “력사가 가르치는 바와같이…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쏘련이 혼자있을 때에도 <쏘련을 사수하자!> <쏘련을 옹호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싸웠습니다… 쏘련을 중심으로하여 더욱 튼튼히 단결해야 합니다”라는 親蘇문장이다.

(6)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가지 과업들에 대하여(59.12.4)”

農村經濟의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機械化’를 강조하고 있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발전이 아니라 인민경제의 각분야에 기계설비, 동력, 연료를 잘 공급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밝히고 2차 5개년계획 기간에는 農業이 工業을 뒷받침해야 하며 工業發展에 필요한 원료를 農業部門에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7) “천리마 기수들은 우리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 전사이다(60.8.22)”

1959년 3월 강선제강소 진응원작업반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작된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천리마운동이 구체화된 것으로서 1930년대 蘇聯의 스타하노프운동, 1957에 시작된 中國의 大躍

進運動과 같은 大衆動員運動으로 北韓경제발전에 있어서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제15권~25권(1961~70): 自主-自立路線 推進期

가. 時代的 背景 및 文獻構成

북한이 中·蘇紛爭의 와중에서 親中(1960~64), 親蘇(1965~70)노선을 거듭하다가 그 그늘에서 점차 탈피하는 시기로 經濟自立路線을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일련의 군사적 위기를 맞아 國防力을 강화하는 시기이다. 1961년 5월 南韓에서의 軍事政府 등장과 1962년 10월 쿠바미사일위기 등의 위기의식⁷²⁾속에서 自衛國防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이는 1960년대초 軍部勢力이 政界에 진출하는 원인이 되었다.⁷³⁾

문헌구성을 보면 우선 1960년대 들어서 청산리방법의 효시가 된 김일성 현지교시 “사회주의적 농촌경리와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60.2.8)”를 계기로 農村의 官僚主義를 타파하는 一大革新을 일으키게 되었고 “군당 단체의 사업방법을 개선,” “강서군 사업지도에서 얻은 교훈” 등을 바탕으로 工業, 農業分野에서 「새로운 경제관리체계」(61.12.15)⁷⁴⁾를 도입하였다. 「대

72)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1961년 7월 6일과 7월 11일에 蘇聯, 中國과 각각 相互防衛條約을 맺게 되었다(Scalapino &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pp. 584~585).

73)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 171~175.

74)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내올데 대하여”의 문건을 「로동신문」(1989. 12. 15)에 다시 소개하였으며 「근로자」(1990.3), pp. 3~26에 全文을 再게제한 바 있다.

안의 사업체계」로 불리우는 “공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 및 “군협동조합 경영위원회(61.12.18)”의 발족으로 經濟의 一元化 體系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農業政策의 기틀을 마련한 “사회주의 농촌체제(64.2.25)”가 발표되었고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곧 사회주의다(65.2.9)”라는 口號를 내세워 대내 經濟建設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편 1965년에는 “대의무역에서 자주성을 튼튼히 견지할데 대하여”와 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65.9.23)를 통하여 부서간에 체계적이며 현실성있는 계획을 입안코자 하였다. 1965년 11월 黨中央委 4기 12차전원회의에서는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라는 經濟政策을 제시하여 총체적인 國家發展方向을 모색하였다. 이 문헌은 총 260여 페이지로 김일성저작중 단일문건으로는 최고의 長文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60년대 중반이후 中·蘇로부터의 경제·군사원조 단절, 이로인한 軍費支出의 증대로 첫 장기계획인 7개년계획(1961~67)의 3년연장이 불가피했다. 그 결과 “7개년 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총돌격하자(68.4.25),”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등을 통한 大衆動員運動을 다시 전개하였고 地方工場을 건설하여 생필품을 시급히 보급하고자 하였다.⁷⁵⁾ 그후 “조선로동당 제5차

75)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70.2.27), 「저작집 25」, pp. 37~71.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70.11.2)”에서 7개년계획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6개년계획을 수립했으며 단기적으로는 “1971년 사업방향”에 대해서 밝히는 등 포괄적인 방향을 설정하였다.

1960년대들어 “우리나라 정세와 몇가지 군사과업에 대하여(61.12.25)”를 발표, 武力增強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1962년 12월 黨中央委 제4기 5차 전원회의는 「4대군사노선」을 채택함으로써 ‘自衛國防’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 결과 1967~71년 사이에 國防費의 支出이 매년 GNP의 30~32%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64.2.27)”에서 北韓의 혁명역량, 南韓內的 혁명역량, 국제적 혁명역량 등 「3大革命力量」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軍備增強에 힘입어 김일성은 60년대 후반에 南朝鮮 武力革命을 부르짖는다. 1967년 “당대표자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67.6.20)”에서 “전쟁준비를 잘할데 대하여”라는 小題目으로 발표하였고, “당면한 경제사업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며 로동행정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67.7.3)”에서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굳은 결의를 표명함과 동시에 “반미투쟁을 강화하자(67.8.12)”에서 그 好戰性을 더욱 부추기었다. 그 결과 1968년의 프예볼로호 나포사건, 김신조일파의 청와대 침투, 동해안 무장공비 남파사건 등과 같은 武力挑發이 계속되었으며 1968년 3월에는

고조된 군사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조성된 정세에 대하여 전쟁준비를 잘 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특히 1968년 9월 北韓政府樹立 20주년 기념연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우리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에서는 “폭력없이 그 어떤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남한을 해방시킬 수 없다”고 공언하였으며 1969년 4월에는 美軍의 EC-121 정찰기를 격추시킨 인민군 부대에 「축하문」을 보내 격려하기도 하였다.

한편 1967년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문제에 대하여(67.5.25)”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67.12.16),” 196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우리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68.9.7)” 등이 발표되면서 정책차원 수준의 主體思想을 나름대로 체계화하려 하였다. 이러한 主體思想은 第3世界의 민족적 특성과 맞물려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되었으며, 김일성은 1970년 “레닌의 식민지 해방투쟁에 관한 사상은 승리하고 있다(70.4.16)”를 발표하여 主體思想을 식민통치를 경험한 제3세계 국가들의 역사적 토양에 뿌리내리고자 하였다.

社會文化 분야에서 主體性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어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64.1.3),”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려 나갈데 대하여(66.5.14),” “우리의 예술을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혁명적인 미술

을 발전시키자(66.10.16)” 등을 발표하였다. 文化的 主體性 확립을 위해서는 학생과 청소년들에 대한 敎養教育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대학의 敎育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63.4.18),”⁷⁶⁾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敎育교양하자(68.3.14),” “청소년들에 대한 공산주의적 敎育교양의 몇가지 문제(69.12.5)”를 발표하였다.

동시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68.10.8)”를 발표함으로써 對南 武力革命戰略을 潛在化시키고 非同盟國家들과의 外交關係를 강화하여 南朝鮮革命의 外的 환경조성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1969년에 이르러 第3世界國家 기자들과의 대담과 대화의 문건이 서너편 나오기 시작하였고 70년대 초에 들어서 47편의 담화 및 대화문건이 수록되기에 이른다.

나. 主要文件 및 內容

- (1)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61.9.11)”

주요내용은 천리마운동 찬양, 농업협동화를 기반으로한 社會主義건설 추진, 7개년계획의 목표설정,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는 南韓을 살리기 위한 統一實現 등이다. 1962년 「조선중앙년감」에 나타난 ‘북조선’(p. 13)을 「저작선집 3」에서 ‘공화국북

76) 이 논문발표 30주년 기념보고회가 김일성대학에서 개최되었다 (「로동신문」 1993. 4. 19.).

반부'(p. 60)로 수정하였고 “얼마전에 발표된 쏘련공산당의 새로운 강령적 초안,” “국제적 분쟁들을 회담의 방법으로 해결, 군비철폐,” “평화적 공존원칙에 입각하여” 등의 문구를 각각 삭제⁷⁷⁾함으로써 武力鬪爭의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2)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62.8.8)”

郡을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에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據點으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郡단위에 1개이상의 地方工場을 건설하여 생필품을 공급하도록 지시한 1958년 6월 전원회의 방침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을 시달하고 獨立採算制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62.10.2~3)”

平和協定 체결, 聯邦制 統一, 社會主義 國家간의 협력관계 유지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原文의 내용에서 “군비철폐, 핵무기 생산과 시험의 금지, 냉전의 종식과 국제긴장상태의 완화, 회담의 방법에 의한 국제적 분쟁문제들의 해결”의 문구를 삭제하였다. 그 이유는 1960년대 말 격화된 베트남전쟁이 군비증강과 核武器 개발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될만큼 국제적인 무력대결의 국면이 고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자계산기의 제작과 의학분야에서의 비루스공생균의 발견,”

77) 「조선중앙년감 1962」, p. 56, 58, 59→「저작선집 3」, p. 187, 192, 195.

“생물학과 의학발전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경락실태의 발견” 등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문헌의 최초발표 당시에는 대단한 과학적 업적인줄 알았으나 이것이 西歐와 中國에서 이미 오래전에 발견된 것임을 뒤늦게 알고 이를 삭제하게 된 것이다.⁷⁸⁾

(4)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테제(64.2.25)”

農業에 대한 工業技術 지원, 郡의 역할 활성화, 1966년까지 농업현물세 폐지 등 農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3년내에’를 ‘가까운 년간에’로 고치고 문장을 ‘문화어’로 수정하였다.⁷⁹⁾

(5)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64.5.15)”

朝鮮民主靑年同盟 5次大會 연설문으로 ①당의 정책을 관철 시키는데 헌신, ②경제건설에 적극참여, ③조국통일의 선봉적 역할, ④국제적 청년연대 강화 등 4가지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5次大會부터 「民靑」을 「社勞靑」으로 개칭하였다. “의식주 문제”를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로 바꾸어 먹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⁸⁰⁾ “맑스-레닌주의를 소유한다”는 문

78) 이 업적에 대해서는 1964년 「신년사」에서도 “의학과 생물학의 발전에서 일대 전변으로 되는 경락계통의 발견을 비롯하여”라고 극찬하였던 것을 삭제하였다.

79) 「조선중앙년감 1965」, p. 11; 「저작선집 4」, p. 46. 어휘를 수정한 것에는 ‘급속히’를 ‘빨리’로, ‘기타’를 ‘다른’으로, ‘자유로’를 ‘마음대로’ 등 우리말 사용을 확대한 것들이다(「조선중앙년감 1965」, p. 20; 「저작선집 4」, p. 72).

80) ‘식의주’라는 표현으로 발전된 것은 1986년 12월 3일 당6기 12차 전원회의에서 행한 김일성 연설에 처음 나타난다. 통일원, 「92 북한개요」 (서울:통일원, 1992), p. 280.

장에서 ‘소유한다’를 ‘안다’로 바꾸었다.

(6)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
조선 혁명에 대하여(65.4.14)”

지난 2~3년간 國防力增大에 치중한 나머지 경제발전이 지연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經濟體制의 社會主義的 改造가 완성되었고 技術革命으로 경제성장의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1964년에 제시한 「3大革命力量」을 더욱 강화하여 社會主義 建設에 매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7) “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66.10.5)”

社會主義陣營 內部에 발생한 분쟁이 세계혁명운동의 발전에 장애를 가져왔으며 韓半島의 共產化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日本의 군사패권주의와 인도네시아의 우익반공 탄압 비난, 쿠바혁명 찬양, 베트남전쟁의 원조 등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일련의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對內的으로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을 동시에 추진하며 전쟁에 철저한 대비, 階級路線과 群衆路線을 결합한 사상무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南韓의 애국적 민주역량을 총동원한 「남한내의 혁명력량구축」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을 강도있게 주장하였다.

국제정세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저작선집」 제4권에 16줄에 걸쳐 유고슬라비아의 티토가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배반했다고 비난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에 北

韓이 自主路線을 천명⁸¹⁾하기는 하였지만 유고와 같은 民族自主性에 입각한 主體路線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8)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 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67.12.16)”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 시정연설로 ‘主體思想’을 사회의 모든 부분에 구현하여 정치적 자주성, 자립적 민족경제, 국방에서의 자위력을 구축한다는 指導理念을 제시하였다. 또한 主體思想에 기초한 ‘공화국 10대정강’을 제시하여 主體思想의 이론적 기초를 정립한 획기적인 문건이다.

(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우리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68.9.7)”

北韓政府樹立 20주년기념 연설문으로 지난 20년간의 사회개혁과 경제발전 및 黨史를 회고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全分野에서 社會主義制度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혁명을 계속하되 國際的 協力을 강화하고, 反帝反美鬭爭을 통하여 統一을 앞당기자고 주장하였다.

81) 朝鮮勞動黨과 日本共產黨 兩黨은 中國과 蘇聯에 대해 自主路線을 선언했다. Kyosuke Hirotsu, “Trouble between Comrades: The Japanese Communist Party’s Turing Away from Peking,” *Current Scene*, Mar.15, 1967; 김일평, 「북한 정치경제 입문」(서울: 한울, 1987), p. 143에서 再인용.

(10) “사회주의 경제의 몇가지 이론문제에 관하여(69.3.1)”

경제의 規模와 成長速度의 관계문제, 생산수단의 상품적 형태와 가치법칙의 이용문제, 農民市場과 그 폐지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경제가 일정한 궤도에 오르면 성장속도가 연평균 4~5% 내지는 6~7%를 넘지 못한다는 말은 北韓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근거없는 이론이며 생산력을 높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생산수단을 國營企業所간에 주고받는 것은 상품거래가 아니고 상품의 ‘형태’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상품의 가격은 社會的 必要勞動에 의해서 정확히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價格의 一元化가 필수적임을 밝혔다. 한편 財貨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만큼 생산력이 발전되고 協同的 所有가 全人民的 所有로 전환될 경우에 農民市場과 暗市場은 사라지고 상업의 供給制가 확립된다는 내용이다.

4. 제26권~35권(1971~80): 「3대혁명」運動의 展開와 金正日 權力承繼 準備期

가. 時代的 背景 및 文獻構成

1970년 11월 5次黨大會를 통하여 김일성체제하에서 성장한 세대가 政界에 등장하였고 김일성 唯一支配權力은 새로운 헌법제정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⁸²⁾ 主體思想을 명문화한 社會

82) Dae-Sook Suh, “Communist Party Leadership,” in Dae-Sook Suh and Chae-Jin

主義憲法은 김일성이 명실공히 黨과 國家를 대표하는 최고 권력의 자리로 올라서는 등 首領의 唯一的 指導體系를 법적으로 구체화시켰다. 한편 ‘은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 방침아래 김정일의 지도로 「3大革命小組」를 발족시키고 이를 통해 社會各 분야에 金正日勢力을 구축한 시기이다.

경제부문에서는 5次黨大會를 통하여 新經濟計劃인 6개년계획(1971~76)을 채택하고 西유럽과 日本에서의 자본도입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中東석유파동과 국내가뭄 등으로 인한 債務不履行으로 西方으로부터 지불유예 선고를 받음으로써 新經濟計劃은 1년간의 조정기를 거쳐 1978년 제2차 7개년계획으로 이어졌다.

社會主義憲法 초안은 1972년 10월 “당중앙위 제5기 5차회의(72.10.23~26)”에서 발표되었고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72.12.25)”에서 新憲法の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東歐를 비롯한 社會主義 國家에서 있었던 일련의 憲法改正⁸³⁾에 자극받아 1967년 首領體系가 세워진 北韓도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新憲法에 기초한 정권확립을 위해 최고인민회의 제6기 시정연설에서는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77.12.15)”를 발표하였다.

Lee (eds.), *Political Leadership in Kore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6), p. 164. 5次黨大會에서 중앙위원 117명중 86명이 새로 선출되었는데 이중 13명은 갑산파이며 66명은 김일성체제에서 성장한 신세대 그룹이다.

83) 베트남(2차개헌, 60.1.1), 몽고(3차개헌, 60.7.6), 체코슬로바키아(2차개헌, 60.7.11), 유고슬라비아(3차개헌, 63.4.7), 독일민주공화국 (2차개헌, 68.4.8), 불가리아(2차개헌, 71.5.16) 등이다.

한편 北韓의 新憲法은 1972년 7월 4일 남북간에 체결된 「7.4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보다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졌다. 金日成은 自主·平和·民族大團結의 “조국통일 3대원칙(72.5.3, 11.3),” “민족의 분열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73.6.23),” “조국통일 5대방침(73.6.25)”을 내세우면서 自主的 平和統一과 民族大團結을 통한 統一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제3세계 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74.3.4),” “빨려불가담 운동은 우리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75.12.16)” 등은 非同盟 外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며 1975년에는 유난히 第3世界 외국기자들과의 대화 및 담화가 많이 있다.

1973년 2월 黨中央委 政治委員會 확대회의는 「3大革命小組」들을 주요工場과 企業所 및 協同農場에 파견할 것을 결정하였고 小組를 중심으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따라 배우기’운동을 전개하였다.⁸⁴⁾ “농업근로자동맹의 중심과업(72.2.16)”에서 「3大革命」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한 후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경공업」(73.1.31), 「공업」(73.2.10), 「농촌(73.2.21)」분야에 파급되었고 「교육부문」(73.12.11)에까지 확대되었다. 1975년부터는 工業에서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치자(75.3.3)”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小組活動을 벌였으며 1978년에는 “주체농법(78.1.27)”이 개발되었다.

84)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488.

“당중앙위 제5기 2차회의(71.4.19~23)”에서는 對外貿易 발전과 1973년과 1974년에 추진했던 外資導入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킬데 대하여(74.3.7),” “제2차 7개년계획 작성방향(74.7.10~11)” 등에서는 西歐資本과 技術導入에 발맞춰 70년대에 완성해야할 經濟開發 10大目標를 제시하고 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한랭전선으로 인한 가물피해를 미리 막기위한 투쟁(77.4.5)”은 당시 北韓內의 극심한 가뭄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사로청조직을 생기발랄한 전투적 조직으로 꾸릴데 대하여(70.11.24),”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로청사업을 더욱 적극화할데 대하여(71.2.3)”는 청소년들의 代를이은 革命을 촉구하는 한편 金正日을 중심으로 출범할 「3大革命小組」運動에 新世代가 헌신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작업으로 김정일의 權力承繼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구축된 것이다.

또한 1970년대는 教育部門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971년에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71.9.30)”와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71.12.27)”를 발표한데 이어 73년 4월 9일에 “전반적 10년제 고중 의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 75년 4월 10일에 “전반적 11년 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 등을 통하여 義務教育의 制度化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것이 1977년에 “사회주의 교육체제”로 체계화되어 北韓

社會主義 교육방침의 礎石으로 자리잡고 있다.

나. 主要文件 및 內容

- (1)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71.6.24)”

社勞靑 6次大會 연설문으로 맑스-레닌사상과 勞動黨의 혁명 전통을 깊이 연구하고 기술혁명과 채취공업에서 청년들의 역할 증대, 남조선청년들, 세계청년들과 連帶하여 ‘美帝’를 몰아 내자는 내용이다.

- (2)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72.9.17)”

主體思想은 金日成 자신이 처음 제시한 것이 아니며 맑스-레닌주의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사상으로 朝鮮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 뿐이라는 점을 밝히고 美國이 베트남전쟁을 중단할 것과 유엔이 韓半島문제에 대한 논의를 再開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한 聯邦制의 실시를 주장하고 日本과의 關係改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 (3)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73.2.1)”⁸⁵⁾

85) 이 논문의 발표 20주년기념 연구토론회가 1993년 1월 27일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로동신문」, 1993. 1. 28).

이것은 1969년 3월에 발표한 “사회주의 경제의 몇가지 리론 문제에 대하여”를 구체화시킨 논문으로,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적절히 사용, 獨立採算制의 철저한 시행, 정확한 노동평가기준 설정 및 적용, 자재공급 업무개선 등을 지적하고 있다.

(4) “조국통일 5대방침에 대하여(73.6.25)”

1973년 6월 23일에 김일성이 제시한 統一方針으로 ①南北사이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②南北韓간 다각적인 合作과 交流 실현, ③南北間 各계各층 人士들과 政黨,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大民族會議 소집, ④연방제 국호를 高麗聯邦共和國으로 사용, ⑤單一議席으로 유엔가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南北韓 동시유엔가입을 천명한 「6.23宣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 담화문으로 單一國號에 의한 유엔가입을 강조한 것이다.⁸⁶⁾ 「5大方針」의 기초를 마련한 “민족의 분열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73.6.23)”의 논문 발표 20주년 기념보고회(93.6.23)에서는, 지난 1991년 9월 南北韓이 이미 독립의석으로 유엔에 가입한 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언급없이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의한 統一만을 거듭 주장하였다.⁸⁷⁾

86) 徐極性, “金日成의 ‘祖國統一 5大綱領’의 批判的 考察”, 「統一政策」 제2권 2호 (1976.7), p. 88.

87) 「조선중앙방송」, 1993. 6. 23; 「로동신문」, 1993. 6. 24.

(5) “조선로동당 창건 30돐에 즈음하여(75.10.9)”

朝鮮共產主義運動은 러시아의 10월혁명의 영향을 받아 1920년대초부터 시작되어 해방이후 自主的인 人民政權樹立과 경제 건설, 문화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3大革命을 힘있게 추진할 것과 南北韓이 사상과 이념,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하고, 나아가서는 自主性을 옹호하는 第3世界國家들과 단결할 것을 호소하였다.

(6)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77.7.5)”

社會主義 教育學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며 교육의 내용은 정치사상교육,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의 방법으로는 무엇보다도 ‘깨우쳐주는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理論과 實踐의 결합, 조직생활 강화, 그리고 학교 교육이 社會와 連繫속에서 이루어 지도록 하는 방법을 강조하였다. 이와같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實踐하기 위해 학교당국과 교사들이 해야할 구체적 과제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7)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2차 7개년 (1978~84)계획에 대하여(77.12.17)”

최고인민회의의 6기 1차회의에서 채택한 것으로 人民經濟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목표로 공업, 농업, 건설, 과학 등 인민생활 전반에 걸친 작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년 20만~30만세대의 아파트 건설

과 中央煖房施設을 확대보급할 것을 밝히고 있다.

(8)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80.10.10)”

「3대혁명」의 업적을 치하하고 온 社會를 主體思想化하기 위해 1980년대에 달성해야할 경제건설 10大展望目標를 제시하고 있다. ①1천억 Kw/h 전력, ②1억 2천만톤 석탄, ③1천5백만톤 강철, ④1백5십만톤 유색금속, ⑤2천만톤 시멘트, ⑥7백만톤 화학비료, ⑦15억메터 천, ⑧5백만톤 수산물, ⑨1천5백만톤 알곡, ⑩30만정보 간석지 개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제3차 7개년계획의 目標도 이와 동일하며 단지 유색금속생산이 1백 7십만톤, 시멘트가 2천 2백만톤, 수산물이 1천 1백만톤, 화학비료가 7백 2십만톤으로 각각 상향조정된 것 뿐이다.⁸⁸⁾

한편 현 경제상황에서 對外貿易 확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는데 특히 납입기일을 정확히 지키라고 지시한 내용이 인상적이다. 이것은 1976년 신용문제로 지불정지를 당한 충격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또한 高麗聯邦制의 「10대시정방침」을 제시하는 한편 1970년대에 66개국과 새롭게 外交關係를 수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統一環境이 매우 긍정적으로 전개되었다고 평가하였다.

88) Pang Hwan Ju, *Korean Review* (Pyongyang: FLPH, 1988), p. 132~133.

5. 제36권~38권 및 38권 以後의 個別文件(1981~93): 金正日體制 確立 및 「우리식 사회주의」 固守期

가. 時代的 背景 및 文獻構成

이 시기는 1980년 10월 6次黨大會를 계기로 金正日이 수령의 後繼者로 공식화되고 1982년 4월, 86년 12월, 그리고 90년 5월의 3차에 걸친 최고인민회의 선거로 정무원, 중앙인민위원회에 新世代가 등장하여 김정일정권의 기틀을 구축해 가는 시기이다. 北韓은 이 즈음에 高麗民主聯邦共和國 統一方案을 제시하여 국제적으로 北韓에 유리한 통일환경을 조성하려 하였지만 東歐 社會主義圈의 몰락과 蘇聯邦의 해체로 인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위기 등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北韓이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民族主義 統一戰線의 형성을 통해 극복하여 社會主義 現체제를 固守해 나가려고 한 시기이기도 하다.

北韓은 ‘온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해 1981년 “청년들은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가 되자(81.10.24),” “로동계급은 온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에서 핵심부대가 되자(81.11.30)”를 잇따라 발표하였고 “혁명가의 일생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나야한다(82.4.15),” “주체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자(82.4.25)”를 통하여 北韓 社會主義 體制를 유지하기 위해 투쟁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非同盟 開發途上國들이 자력갱생을 하기 위해서는 農業問題

⁸⁹⁾의 해결이 선결조건임을 주장하면서 “아프리카 나라들의 농업발전(81.8.31)”이라는 문건을 통해 北韓이 이들 나라의 農業發展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제의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과학 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83.3.23)”에서는 120만명의 과학분야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技術革命으로 10大展望目標를 달성하는 것은 낙관적이라고 평가하였고 “당중앙위 제6기 7차 전원회의(83.6.16~17)”에서는 北韓의 이승기 박사가 발명했다는 비날론을 主體工業이라고 칭찬하면서도, 경공업의 낙후성과 철도운수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自評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對外貿易에 관해서는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할데 대한 黨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84.2.13)”를 통해 貿易의 필요성이 절박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非同盟國家들의 단결과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주장한 “빨리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86.6.20)”에서는 核武器撤廢와 인종주의 및 유대복고주의 청산을 주장하였다. 특히 “민족문화를 건설(83.9.26),” “민족문화를 발전(83.9.27),” “체육발전(86.7.8),” “남남협조를 확대발전(87.6.9)” 등에서 非同盟國家들의 民族問題를 거론하면서 南南協助를 통해 단결해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1986년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8기 1차회의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86.12.30)”와 1990년 5월 24일 9

89) “빨리불가담 나라들과 발전도상 나라들은 자력갱생하여 농업문제를 해결하자(81.8.26),” 「저작집 36」, pp. 223~229.

기 시정연설문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北韓政府 創立 40주년 기념 보고문인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88.9.8),” 1991년 8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 및 汎民聯 북측본부 성원들에게 한 연설문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그리고 가장 최근인 1993년 2월 22일 社勞靑 8次大會에서 “청년들은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자” 등이 발표되었는데 이들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극도로 불리해진 北韓의 상황들이 體制維持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애쓰는 내용들로 되어있다.

나. 主要文件 및 內容

(1) “자주성을 견지하자(81.9.7)”

革命은 수출도 수입도 할 수 없는 각 나라 고유의 自主性과 관련된 문제로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自立經濟와 自主外交가 필수적이다. 第3世界 國家들이 단결하여 自主性을 가로막는 ‘미제의 각을 뜨자’라는 격한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2)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82.4.14)”

共產主義는 人民政權과 「3대혁명」으로 유지되며 6次黨大會에서 수립한 80년대 경제건설 10大展望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건설을 추진하고 非同盟運動에 적극 참여하여 自主的統一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83.6.30, 7.1, 5)”

공업, 농업 등 社會全般에서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3大革命을 중심으로 노력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10大展望目標를 1988년까지 완수한다는 목표하에 1985년까지 10大展望目標중 중요한 부문의 목표를 달성하며 第7次黨大會를 1986년에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4)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84.1.26)”

1978~83년동안 무역총액이 2.2배 증가했고 수출입구조도 개선되었음을 최고인민회의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貿易의 多角化와 多樣化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北韓이 발전된 농업 관개기술을 주고 경공업을 위시한 각종 부품공장과 광산개발, ②社會主義國家와의 경제합작 및 기술원조, ③資本主義國家와 경제기술교류 등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도 ‘신용제일주의’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76년의 지불정지 사건의 후유증이 매우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무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수립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결과로 9월에 ‘합영법’제정이 구체화되었다.

(5)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 경험(86.5.31)”

朝鮮勞動黨은 <트,ㄷ>을 계승하며 카툰회의, 조국광복회를 거쳐 1945년 10월 10일에 창건되었다. 黨과 人民은 혼연일체

가 되어 革命과 建設에서 3大革命을 중심으로 黨이 지도해 왔으며 黨의 영도예술을 찬양하고 黨이 내세운 각종 구호로 투쟁을 이끌어 왔음을 자랑하였다.⁹⁰⁾ 黨의 위업을 계승하는데 있어서 後繼問題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금까지의 혁명 과업을 계속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책임자는 바로 金正日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6)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86.12.30)”

최고인민회의 8기 시정연설문이며 社會主義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①農村에서의 「3大革命」 강화 및 全社會의 노동계급화, ②3차 7개년계획기간 동안에 경제건설 10大目標 달성과 기술개발, ③인민정권 강화, ④高麗聯邦制 관철과 84년에 제시한 3者會談의 수락요구 등을 제시하였다.

(7) “주체의 혁명적 가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88.9.8)”

北韓政府樹立 40주년 기념연설문이며 지난 40년동안의 主體思想 發展을 치하하고 200일전투로 제3차 7개년계획의 중요목표를 달성할 것을 독려했으며 海外同胞를 포함한 民族大團結의 統一, 南南協力の 강화 등을 주장하였다. 특히 南韓의 民

90) 예컨대 1956년 12월 전원회의에서 金日成이 언급했다는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와 1958년 9월 전원회의에서 나온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 ‘쌀은 곧 공산주의다,’ 그리고 金正日이 만들어 낸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1975년),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1974년),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1979년) 등 각종 구호를 가리킨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490, 485, 501.

主化過程에 대해 “1960년의 4월인민봉기와 1980년의 광주인민 봉기, 그리고 지난해에 있는 6월 인민항쟁은 그 어떤 포박한 원수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조선민족의 강의한 자주정신과 기개를 보여준 영웅적 투쟁”으로 평가하여 南韓의 歷史를 4.19와 5.18, 6.10抗爭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⁹¹⁾

(8) “우리나라 사회주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90.5.24)”

최고인민회의 9기 시정연설문이며 北韓이 현재 “유족한 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기본생활은 보장받고 있다”고 하여 일반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南韓과 비교해 볼 때 열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민정권강화와 「3大革命」으로 경제를 건설하고, 「祖國統一 3大原則」으로 통일하며, 非同盟國 상호간의 南南協助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하였다.

(9)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91.8.1)”

統一을 民族의 화합과 민족의 自主性を 실현하는 문제라고 규정하고 계급과 계층을 초월하여 自主性を 위해 단결하며 民族의 利益을 추구하는 民族主義的 입장에서 통일과업을 완수하자고 주장하였다. 이 ‘참다운’ 民族主義는 ‘부르조아’ 民族主義와는 다른 것이며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포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김구, 최덕신, 문익환 등을 예로들면서 民族

91) 「조선중앙년감 1989」, p. 29.

大團結을 통해 統一을 이룩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가보안법의 철폐, 美軍과 核武器 철거를 거듭 주장하였다.

第Ⅳ章 金日成著作에 대한 綜合評價

김일성의 보고문 및 연설문 등 金日成의 著作은 초기에는 史料的 성격의 문헌이었다. 그러나 1958년부터 「조선중앙년감」 등에서 김일성의 문헌을 따로 분류하기 시작하였고 1960년 「선집 2판」에서 문건의 제목을 보다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바꾸고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學習教材의 형식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따라서 현재의 김일성저작들은 구체적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보다는 北韓의 정치 및 외교, 경제, 사회문화, 군사, 통일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社會主義革命의 교시로서 더 큰 가치가 부여된다 하겠다.

1. 文獻修正의 時期에 대한 評價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김일성저작은 「선집」과 「저작선집」, 그리고 「저작집」의 편집과정에서 많은 修正과 改作이 진행되어 왔다. 즉 단순한 문법과 문체를 수정하는가 하면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첨가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는 등 다양하고 폭넓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내용상의 본질적인 수정이 가해진 것은 주로 1960년대 중반이전의 초기 문헌에 해당되며 마지막 문헌수정 작업은 1970년의 문건에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저작집」에 수록된 문건중 근본적인 내용수정을 가한 마지막 문건은 1966년 10월에 발표된 “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이

다. 이 문건에서 유고슬라비아와 티토가 맑스-레닌주의를 배반하고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한 내용 16 줄을 1982년 「저작집」 제20권의 편집과정에서 삭제한 것이다.

1966년 이후의 문헌에서도 몇가지 문법적 수정이 발견된다. 「저작집」 제21권에 수록된 1967년 문건에서 인민혁명당사건, 돌격대 등에 < >표시를 첨가한 것과 「저작집」 제25권에 수록된 레닌탄생 100주년기념 연설문 “동방식민지 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레닌의 위대한 사상은 승리하고 있다(70.4.16)”에서 「레닌전집」으로부터 인용한 부분에 달았던 註를 모두 삭제한 사실이 발견된다.

1970년의 문헌에 「레닌전집」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문법적 차원을 넘어서 示唆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는 1970년에 김일성문헌이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唯一文獻으로 간주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준다.⁹²⁾ 한편 1985년 「저작집」 제25권의 편집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수정되었음을 볼 때 이 시기에 와서는 김일성저작의 대내위상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김일성저작에 대한 수정사실이 1966년 이후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1964년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가 발표된 이후 文化語의 문법과 문장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1964년 이

92)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참조.

후에 발표된 문헌에서 문법상의 오류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1965년 「신년사」를 보면 몇가지 문장수정이 발견될 뿐 그 이후에는 문체의 수정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⁹³⁾

둘째는, 1966년 이후 특히 1967년 5월 勞動黨 中央委員會 제 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黨의 唯一 思想體系 문제가 거론되면서부터 대내외 정책에서 새로운 노선이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主體路線은 1967년 12월 국가의 정책으로 확립되었고 이 시기부터는 主體思想에 입각하여 모든 저술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용수정의 필요성이 사라졌던 것이다.

2. 「저작집」의 主題別 分類 및 時期別 特徵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김일성저작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社會全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개별문건이 명확하게 단일주제하에 쓰여진 경우도 있고 黨大會와 최고인민회의 연설과 같이 한 문건에서 여러 주제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김일성저작의 주제별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의 <附錄>에 수록된 분류방식에 따라 이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93) ‘급속히’를 ‘빨리’로, ‘기존’을 ‘이미있던’으로 고친 것과 “물질 생산적 토대가 현저히 확장되었으며”를 “물질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다져졌으며”로 수정하고, “신의주 화학섬유공장의 제1단계 공사가 완공되고”를 “신의주 화학섬유공장 건설공사가 힘있게 추진되고” 등으로 수정하였다.

문화, 통일 등 다섯분야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발표된 김일성저작의 構成比를 살펴보고자 한다.⁹⁴⁾

우선 「저작집」전체의 구성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경제관련 내용이 전체의 3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정치 25%, 사회문화 18%, 군사 11%, 통일 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4-1> 「김일성저작집」의 主題別 構成分布

저작집	정 치	경 제	군 사	사·문	통 일	계
1~ 7권	115(29)	67(17)	89(23)	102(26)	18 (5)	391
8~14권	40(16)	130(54)	22 (9)	35(15)	14 (6)	241
15~25권	67(20)	143(42)	16 (4)	95(28)	20 (6)	341
26~35권	57(15)	166(43)	19 (5)	79(20)	65(17)	386
계	345(25)	506(37)	146(11)	245(18)	117 (9)	1,359

주: ()안의 숫자는 백분율을 나타냄.

초기 北韓의 정권수립시기와 韓國戰爭시기를 다룬 1권~7권은 정치관련 내용이 약 29%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사회문화 26%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군사관련 내용이 비교적 많아 23%, 경제 17%, 통일 5%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시기에는 인민정권수립, 黨건설, 인민무력부 그리고 직업동맹과 社勞靑에 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韓國戰爭이후부터 1960년까지의 전후복구발전 시기의 문헌

94) 이 분석을 위해서 *The Index to Kim Il Sung's Works*(Pyongyang: FLPH, 1991)를 참조하였다. 한 문건이 한가지 이상의 주제하에 중복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여가에서 언급되는 전체문건수는 실제 문건수보다 많게 된다.

인 8권~14권은 경제관련 문건이 많이 수록되어 54%나 차지하였으며 정치 16%, 사회문화 15%, 군사 9%, 통일 6% 순으로 구성되었다. 이 시기의 경제문건중 가장 강조된 내용은 金屬工業과 地方工業의 발전에 관한 것으로 金屬工業은 「저작집」에 수록된 총 21건중 18건이 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에 발표되었고 地方工業에 관한 내용은 총 16건중 1950년대 後半에 7편이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1960년대를 총괄하는 15권~25권도 경제관련 내용이 42%로 가장 많고 사회문화, 정치, 통일, 군사가 각각 28%, 20%, 6%, 4%를 차지하였는데 교육, 과학, 문학예술 등 社會文化의 내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는 60년대가 김일성이 권력기반을 구축한 후이고 「선집 2판」이 학습교재로 발전되면서 全住民에 대한 교양과 학습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1960년대 후반에 군사적 위기가 매우 고조되었고 강도 높은 무력도발의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저작집」 전체에서 군사관련 문건의 비율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전쟁과 관계된 군사관련 문건을 제외하면 國防建設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기는 역시 60년대 후반임이 확인된다. 국방부문에 노동력을 대량 투입함으로써 경제가 위축되었고 이로 인해 勞動行政에 관한 내용이 60년대 후반에 가장 많이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中·蘇紛爭에 의한 北韓의 곤란한 입장을 대변해 주듯이 50년대 후반과 60년대에 걸쳐 국제관계관련 문건이 집중되어 있다. 이 시기의

외교문건은 북한의 사회주의 발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1970년대를 다룬 26권~35권 역시 경제건설에 관한 내용이 43%로 가장 많고 사회문화, 통일, 정치, 군사가 각각 20%, 17%, 15%, 5%를 차지하는데 특히 70년대 초에 집중적으로 발표된 統一관련 내용이 주목된다. 이것은 1972년 남북회담을 전후로 통일에 관한 연설 및 담화문을 많이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非同盟路線이 강조되면서 외국기자들과의 담화 및 질문에 대한 답변문건의 70%가 70년대에 쏟아져 나왔다. 經濟 부문에서는 전력, 기계, 화학공업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主體思想에 관한 내용 또한 70년대에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

1970년대초 北韓全域에서 청년학생들로 구성된 「3대혁명소조」가 출범됨에 따라 「저작집」에 수록된 총 40편의 社勞靑관련 문건 중 11편이 이 당시에 발표된 것으로 보아 「3대혁명」에 대한 기대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후반에는 人民保健에 관한 문건이 10편(총28편중)이나 되는데 이는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민생활이 향상되지 못한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1980년 이후 「저작집」 제35권이 포괄하는 시기인 1984년까지는 主體思想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다. 이는 주로 외국기자와의 담화나 질문에 대한 대답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경제에서는 대외무역과 노동행정, 수산업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며 그의

에 문학예술, 통일, 黨관련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기별 흐름을 보면 經濟관련 문건이 계속 증가했고 1970년 이후 統一관련 문건이 급증했던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北韓의 社會主義 體制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경제문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에 따라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問題點이 그만큼 커졌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統一問題를 강조하게 된 것은 北韓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여러가지 국내외 정세를 統一問題와 연결지어 해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70년대 이후 김일성의 통일 관련 문건이 급증한 또하나의 이유는 1970년대 초부터 김정일의 권력이 구축되면서 김일성과 김정일 間의 역할분담의 결과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김정일은 국내정치와 군사 및 예술부문의 대내업무를 맡고 김일성은 외교와 통일분야를 전담해왔기 때문으로 평가된다.⁹⁵⁾

3. 主題別 內容變化에 대한 評價

분야별로 구분한 저작들이 시대적 상황이 변함에 따라 주장

95) 이같은 사실은 「김일성 신년사」의 분석결과에서도 유사성이 발견 되는데 예를 들면 1978~82년 사이에는 外交부문에 관한 언급이 증가했다거나, 1980~86년 경우에는 統一문제 및 對南대화부문이 전례없이 강조되었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國土統一院, 「金日成의 '82年度 新年辭 分析」(서울: 國土統一院, 1982), p. 3; 國土統一院, 「1986年度 金日成新年辭 分析」, (서울: 國土統一院, 1986), p. 3.

과 논리가 어떻게 달라져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김일성저작에 대한 결론적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가. 主體思想과 政治理念 및 外交

主體思想은 1955년 12월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를 발표하면서부터 처음 논의되었는데 이 문건의 내용이 「선집 2판」과 「저작선집」에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제3장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그 이후 主體思想은 經濟에서의 自立(56.12), 政治에서의 自主(57.12), 國防에서의 自衛(62.12), 對外關係에서의 自主(66.10)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속에서 발전되어 왔다.⁹⁶⁾ 이것이 1967년 12월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라는 최고인민회의 4기 시정연설을 통하여 主體思想을 국가의 統治理念과 指導原理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⁹⁷⁾

主體思想에 관한 김일성의 견해는 주로 외국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형식으로 나타나며 自主性에 기초한 주체노선의 정립에 관한 내용이다. 김일성은 스스로 고백한 바와같이 자신은 主體思想을 체계화하지 못했으며 이곳 저곳에 부분적으로 주

96) 金甲喆·高性俊, 「主體思想과 北韓社會主義」(서울: 文佑社, 1988), p. 86.

97) 1967년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문제에 대하여(67.5.25)”에서 ‘주체사상’이란 단어가 등장하지만 문건의 서두에 단지 1회만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주체사상에 근거해서 논의된 문헌으로 보기는 힘들다.

체사상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을 뿐이다.⁹⁸⁾ 1972년 1월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대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에서 ‘주체사상에 관하여’라는 小題目을 붙여 발표·정리하였고, 같은 해 9월과 10월에 일본 마이니찌 신문과 「세카이」라는 잡지(世界誌)에 각각 主體思想에 관하여 보충설명함으로써 주체사상에 대한 金日成의 견해는 일단 정리되었다.⁹⁹⁾ 이것은 1982년 金正日이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통하여 전면적으로 體系化되었다.¹⁰⁰⁾

主體思想은 명백히 사회주의권 내부의 갈등과 북한의 외교관계의 맥락에서 등장하였다. 김일성의 외교관계문헌에서 대외정책이 蘇聯과 中國중심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노선에서 新生獨立國家 내지 非同盟國家들과의 외교로 강조점이 이동된 것은 「3대혁명역량」에 대해서 언급한 1964년 2월 27일의 문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에서 부터이다. 이때부터 식민통치를 경험한 아시아, 아

98)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2」 (평양: 로동당출판사), p. 58. “그러면서도 나는 그것을 체계화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후 김정일 비서가 그 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으로 세상에 발표하였다.”

99) 「세카이」誌에 수록된 원문이 「로동신문」 1976년 5월 14일자에 실리면서 약간의 내용상 수정이 가해졌다. 國土統一院, 「金日成의 ‘世界誌 對談內容 分析」 (서울: 國土統一院, 1976), pp. 28~32.

100) 이 문건은 주체사상을 ‘金日成主義’로 체계화시킨 것이며 주체의 의미도 노동자, 당, 수령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주장한다. 金甲喆, “主體思想叢書,” 「國際政治論叢」 제30집 1호(1990), p. 196.

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단결을 강화하자고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1966년 10월 “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에서 베트남전쟁문제를 놓고 社會主義 내부에 의견대립이 있음을 주시하면서 베트남을 지원하여 투쟁할 것을 주장하였다. “시대는 달라졌으며 공산주의 운동에서 국제적인 중앙을 필요로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결론내리고 이제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저작집 20」, p. 346) 완전한 平等과 自主性에 기초하여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自主性’을 민족적 특성의 보존차원으로 발전시킨 것이 「저작집」 제22권(p. 462)에 수록된 1968년 9월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우리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함에 있어서 결코 맑스-레닌주의 보편적 진리로부터 물러서도 안되며 또한 민족적 특성을 무시하고 형제나라의 경험을 교조적으로 본따서도 안된다”고 한 것이다.

이 新生國家와 非同盟國家에 대해서 ‘제3세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概念化한 것은 1974년부터인데 유고슬라비아 신문과의 대담에서 처음 등장한다.¹⁰¹⁾ 이같은 民族自主路線은 유고

101) 북한은 유고와 1971년 공식수교이후 1980년 5월 티토가 사망하기까지 비교적 돈독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후 1984년 6월에도 유고를 방문한 바 있는데 이는 티토와의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발전된 측면이 없지 않다. “유고슬라비아 국제정치사 사장과의 서면대담 (84.12.28)”과 “유고슬라비아 신문 <오슬로보체니에>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89.6.24),”(「조선중앙년감 1990」, p. 15).

슬라비아의 자주노선을 再評價하기 시작했고 티토를 비동맹국가의 위대한 수령의 한사람이라고 존경하면서 1975년 6월에는 김일성이 유고를 방문했으며 77년 8월에는 티토를 평양에 초청하기도 했다.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 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74.3.4)”에서 제3세계를 혁명의 중심부로 이념화하고 폭넓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부터 북한외교의 축을 제3세계로 옮기고 이들을 중심으로 民族的 自立路線을 강화해 나갔다.

이와같이 北韓의 외교노선에 상당한 변화를 보인 것은 1980년 6次黨大會 문건이다. 이 문건에서 北韓은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인식하여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친선관계를 맺고 경제문화교류를 발전”시킨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美國뿐만 아니라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아세아 나라들과의 선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혀 日本과의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로써 北韓은 70년대의 제3세계 외교에서 80년대에는 美國과 日本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평가된다.

나. 發展戰略 論爭과 經濟發展

1945년 10월 18일에 발표된 “새 민주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우리의 과업”에서 김일성은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農業은 식량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工業을 발전시키는 방도임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김일

성이 구상한 최초의 경제발전 전략은 농업생산의 증대를 통해 축적된 剩餘資本으로 공업을 발전시키는 발전전략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韓國戰爭 직후에 세웠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중공업우선,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이라는 北韓式의 경제개발 전략도 그 수립시기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모든것을 전후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53.8.5)”나 “8.15해방 10주년 기념보고(56.8.15)”에서는 1953년에 이미 총체적 발전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것을 전후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의 경우 당시의 「조선중앙년감」에 없던 發展戰略 내용을 「선집 2판」에 무려 24페이지에 걸쳐 새롭게 첨가한 것이다. “8.15해방 10주년기념 보고”의 경우도 당시의 「로동신문」에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향상시킨다고 기록했다가 「선집 2판」에서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수정·변경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혼란과 문헌수정은 권력투쟁과 김일성의 숙청작업, 그리고 中·蘇紛爭의 소용돌이 속에서 파생되었다. 김일성은 重工業우선 정책을 고집하면서 공업화가 북한의 경제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社會主義 國家들과의 연관된 分業體系 속에서 생필품 중심의 輕工業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박창옥 등 蘇聯派와 中國式의 농업-경공업발전 전략을 주장한 최창익 등 延安派를 수정주의자로 몰아 숙청하였다. 따라서 1956년 8월종파사건으로 엘리트간의 갈등이 극복되자 北韓의

발전전략도 김일성의 의도대로 채택·시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韓國戰爭시기부터 1958년까지 北韓은 북한에 주둔한 中國軍과의 밀착관계로, 1953년부터 시작된 中國의 제1차 5개년계획과 중국식 발전노선의 영향을 받아 발전정책에 혼란을 초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中·蘇紛爭이 가열되는 1960년대 초에 이르러 中國과 蘇聯으로부터 원조가 감소되자 北韓式 자력갱생 발전노선으로 나갈수 밖에 없었다.¹⁰²⁾ 이는 「경제-국방 병진정책」으로 발전하여 自衛國防 정책이 절정에 달했던 60년대 중반이후 중공업우선 정책으로 표면화되었다.

北韓이 경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獨立採算制를 보면 「저작집」에는 1947년부터 정착시킨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1947년 문헌에 나오는 독립채산제는 원래 自立經濟라는 명칭으로 되어있던 것을 「선집 2판」에서 수정한 것이다. 「선집 2판」 제4권에 수록된 1956년 4월 3次黨大會 문건에서 독립채산제의 실시에 대해 언급(p. 489, 490)¹⁰³⁾하였고 “군의 역할을 강화(62.8.8)”에서도 강조하기는 했지만 미진한 상태를 유지해 오다가 1984년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84.11.13)”에서 연합기업소의 설립과

102) 蘇聯이 1959년 코메콘을 통해 국제분업을 요구한데 대해 北韓이 거부하였으며 소련은 경제원조를 중단하고 기술자를 모두 철수하였다. 그후 親中, 反蘇노선으로 전환하면서 1961년 9월 4次黨大會에서는 자립노선으로의 이행이 시사되었다. 주체사상이 대두한 시기에도 中國의 예를 들었던 것을 상기한다면 北韓의 자립노선이 親中政策과 같은 시기에 등장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103) 國土統一院, 「朝鮮勞動黨大會資料集」 제1집 (서울: 國土統一院, 1980), p. 320.

이 조직에 대한 獨立採算制의 적용을 강조한 이후 80년대 후반에 확대·실시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1983년 6월과 7월에 발표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 경제 위기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일부 기계설비를 다른 나라에서 사다쓰다 보니 세계적으로 원유값이 올라갔을때 기계설비값이 올라 그 영향을 좀 받았을 뿐입니다”라고 하여 서구자본과 기술도입을 통해 경제발전을 시도했던 1970년대 초의 첫번째 開放政策의 실패를 시인하고 있다.¹⁰⁴⁾ 처음 시도한 開放政策의 실패로 김일성은 “원유를 많이 쓰는 공업을 발전 시키지 않고 자체공급이 가능한 원료에 의존하는 공업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는 등 北韓의 정책노선은 閉鎖的인 自給自足の 방향으로 치달게 되었다.¹⁰⁵⁾

北韓의 이러한 폐쇄경제는 構造的인 한계상황에 이르렀고 1984년 합영법제정을 통하여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였으나 활기를 찾지 못하였고 1992~93년에는 두만강特區 개발을 통하여 성장의 돌파구를 찾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東유럽 社會主義圈의 붕괴와 蘇聯邦의 해체로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비효율성이 입증된 상황에서 北韓도 이제는 경제적 풍요를 실질적 목표로 내세우기 보다는 ‘사회적 정의’와 心理的 滿足感 등 主體思想의 교육과 교양을 통하여 北韓

104) 「저작선집 9」, p. 170.

105) 위의 책, 같은곳.

體制을 유지하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1961년 4次黨大會 문건의 統一관련 부분에서는 南韓經濟의 劣惡性을 폭로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저작집」 제15권(p. 631)에서는 南韓이 北韓을 모방하여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하겠다고 하지만 “허무맹랑한 발상”이라고 일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와 1980년대를 통하여 南韓經濟가 급성장함에 따라 김일성의 태도가 크게 변화되었음을 다음의 著作을 통해 알 수 있다.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에서 김일성은 “오늘 우리인민들이 비록 유족한 생활을 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고르롭게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여 열악한 주민생활을 自認하였고 北韓體制의 우월성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고 있다는 心理的 滿足感으로 전환시켰다.

다. 國家安保와 自衛國防

北韓의 國防建設은 1961년 경제와 국방건설의 並行路線을 설정함에 따라 심도있게 진행되었으며 김일성은 1972년에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우리당과 공화국정부는… 혁명과 건설의 전기간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특히…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로선을 내놓고… 국방건설에 더욱 큰 힘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경제건설에 일정한 지장을 받으면서도 조국보위

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많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국방건설에 돌렸으며 전체인민을 당의 군사로선 관철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습니다¹⁰⁶⁾

北韓의 主體思想이란 사실상 國防에서의 自衛路線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일성이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바와같이 國防建設은 북한사회의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앞서 추진되어온 중요한 사회주의 건설전략인 것이다. 1982년 4월 朝鮮人民軍 창건 50주년 기념석상에서 김일성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자”라고 하면서 우선 ‘전군을 주체사상화’하고 主體思想이 북한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黨의 지도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1986년 9월 6일 「비핵, 평화를 위한 평양국제회의」 연설에서도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인류앞에 나선 초미의 과제”임을 밝히고 主體思想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위한 國防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의 社會主義圈의 붕괴와 걸프戰爭 등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北韓의 반응은 마치 1960년대 중반 사회주의권의 분열과 베트남전쟁의 발발로 야기된 군사적 위기상황을 연상케한다. 1966년 “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을 보면 中·蘇가 분열된 상황에서 美國의 對베트남전쟁과 같은 ‘무력기습’이 北韓에게도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철저한 전시준비태세를 갖춘 바 있다. 당시 北韓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

106) 「저작집 27」, pp. 591~592.

는다”는 결전의 의지를 보여주었다.¹⁰⁷⁾ 1991년 북한은 社會主義 軍事同盟이 사실상 와해된 국제정세속에서 걸프전쟁이 발발하자 또다시 美國을 경계하고 나섰다. 이번에도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평화를 구걸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戰爭不辭의 동원태세를 갖추었다.¹⁰⁸⁾

이와같이 國防의 중요성을 절감한 김일성은 1992년에 들어서자마자 김정일을 北韓人民軍 최고사령관으로 앉히고 1992년 4월 23일에는 北韓人民軍 창건 60주년에 즈음하여 16명의 대장승진을 포함한 총 664명의 軍將星級을 진급시키는 등 軍의 사기를 振作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¹⁰⁹⁾ “주체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는 것은 인민군대의 기본사명”임을 주입시키고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 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근본원칙”임을 다시한번 강조한 것이다.¹¹⁰⁾

라. 社會主義 文化建設

「김일성저작집」은 이전의 「선집」이나 「저작선집」과는 달리 社會文化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대중조직, 교육, 과학, 문학예술 및 출판, 보건 등 主體思想을 사회의 전 영역에 파급시키고자 한 것이다. 직업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사로청, 여성동맹 등 각종 대중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主體思想의

107) 「저작선집 4」, p. 484.

108) 「로동신문」, 1993. 3. 15, 1993. 3. 18.

109) 「로동신문」, 1992. 4. 24.

110) 「로동신문」, 1992. 4. 25, 1992. 4. 26.

보급과 革命性 유지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職業同盟에 관해서는 1945년 12월 “북조선공산당 각급 당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에서 처음 언급하였으며 이들이 경제계획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차지하는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주로 강조하였다. 이어 1971년 12월 14일 職總 5차대회에서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직업동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고 1981년 11월 30일에는 職總 6차대회를 개최하여 “로동계급은 온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에서 핵심부대가 되자”고 역설하였다. “근로자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의 발표를 계기로 農勤盟이 창립되었는데 농근맹의 역할에 대한 강조는 職盟보다 훨씬 약하였고 「저작집」에도 총 2편만이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한편 北韓의 新世代들로 구성된 社勞靑은 북한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집단이다. 1946년 1월 7일에 결성되었던 民靑이 1964년 5월 15일 제5차대회를 통해 社勞靑으로 개칭되고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 과업”을 제시하였다. 그후 1971년 6월 24일 6차대회 연설문 “청년들은 대를이어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에서 혁명 2세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新世代들의 단결과 충성을 결의하였다. 또한 1981년 10월 24일 제7차대회 연설문 “청년들은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가 되자”와 1993년 2월 22일 10여년만에 개최된 제8차대회 연설문 “청년들은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자”에서 社勞靑을 주체사상을 이어나갈 核心集團으

로 칭송하였다.

教育分野에서는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58.11.20)”에서 이미 사상·기술·문화의 「3大革命」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社勞靑과 관련된 교육내용 이외에도 1971년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와 1973년에 제도화된 11년 義務教育을 바탕으로 1977년에 발표한 「사회주의 교육체제」를 통해 北韓의 교육체도가 체계화되고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등 전반적인 教育政策이 정착되었다.

文學藝術에 관한 문헌은 1960년대에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韓國戰爭이후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한 ‘社會主義的 寫實主義’는 1960년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를 통해 영화와 음악, 연극 등 예술전반에 걸쳐 革命傳統과 階級意識의 高揚으로 발전하였다.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64.11.7)”에서 재즈와 같은 서양음악과 영화는 帝國主義의 사상적 무기이므로 절대 유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思想性和 藝術性을 함께 지니는 혁명적 예술을 창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66년 10월 “우리의 미술을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혁명적 미술로 발전시키자”라는 문건은 주체적 입장에서 社會主義 藝術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¹¹¹⁾ 「저작

111) 그러나 이것은 스탈린이 주장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socialist realism)’의 해석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집」 제20권(pp. 470~478)에서 資本主義 미술을 주관주의, 형식주의, 자연주의 등으로 비판하면서 생생한 현실을 그리는 사회주의적 미술이 되기 위해서는 形式에서는 民族的이고 內容에서는 社會主義的인 技法을 견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1970년 2월 17일 “민족문화 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문화예술은 민족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民族의 歷史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민족문화유산을 신세대에게 階級的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교육시켜야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로써 北韓은 본격적으로 민족문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나가기는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술의 ‘형식적’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다. 즉 민족적 ‘형식’에 기초한 예술이란 주로 日帝 植民地 경험이나 韓國戰爭에서의 피해경험 등을 소재로 할 뿐 주제는 역시 사회주의의 革命性을 고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북한의 문학과 예술, 그리고 영화는 過去指向的 성향이 뚜렷하며, 남한의 예술과 비교해 볼 때 傳統的인 要素를 강하게 지니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같은 문화건설은 「저작집」 제25권에 수록된 “교육과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70.2.7)”와 1970년 5次黨大會 文件(p. 279)에서 文化革命으로 개념화되었고 문화혁명의 기본방침은 무엇보다도 帝國主義者들의 문화적 침투를 막는데 있음을 표명하였다. 1983년 9월에는 제3세계 국가들에서 민족문화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민족교육과 민족간부육성교육에서 主體性을 확립할 것을

지적하였다. “현대문학의 시대적 사명(86.9.29)”에서도 계속해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를 경계하였다. 김일성은 北韓 사회주의 건설에서 자본주의 문화가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고 사상성과 혁명성을 끊임없이 불어넣는 前衛隊로서 작가와 예술가들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마. 南北關係 및 統一

김일성저작에 나타난 對南統一戰略은 1972년을 계기로 전술적 측면에서 크게 변화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초기에 허헌, 여운형, 김구, 홍명희 등 통일전선구축에 유리한 人士들을 통해 대남혁명역량 구축을 시도했으나 1960년대에 들어 대내외적으로 변화된 군사적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껴 1964년에는 통일을 위한 「3大革命力量」강화 노선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저작집」 제22권에 수록된 1968년 9월 7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우리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에서 “폭력투쟁이 없이는 그 어떤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조선 인민들이 주권을 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p. 476)라고 하면서 暴力革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였다.

1972년 5월에 발표된 “조국통일 3대원칙에 대하여”에서 한반도 통일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3대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정책에서 對話와 妥協의

방법을 표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73년 6월 23일 “조국통일 5대방침에 대하여”에서는 南北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남북간 교류와 협력실현, 사회각계 각층과 政黨대표로 구성된 대민족회의 소집, 고려연방제실시, 단일의석으로 유엔가입 등 5개항의 구체적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어 1975년 朝鮮勞動黨 창건 30주년 기념연설에서도 ‘최고민족회의’ 소집을 거듭 주장했으며 1976년에는 다시 ‘대민족회의’ 소집을 제의하였다. 또한 1977년 朝總聯대표들과의 담화, 그리고 1978년 북한정부창립 30주년 기념보고 “주체사상의 가치를 더욱 높이들고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치자”에서 교차승인과 유엔동시가입을 <두개조선>정책이라고 철저히 비난하는 한편 北韓의 지하자원 공동개발과 南韓의 관개공사지원 등 경제협력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1980년 10월 10일 6次黨大會에서는 경제 및 사회문화의 교류와 협력, 군사적 대결해소 등 고려연방제가 추진해야할 「10대시정방침」을 제시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84년초에는 南北韓과 美國이 참여하는 ‘3자회담’을 제의하였고 1986년 12월 최고인민회의 8기 1차회의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에서 南北間의 불신과 반목이 주로 軍事的 對峙狀態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긴장해소와 신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주장하였다. 또 필요하다면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원국 군사요원으로 구성된 ‘중립국 감시군’을 조직할 것을 제의하였다.

1989년말부터 불어닥치기 시작한 東유럽 社會主義 國家들의 붕괴위기는 北韓의 국제적 統一革命力量 구축노력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고 제3세계 사회주의 국가들도 자국의 체제를 유지해 나가기에 여념이 없게 되었다. 이와같은 국제환경의 변화로 김일성은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의 9기1차회의의 시정연설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에서 南韓과의 대화발전과 전민족적 통일전선 형성 등 새로운 5개항의 실천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는 1989년 신년사에서 김수환 추기경, 문익환목사, 백기완선생 등 진보적 통일인사를 포함한 南韓의 諸政黨·社會團體 대표들과의 회담제의를 확대시킨 것이었다.

1991년 8월 汎民聯 북측본부 성원들과의 담화문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에서는 祖國統一 3大原則중 자주와 평화통일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정책에서 선회하여 ‘民族’과 ‘民族主義’를 내세워 민족대단결을 강조하고 나섬으로서 불리한 국제혁명역량을 대남부문으로부터 지원받고자 시도하였다. 여기에서 김일성은 ‘민족주의’ 개념을 ‘참다운 민족주의’와 ‘부르조아 민족주의’로 구분하면서 자신은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참다운 민족주의자라고 공언하였다. 참다운 민족주의라는 것이 北韓이 기존에 주장해왔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족주의를 둘로 구분하면서까지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南韓의 민족주의 세력을 포섭하고 南韓政權을 反民族 집단으로 규정하고자 의도한 統

—戰線戰術의 일환인 것이다.

김일성이 지난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제시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革命的 統一戰略으로서의 이러한 民族主義를 집대성한 것이다. 즉 이데올로기에 의한 冷戰體制가 붕괴되면서 민족문제의 해결이 세계적인 추세로 되었고 核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가중되어가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해소하는 돌파구로 同一民族이라는 감정에 호소해 온 것이다. 특히 통일노력에 기여한 人士를 높게 평가하자고 주장하면서 개별적 對人接觸을 시도해 오고 있는 것은 북한의 對南統一戰線 구축차원에서 김구를 통일인사로 재평가한 것처럼 통일전선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일성의 ‘民族大團結’ 주장이 평화적 방법만을 견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김일성도 暴力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시기적절한 폭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1992년에 출간된 그의 자서전에서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정당하고 분별있는 시기적절한 폭력만이 그것을 틀어쥔 사람들에게 승리를 기약해 줄 수 있다. 오직 그런 폭력만이 사회를 개조하고 역사발전을 추동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¹¹²⁾라고 토로하였다. 일제시대에 안창호가 주장하던 “무저항주의는 제국주의 앞에 겁을 집어먹고 찾아가는 정신적 도피처”라고 거부했던 김일성은 日帝時代의 경

112)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89.

힘속에 무력투쟁만이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韓國戰爭에서 입은 혹독한 피해는 제국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선 증오의 감정으로 변하였고 帝國主義 ‘敵’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증강을 더욱 공고히 하며 폭력사용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는 자기주장의 성벽을 쌓아 나가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상의 평가를 종합해 볼 때 김일성저작은 主體思想이 확립되지 않았던 1960년대까지는 많은 수정을 가하면서 주체사상의 학습서로 발전시켜 왔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통일 등 社會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파급시켜 왔다고 하겠다. 또한 김일성의 主體思想은 그동안 국제정세의 변화에 적응하여 각 분야에서 상당한 변형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와같은 토대위에서 앞으로 北韓社會가 어떠한 방향으로, 그리고 어떠한 논리에 근거해서 變化해 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도 가능한 것이다.

第V章 結 論

北韓社會에서 김일성저작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유일무이한 綱領이며 주민들의 모든 일상생활에까지 指針을 제시해 주는 聖書인 것이다. 특히 北韓社會를 지도하는 공무원들이나 黨幹部, 3大革命小組員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聖書’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을 지도하고 교양시킨다. 그래서 ‘주체사상의 혁명적 교과서’, ‘勞作’ 등으로 불리우는 이 김일성저작은 北韓社會 전체를 일사불란하게 이끌어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經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北韓에서는 주민들이 김일성저작을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학습, 암기하고 있으며 교시의 해석에 있어서도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 1987년 勞動黨出版社에서 펴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해설」에 따르면 해설서가 강조하는 부분은 저작의 주요내용이 아니라 저작의 논리적인 흐름을 잡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김일성’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그 저작에 나오는 ‘첫째로’, ‘둘째로’, ‘끝으로’ 등의 문구라든지 ‘먼저’, ‘다음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 등의 단어들로서 김일성 교시에 대한 중요성의 順序를 정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교시가 주장하는 바 핵심을 전해주기 보다는 교시의 전체내용을 경전처럼 읽고 암기하고 해석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일성 저작은 韓國戰爭 직후 「선집 1판」이 출판된 이후

「선집 2판」, 「저작선집」, 「저작집」으로 體系化되었고 그 과정에서 4차례의 편집작업을 통해 1960년대 이전의 초기문헌은 김일성정권의 주체성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수정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방이전의 역사까지도 김일성 抗日武裝鬪爭 運動史 중심으로 해석하여 對 住民教育의 학습서로 사용하였다. 자유주의적 민족운동인 3.1운동을 자주적 민중운동으로 변형시키고 이를 김일성 家系와 연결시켰으며 8.15해방에 대해서도 聯合國과 蘇聯의 결정적 역할을 삭제하여 마치 김일성의 抗日武裝鬪爭의 결과로서 해방이 이루어진 것처럼 왜곡했다. 이처럼 김일성정권의 자주성과 유일성을 유도하는 형태로 문헌을 수정한 것은 일종의 歷史再解釋의 수준을 넘어 恣意的 해석을 낳게 되었다.

1970년 이후에는 이미 主體思想이 이론적 기초를 형성했기 때문에 김일성저작의 수정사실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대신 김일성저작의 무게중심이 70년이후 外交와 統一쪽으로 기울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김정일세력 구축과정에서 김일성과의 적절한 役割分擔이 이루어져 國內問題에 관여하는 김일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經濟에 관한 내용이 김일성저작 전체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問題點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한편 김일성의 著作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主體思想 논리 전개 of 한가지 특징은 주체사상이 일제식민통치라는 歷史的

경험의 바탕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즉 1966부터 주장되기 시작한 개별국가의 自主性은 곧 그 나라의 국민적 혹은 민족적 특성의 보존으로 이어졌고 이는 제3세계라는 역사적, 공간적 개념속에서 최상의 가치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1960년대에 고조된 군사적 위기속에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 경고하고 나라의 ‘獨立’을 지키기 위한 투쟁적 분위기를 한층 가열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속에서 태동한 主體思想은 세계사의 환경이 바뀔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저작은 1992년부터 다시 「김일성전집」으로 확대편집되고 있다. 현재 「전집」은 아직까지 전체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고 입수된 것도 첫 4권에 불과하다. 「저작집」에서 主體思想에 근거한 완벽한 수정을 가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정된 내용은 「전집」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인민의 혁명 투쟁을 적극 지원하자,” “만경대인민들과의 상봉모임에서 한 연설,”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1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한 결론,”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등 김일성의 革命傳統과 權威를 정당화하는 문건을 첨가시켰고 특히 “신의주시내 상공인, 의사, 기독교인들과 한 담화”나 “박달과 한 담화” 등에서는 김일성의 抗日鬪爭經歷에 대해서 家族關係와 同志關係를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해 보이려는 문건들도 수록되었다. 또한 “문화인들은 민족문화건설에 매진하라,” “로동자신문을 발간할데 대하여,” “농민신문을 발

간할데 대하여,” “강서고분은 우리인민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등 김일성이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공헌하고 民族的傳統을 귀중히 여기는 인물임을 부각시켜가고 있다.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진행될 이 「전집」은 김일성저작을 체계화하는데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다. 스탈린, 모택동 등 공산세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김일성은 자신의 著作을 체제유지를 위한 思想教育의 필수불가결한 도구로서 최대한 활용해 나갈 것이다. 김일성은 스탈린과 모택동의 「선집」이나 「전집」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출판하였는데 먼저 「선집」을 펴내고 계속해서 「저작선집」, 「저작집」, 「전집」으로 확대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확대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는 주도면밀한 편집작업을 해오고 있다. 金正日著作도 1992년에 「김정일선집」 제1권이, 1993년에는 제2권이 출판되었는데 이렇게 본다면 김정일문헌도 김일성저작의 체계화 과정을 그대로 밟아 나갈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김일성저작을 통하여 北韓社會를 연구할 경우 고려해야 할 두가지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1970년 이전의 문헌 특히 1967년 이전의 김일성저작에 대해서는 수정되기 이전의 原典을 참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문헌의 신빙성 문제가 제기된다. 主體思想이 197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사회전반에 구체화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이전의 문헌중 정권수립의 정통성이라든지 대외자주성, 경제발전 전략 등에 대해서는 주체노선의 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대폭 수정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김일성저작이 현재 주체사상의 학습교재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문헌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北韓社會의 객관적 현실보다는 북한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김일성의 견해와 지도원리라는 점이다. 따라서 김일성저작을 통하여 발견되는 북한사회의 발전과정과 업적은 김일성이 의도하는 社會主義 革命과 建設의 청사진으로서 이해해야 하며 이것을 경험적인 사실과 연결시킬 때는 자료의 現實適合性 문제를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

- 國土統一院. 「金日成 主體思想關係 資料集」. 서울: 國土統一院, 1976.
- . 「金日成 ‘世界’誌 會見內容分析」. 서울: 國土統一院, 1976.
- . 「金日成的 ‘世界’誌 對談內容分析」. 서울: 國土統一院, 1976.
- . 「金日成言動新年辭 分析」. 서울: 國土統一院, 1978.
- . 「金日成的 言動을 通해본 情勢觀의 分析」. 서울: 國土統一院, 1978.
- . 「金日成的 ’82年度 新年辭 分析」. 서울: 國土統一院, 1982.
- . 「1986年度 金日成 新年辭 分析」. 서울: 國土統一院, 1986.
- 金甲喆·高性俊. 「主體思想과 北韓社會主義」. 서울: 文佑社, 1988.
-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I)·(II)」.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일평. 「북한 정치경제 입문」. 서울: 한울, 1987.
- 金泰瑞. 「金日成選集 修正內容 分析」. 서울: 國土統一院,

1979.

박현채·김홍명 편. 「통일전선과 민주혁명 (I)」。 서울: 사계절,
1988.

북로당출판사.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하여」。 평양:
북로당 출판사, 1948.

사회과학출판사. 「김일성동지의 로작 색인」。 평양: 사회과학출
판사, 1970.

嚴家其·高阜. 「다큐멘터리 中國文化革命(上): 毛澤東과 林彪」。
崔景琇 譯. 서울: 三友堂, 1988.

李昌夏. 「金日成著作集 修正內容 分析」。 서울: 國土統一院,
198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
칙」。 평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74.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동지의 로작해설문고」。 평양: 사회
과학출판사, 1972.

———.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조재관. 「金日成選集 修正過程 分析」。 서울: 國土統一院, 1975.

中央情報部. 「金日成勞作解説 講座: 金日成 放送大學 講義錄
(I)·(II)」。 서울: 中央情報部, 1974.

———. 「金日成選集의 內容變造에 關한 分析 (I): 1949年度
版과 1954年度版의 比較研究」。 서울: 中央情報部,
1978.

———. 「金日成選集의 內容變造에 關한 分析 (II): 1954年版

과 1960年版, 1963年版的 比較分析을 中心으로」. 서울: 中央情報部, 1978.

통일원. 「'92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2.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FLPH). *The Index to Kim Il Sung's Works (Volumes 1 to 35)*. Pyongyang: FLPH, 1991.

Pang, Hwan Ju. *Korean Review*. Pyongyang: FLPH, 1988.

Scalapino, Robert A.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2 vol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Schram, Stuart. *The Thought of Mao Tse-Tu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Suh, Dae-Sook.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_____ and Chae-Jin Lee (eds.). *Political Leadership in Kore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6.

2. 論 文

金甲喆. “主體思想叢書”, 「國際政治論叢」 제30집 1호 (1990), pp. 183~225.

金南植.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문제점”, 「이대학보」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1986.10.3).

_____. “北韓과 中共의 體制發展 比較研究”, 「國際政治論叢」

- 제25집 1호(1985).
- . “對南革命의 暴力的 性格,” 「統一政策」(1976.5). 서울: 國土統一院, 1976.
-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의 現況과 課題,” 「北韓社會의 實相과 變化展望」.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1.
- 산사연 북한연구반. “북한사회 연구동향: 80년대말 이후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993년 봄호, pp. 100~140.
- 徐極性. “金日成의 ‘祖國統一 5大綱領’의 批判的 考察,” 「統一政策」 제2권 2호(1976.7).
- 李溫竹. 1986. “북한사회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분석: 「로동신문」 사실의 내용분석을 통한 북한사회 변동의 추적, 1952~85,” 「社會科學과 政策研究」(서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제8권 1호(1986.8).
- 이종석. “김일성연구의 쟁점(상): 자료해제와 김일성의 정체 규명,” 「사회와 사상」 제16호(1989.12), pp. 348~375.
- 한홍구. “북한 관계문헌 해제,” 김남식 외.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서울: 현장문학사, 1989, pp. 289~326.
- Suh, Dae-Sook. “Communist Party Leadership,” in Dae-Sook Suh and Chae-Jin Lee (eds.). *Political Leadership in Kore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6.

3. 其 他

國土統一院. 「朝鮮勞動黨大會資料集」 제1집~제4집. 서울: 國土統一院, 1980~1988.

「근로자」.

「로동신문」.

北韓研究所. 「北韓總攬」. 서울: 北韓研究所, 1983.

사회과학출판사. 「력사사전 (I)」.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49~1991」.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1992.

「평양방송」.

빈 면

附 錄

빈 면

「김일성저작집」 主題別 索引

I. 政治外交

1. 主體思想

(권)

- 1: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한다
- 9: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 17: 현시기 우리혁명의 요구에 맞게 사회과학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 18: 백과사전과 지도의 편찬방향에 대하여
- 19: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 20: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옹계 살려나갈데 대하여; 우리의 미술을 민족주의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혁명적인 미술로 발전시키자
- 21: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 24: 아련 <다르 알 타흐리르>출판사 총국장 아브델 하미드 아흐메드 하르루쉬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 25: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26: 이라크기자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 27: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카이> 편집국장과의 한 담화
- 29: 아르헨티나 기자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오스트랄리아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 30: 꼬스파리카사회당 위원장이며 꼬스파리카 기자동맹 위원장인 꼬스파리카 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인

도 주간신문 <블리쯔> 책임주필 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이딸리아국제관계 연구소 총서
기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일본학자일행과 한 담화

32: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33: 뽀투공화국 전 총리와 한 담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들고 사회
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34: 꼴롬비아 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 일행과 한 담화; 네팔기자대표
단과 한 담화; 뽀넌인민공화국 내무안전 및 민족방향부 연구계획
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전인도 조선친선협회대표단과
한 담화

35: 자주적인 새 사회 건설에서 인테리의 역할;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에스빠냐공산당 기관지 <문도
오브레로>주필과 에스빠냐 무소속신문 <엘 빠이스> 국내보도담
당 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36: 메히꼬신문 <엘 디아> 편집리사회 위원장과 한 담화; 자주성을
견지하자

38: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뽀력불가담
나라들과 발전도상국 나라들은 자주, 독립의 기치를 들고 민족문화
를 건설하자

「저작선집 9」: 온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혁명
가의 일생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나야 한다; 네팔 아르
에쓰에쓰통신사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인도네시아 <
메르데까> 신문사 부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 黨關係

- 1: 조선혁명의 진로; 반일인민유격대창건에 즈음하여; 종파주의를 청
산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자; 반일민족해방투쟁이 강
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새 조선 건설
과 공산주의자들의 당면과업; 우리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당건

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북조선공산당 각급 당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 당의 공고화를 위하여; 평안남도 당단체들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 2: 당대렬을 확대강화하며 당단체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목전 조선정치정세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우리당이 걸어온 길과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오늘의 정치정세와 우리들의 새로운 임무;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의 창건을 위하여; 로동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북조선로동당 강령; 북조선로동당립 대회의 총화에 관하여; 북조선로동당의 창립과 남조선로동당의 창건 문제에 대하여
- 3: 일부 당단체들의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류와 결함을 퇴치할데 대하여; 대중지도방법을 개선하며 올해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할데 대하여; 생산에 대한 공장당단체들의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창립1주년을 맞이하는 북조선로동당; 사회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녀성동맹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 4: 우리 당 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 금년도 인민경제계획 실행을 위한 투쟁에서의 당단체들의 과업; 당중앙위원회사업에 대하여;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모든 힘을 민주기지의 강화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 5: 당원들은 학습을 잘하여야 한다; 당단체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남북조선 로동당을 조선로동당으로 합당할데 대하여; 남북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연합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 6: 조국해방전쟁의승리를 위한 각 정당들의 과업;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와 당단체들의 과업; 현정세와 당면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조선로동당의 금후사업방침에 대하여; 당단체들의 조직사업에서의 몇가지 결함들에 대하여; 당조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 7: 현시기 당단체들과 인민정권기관들 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대동군 당 단체들의 과업; 조선로동당은 조국해방전쟁승리

의 조직자이다; 농촌에서 당정치교양사업과 군중문화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당의 조직적사상적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현 군사정체와 당, 정권기관 및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 당을 질적으로 공고히 하며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개선할데 대하여

- 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월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 9: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관료주의를 퇴치할데 대하여; 사회주의혁명의 현단계에 있어서 당 및 국가사업의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 10: 조선로동당규약 개정초안에 대하여; 개천군 당단체들의 과업; 평안북도 당단체들의 과업;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현시기 당조직원 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당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11: 당단체를 튼튼히 꾸리며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할데 대하여
- 12: 당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량강도 당단체들의 과업;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
- 1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59년 2월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당사업 방법에 대하여; 회령군당단체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함경북도 당단체들의 과업
- 14: 평안남도 당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 새 환경에 맞게 군당단체의 사업방법을 개선 할데 대하여; 강서군당 사업지도에서 얻은 교훈에 대하여; 당사업과 경제사업에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15: 당사업에서 주되는것은 모든 사람을 교양하고 개조하며 단결시키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 16: 경공업부문에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 사업을 개선하며 제품의 질을 높일데 대하여; 당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 성, 관리국의 지도를 개선하며 공장당위

원회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 17: 당사업과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중심군당위원회
원회의 과업에 대하여; 공장당위원회사업을 강화하며 천리마작업
반운동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량강도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과업; 당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을데 대하여
- 18: 올해사업방향에 대하여; 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 19: 조선로동당창건 스무돛에 즈음하여
- 20: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
지도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개선하며 지도수준을 더욱 높일데 대하
여; 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 당 사업에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없애며 일군들을 혁명화할데 대하여
- 21: 전국기계공업부문일군회의에서 한 결론; 당사업을 개선하며 당대
표자회결정을 관철할데 대하여; 당대표자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하
기 위하여
-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돛을 성대히 맞이하기 위하여;
당원들에 대한 당 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우리 당 간부정책을 옹계
관철할데 대하여
- 23: 당사업과 경제사업에서 풀어야 할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평안남
도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전선에서 앞장에 서야 한다; 당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 24: 당사업과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당
중앙위원회부서들 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 25: 간부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
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개회사;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 총화보고; 조선로동당 제5차대
회에서 한 결론;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폐회사; 1971년 사업방향
에 대하여
- 26: 당간부양성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 2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 28: 현시기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기위한 몇가지 과업
- 29: 리당비서들의 임무에 대하여;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 30: 당, 정권기관,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을 더 잘하여 혁명적 대사변을 승리적으로 맞이하자;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창건 30돐 경축연회에서 한 연설
- 35: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 업총화보고;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폐회사;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와 당창건 35돐을 경축하는 연회에서 한 연설

「저작선집 9」: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 경험

3. 人民政權

- 1: 조선혁명의 진로; 조국광복회10대강령; 조국광복회창립선언;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 새 조선 건설과 공산주의자들의 당면과업; 진보적민주주의에 대하여; 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단결하여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자; 모든 힘을 새 민주조선 건설을 위하여; 새 민주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의 과업; 민족운동자들과 한 담화; 진정한 인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해방된 조선은 어느 길로 나갈것인가; <서울 신문>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 2: 진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자; 인민정치위원회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기관으로 되어야 한다; 목전 조선정치정세와 북조선림시인 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한 연설;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 20개조정강; 로동법령초안에 대하여;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북조선남녀 평등권에 대한 법령;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 8.15해방 1주년 평양시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인민위원회 위원선거에 대하여; 국가규률을 강화하며 북조선중앙은행을 창설

- 할데 대하여; 력사적인 민주선거를 앞두고; 인민위원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민주선거의 총화와 인민위원회의 당면과업
- 3: 리(동)인민위원회 위원선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 정치정세에 대하여; 북조선 도, 시, 군인민위원회대회를 결속하면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북조선인민위원회의 당면과업;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선거총결과 금후의 중심임무;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의 수준을 높일데 대하여; 영농사업을 잘하며 인민정권기관들의 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민주주의조선림시정부를 세우는것과 관련하여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은 무엇을 요구할것인가; 국가기관일군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11월3일 선거 1주년을 맞이하면서
- 4: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군인민위원장의 임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실시에 관하여; 조선최고인민회의선서를 앞두고; 정권위양에 관한 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 모두다 공화국정부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민주조선창건을 위하여 전진하자
- 5: 국가의 법령을 철저히 집행하며 국가기밀보장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창립 1주년; 통일적민주주의 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
- 6: 후방을 튼튼히 보위하자; 전시농업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두뚝에 즈음하여; 전시인민생활안정을 위한 몇가지 과업
- 7: 현단계에 있어서의 지방정권기관들의 임무와 역할; 현시기 당단체들과 인민정권기관들 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인민정권을 강화하는것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 지방 행정체제와 행정구역을 개편할데 대하여; 현 군사정세와 당, 정권기관 및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
- 9: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 11: 함경남도 당단체들의과업; 새환경에 맞게 군인민위원회사업을 개

- 선강화할데 대하여; 문덕선거구 선거자들앞에서 한 연설; 사회주의건설에서 인민정권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 12: 모든것을 조국의 튼성발전을 위하여; 시, 군 인민위원회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10주년기념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 13: 함경북도 당단체들의 과업;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 15: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 16: 군인민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 19: 현시기 국가경제기관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20: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
- 21: 공개서한: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인민주권을 강화하여 우리 혁명의 중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기자;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을 집행하기위한 내각의 과업에 대하여
-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 23: 평안남도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앞장에 서야 한다
- 25: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 27: 일본전국혁신시장회대표단과 한 담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전원회에서 한 결론; 각 선거구 선거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 경축연회에서 한 연설
- 29: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
- 30: 당, 정권기관,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을 더 잘하여 혁명적 대사변을 승리적으로 맞이하자
- 31: 정무원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 32: 토지법에 대하여;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 33: 지방예산수입을 더욱 늘일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몇가지 경험에 대하여;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 34: 정무원 사업에서 혁명적기풍을 세우며 재정규률을 강화할데 대하여
 - 35: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 38: 공화국정권은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며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의 기치이다
- 「저작선집 9」: 정무원의 사업방향에 대하여; 온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4. 國際關係

- 7: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조선인민의 투쟁; 우리의 정의의 공동투쟁은 승리한다
- 11: 사회주의국가들의 친선과 단결;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단계
- 12: 귀국하는 중국인민지원군 환송대회에서 한 연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10주년기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 13: 조중량국 인민의 전투적 우의
- 14: 조선인민의 민족적 명절 8.15해방 15돐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 15: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 18: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 19: 조선로동당 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 20: 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
- 21: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 23: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투쟁은 필승불패이다
- 24: 5대륙의 진보적 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
- 25: 동방식민지 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레닌의 위대한 사상은 승리하고 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 30: 알제종합대학 명예박사칭호 수여식에서 한 연설; 조선로동당 창건 30돐에 즈음하여; 빨럭불가담운동은 우리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
- 33: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 35: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 36: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중국신화사통신사 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인도신문 <내슈널 헤랄드> 사장과 한 담화; 유고슬라비아 따뉴그통신사 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 38: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자; 유고슬라비아 국제정치사 사장 겸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 「저작선집 9」: 빨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카이> 편 집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그란마> 부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II. 經濟

1. 經濟計劃 및 經濟統計

- 3: 1947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대하여
- 4: 1947년 계획실행총화와 1948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대하여; 북조선인민위원회 제71차회의에서 한 결론; 2개년인민경제계획의 중심과업에 대하여

- 8: 모든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데 대하여;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과 고급군사학교의 과업
- 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제30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헌단체에 있어서의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제1차 5개년계획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세우는데서 나타난 결함들과 그것을 고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 10: 현 국제국내정세와 1957년인민경제 계획을 세우는데서 류의할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15: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 17: 현시기 우리나라 인민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 18: 올해 사업방향에 대하여; 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 19: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지도방법과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하여
- 20: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 지도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개선하며 지도수준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 23: 경제지도사업에서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세울데 대하여
- 24: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며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일원화계획화체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사회주의 통계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25: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결론
- 2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 29: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2차 7개년계획의 작성방향에 대하여
- 3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2차 7개년(1978~1984) 계획에 대하여
- 34: 농업생산계획을 세부화할데 대하여; 인민경제의 계획규률을 강화

- 하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킬데 대하여; 정무원사업에서 혁명적 기풍을 세우며 재정규률을 강화할데 대하여
- 35: 함경남도 경제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할 몇가지 과업
- 38: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5개전선에 힘을 집중할데 대하여; 독립채산제를 바로실시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의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2. 農林水産業

가. 農業

- 1: 토지문제에 대한 결정
- 2: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토지개혁법령발포는 민족적 복리에서 출발한 것이다; 김제원동지와 황해도 재령군 농민들에게
- 3: 토지개혁법령발포 1주년에 제하여; 농민들앞에 나선 기본과업은 농사를 잘 짓는 것이다; 영농사업을 잘하며 인민정권기관들의 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 5: 국영농목장사업을 개선하며 국영경리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하여; 농기계임경소를 설치할데 대하여
- 6: 전시농업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며 전선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다
- 7: 대동군 원화리 농민들과 한 담화; 북부 고지대 개발사업을 진행할데 대하여; 평안남도 농민대표들과 한 담화
- 8: 전후 인민경제복구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데 대하여; 령세 농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며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경험적으로 조직한 농업협동조합을 잘 관리운영할데 대하여; 전후 농촌경리의 복구발전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우월성을 발양시키자; 산간지대의 축산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 9: 농업생산을 늘이며 령세농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대책에 대하여; 평남관개공사를 빨리 완공하자; 농촌경리의 금후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에 관하여; 축하문: 평남관개공사에 참

가한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전후 우리 당의 농촌정책과 농촌민주선전실장들의 과업

- 10: 쌀은 곧 사회주의다
- 11: 농촌경리의 금후발전을 위한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협동조합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제1차 5개년계획기간 농촌경리부문의 중심과업에 대하여; 새 환경에 맞게 군인민위원회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 얻은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을 정치경제적으로 강화할데 대하여
- 12: 량강도 당단체들의 과업;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
- 13: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 농업협동화의 승리와 농촌경리의 앞으로의 발전에 대하여; 농촌경리의 당면한 과업의 성과적 실행을 위하여; 축하문: 어지돈관개공사에 참가한 전체 농업협동조합원들과 어지돈관개건설사업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청년학생, 군인들에게;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 14: 평안남도 당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 사회주의적 농촌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 강서군당 사업지도에서 얻은 교훈에 대하여;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 당사업과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15: 과수원조성사업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모든 힘을 여섯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내올데 대하여; 군 농업협동조합 경영위원회를 내올데 대하여
- 16: 농업부문 일군들은 혁명가적 기풍을 가지며 농촌경리지도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
- 17: 농촌경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킬데 대하여; 사회주

의 농촌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18: 프락또르 운전수들은 농촌기술혁명의 선구자들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량강도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 20: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
- 21: 농민을 혁명화하며 농업부문에서 당대표자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 22: 분조관리제를 정확히 실시하며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축하문: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에게; 7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총돌격하자; 농촌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며 군을 잘 꾸릴데 대하여
- 23: 사회주의 농촌건설을 더욱 다그칠데 대하여; 평안남도는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앞장에 서야 한다
- 25: 가금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함경북도 농업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26: 농촌기술혁명 수행에서 프락또르운전수들 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북청회의의 위대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 28: 농업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
- 29: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산간지대의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자; 농촌테제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
- 30: 모든 힘을 알곡 800만톤고지 점령을 위하여; 평양시, 평안남도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농촌경리부문 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황해남도, 황해북도 당 및 농촌경리부문 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 31: 올해 농사를 잘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과업; 올해 농사를 잘
 결속지으며 다음 해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할데 대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며 량곡보관사업을 잘할 데 대하여; 올해의 영농사업총화
 와 농업생산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에 대하여; 알곡 1,000만
 톤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함경남도의 농업을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과업
- 32: 축산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자; 전당, 전군, 전민이 총
 동원되어 한랭전선으로 인한 가물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가물피해를 미리 막을데 대한 당중앙위원
 회 전원회의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 올해 농촌 경리부문앞에 나
 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 33: 2모작지대를 창설하며 농업생산을 전문화할데 대하여;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단백질떡
 이 문제를 풀어 가금업을 더욱 발전시키자; 간석지를 많이 개간하
 여 농경지로 리용할데 대하여; 다음해 영농준비를 잘할데 대하여;
 평안북도앞에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경제과업에 대하여; 우리 나
 라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몇가지 경험에 대하여; 강원도당위원회
 앞에 나서는 중심과업데 대하여
- 34: 농업생산계획을 세부화할데 대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경리
 를 새로운 단계어로 발전시키자; 사회주의 농업관리체계를 바로세
 우며 농촌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량강도를 아
 림답고 살기좋은 락원으로 꾸리자; 황해북도에서 알곡과 담배생산
 을 늘일데 대하여; 황해남도 농촌경리부문과 공업부문 앞에 나
 서는 과업
- 35: 올해 영농사업에서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올해 농
 사경험과 다음해 영농사업방향에 대하여
- 36: 제2차 7개년계획 수행에서 청진시와 함경북도 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빨리볼가담 나라들과 발전도상 나라들은 자력갱생하여 농
 업문제를 해결하자; 아프리카 나라들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황해

남도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중심과업; 강원도의 경제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38: 광포오리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나. 糧穀收買

- 2: 당면한 식량문제를 해결할데 대하여; 현시기 민전앞에 나서는 몇가지 임무에 대하여
- 3: 국가광정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제30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농촌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대책에 대하여
- 11: 화폐유통사업과 량곡가공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 20: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
- 26: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28: 농업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 31: 축산업을 발전시키며 량곡보관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 33: 수매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다. 林業

- 8: 모든것을 전후 인민경제복구 발전을 위하여; 전후복구건설에서 건축가들과 건설기술자들의 임무
- 10: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 12: 량강도 당단체들의 과업
- 17: 량강도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과업
- 20: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
- 34: 량강도를 아름답고 살기좋은 락원으로 꾸리자

라. 水産業

- 4: 수산업을 새로운 토대우에서 발전시킬데 대하여
- 11: 함경남도 당단체들의 과업;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 13: 함경북도 당단체들의 과업;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 14: 평안남도 당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 함경남도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서해수산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당사업
과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15: 모든 힘을 여섯개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 16: 수산물 80만톤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 20: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
- 22: 수산업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하여
- 23: 평안남도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앞장에 서야 한다
- 24: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며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 31: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할데 대하여; 수산업을 추켜세우기 위하
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 담수양어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함경
남도의 농업을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 우리 당의 수산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
- 32: 서해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 33: 수산업을 발전시켜 물고기를 더 많이 잡자; 수산지도체계를 바로
세우며 수산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 34: 물고기잡이 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리자
- 35: 수산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자; 석탄공업부문에서 기
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물고기 가공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 36: 겨울철 물고기잡이와 물고기 가공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데 대
하여; 겨울철 물고기잡이 준비를 다그치며 양어사업을 추켜세울데
대하여; 천해양식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제2차 7개년계획 수
행에서 청진시와 함경북도 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 38: 칠색송어를 대대적으로 기를데 대하여

3. 鑛工業

- 2: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기초; 국영기업을 계획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 4: 국영공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며 기업소를 어떻게 운영할것인가

- 7: 전후경제복구건설방향에 대하여
- 8: 모든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데 대하여; 산업운수부문에서 나타난 결함들과 그것을 고칠 대책에 대하여
- 10: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
- 1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59년 2월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 15: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모든 힘을 여섯고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내올데 대하여; 새 환경에 맞게 공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할데 대하여
- 16: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 17: <공업경영학>교재를 고쳐쓸데 대하여
- 18: 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 1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 20: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
- 22: <공업기업소관리규범>을 잘 만들데 대하여; 7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총돌격하자
- 23: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 24: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며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 25: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 28: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공업부문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 29: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 30: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 34: 기업관리를 정규화하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 35: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 36: 품질감독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공장관리운영을 개선하자
- 38: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의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저작선집 9」: 온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가. 鑛業

- 4: 무산광산을 튼튼한 철광석생산기지로 꾸리자
- 5: 2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유색금속광산부문일군들의 과업; 유색금속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 10: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축하문: 무산광산 전체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 11: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다; 제1차 5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함경북도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 13: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고조를 계속 견지하며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
- 15: 지질탐사사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울데 대하여; 모든 힘을 여섯개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석탄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 16: 채취공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 18: 광물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자; 평안남도의 10대과업에 대하여
- 19: 쇠돌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데 대하여
- 20: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
- 22: 7개년계획이 중요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총돌격하자
- 29: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제2차 7개년계획작성방향에 대하여
- 32: 덕천지구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더욱 늘일데 대하여;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하여
- 35: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석탄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 36: 평안남도앞에 나서는 경제과업에 대하여; 황해남도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중심과업
- 38: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에 힘을 집중할데 대하여; 감사문: 검

덕광업종합기업소 제3선광장 건설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채취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부문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

나. 電力工業

- 2: 산업의 복구발전과 전기공업부문일군들의 과업
- 12: 전력공업부문일군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당면과업에 대하여; 수풍발전소복구개건공사준공식에서 한 연설
- 15: 모든힘을 여섯개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 18: 5.1절과 강계청년발전소조업을 경축하는 연회에서 한 연설; 산과강을 잘 리용하자
- 1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 29: 대동강발전소 건설을 다그칠데 대하여; 제2차 7개년계획작성방향에 대하여
- 31: 정무원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 32: 덕천지구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더욱 늘일데 대하여
- 33: 전력생산을 늘이며 보전사업을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34: 인민경제의 계획규률을 강화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킬데 대하여
- 35: 석탄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 36: 제2차 7개년계획 수행에서 청진시와 함경북도 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 38: 수력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전력생산을 늘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6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다. 金屬工業

- 3: 황해제철소 제3호용광로 출선식에서 한 축하
- 8: 우리의 힘으로 강선제강소를 복구하자; 황해제철소는 전후경제건설의 <1211고지>
- 9: 축하문: 강선제강소 분괴압연직장복구공사에 참가한 전체 로동자,

-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강선제강소 로동계급은 3개년계획수행에서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 10: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더 많은 강재를 생산하자
- 11: 제1차 5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함경북도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남포제련소 아연제련직장조업식에서 한 격려사; 황해제철소 지도일군 및 모범로동자들과 한 담화
- 12: 황해제철소 제1호용광로와 해탄로조업식에서 한 연설
- 13: 김책제철소 제1호, 제2호 용광로와 제2호해탄로조업식에서 한 연설;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고조를 계속 견지하며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 모든 문제해결에서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잡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자
- 15: 모든 힘을 여섯개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 16: 성, 관리국의 지도를 개선하며 공장당위원회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 19: 국가경제기관들의 관료주의를 없애고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이자;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지도방법과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7개년계획이 강철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 27: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과업
- 29: 축하문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대형용광로건설에 참가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 36: 제2차 7개년계획 수행에서 청진시와 함경북도 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황해남도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중심과업

라. 機械工業

- 7: 락원기계제작소 주철직장당세포당원들과 한 담화
- 8: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과업
- 11: 기계공업의 발전은 5개년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열쇠이다
- 12: 축하문: 덕천자동차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 15: 모든 힘을 여섯개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 16: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성의 지도를 개선하자
- 18: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
- 21: 전국기계공업부문일군회의에서 한 결론
- 26: 공작기계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자; 공작기계 생산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 28: 축하문: 기양뜨락또르공장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 30: 신의주 선박공장 지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 31: 수산업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
- 32: 기계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기계공업을 더욱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 35: 평안북도 기계공장들앞에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과업
- 36: 대안중기계 종합공장에서 대상설비 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채취설비 생산을 늘이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 평안남도 앞에 나서는 경제과업에 대하여
- 38: 채취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부문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

다. 化學工業

- 2: 새조국 건설에서 모두다 로동영웅이 되라
- 3: 홍남지구인민공장 로동자대표들과 한 담화
- 12: 홍남질안공장조업식에서 한 격려사
- 14: 현대적 화학공업기지를 창설하기 위하여
- 15: 화학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 19: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곧 사회주의다
- 21: 당대표자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 28: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 29: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제2차 7개년계획 작성방향에 대하여
- 30: 농촌경리부문 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 33: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 34: 농업생산계획을 세부화할데 대하여; 함경남도 도당위원회와 중요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 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
- 35: 함경남도 경제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할 몇가지 과업
- 36: 제2차 7개년계획 수행에서 청진시와 함경북도 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 3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바. 建材工業

- 10: 건설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 18: 건재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대책에 대하여
- 22: 7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충돌 격하자
- 23: 경제지도사업에서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세울데 대하여; 평안남도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앞장에 서야한다
- 25: 평양시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 27: 함경북도 당조직들 앞에 나서는 몇가지 경제과업에 대하여
- 32: 기본건설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대책에 대하여
- 33: 평안북도앞에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경제과업에 대하여

사. 輕工業

- 2: 북조선립시인민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한 연설
- 3: 평양곡산공장 로동자들앞에서 한 연설
- 12: 경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인민소비품 생산을 높이며 상품류통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사회주의건설의 현단계에서 평안북도 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 15: 모든 힘을 여섯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 16: 경공업부문에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 사업을 개선하며 제품의 질을 높일데 대하여
- 20: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
- 21: 농촌에 여러가지 상품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하여; 함흥영예군인 수지일용품공장처럼 공장을 알뜰히 꾸리자

- 22: 7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총돌격하자
- 25: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 26: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 28: 경공업부문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 32: 기름생산을 더욱 늘일데 대하여
- 34: 경공업을 발전시키며 인민봉사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 35: 방직공업과 식료일용품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자
- 36: 평안남도 앞에 나서는 경제과업에 대하여; 황해남도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중심과업; 강원도의 경제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 3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아. 地方工業

- 3: 산을 끼고있는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여야 한다
- 5: 지방산업에 대한 지도관리체계를 개편할데 대하여
- 12: 자강도 당단체들 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 시, 군인민위원회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
- 13: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고조를 계속 견지하며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 지방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 14: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 함경남도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개성시 당단체들의 과업
- 16: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
- 20: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

- 25: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 30: 지방예산제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 32: 지방예산제를 바로 실시하여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자
- 35: 지방공업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자

4. 商業 및 서비스

가. 商業

- 9: 국영 및 협동단체 상업을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 11: 상품류통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 12: 제2차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며 상품류통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 16: 상업부문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 20: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
- 21: 농촌에 여러가지 상품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하여
- 23: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
- 26: 근로자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28: 농업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 34: 사회주의 농업관리체계를 바로세우며 농촌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경공업을 발전시키며 인민봉사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나. 銀行 및 財政·金融

- 2: 국가재정운영사업을 잘하며 농민은행을 창설할데 대하여;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 국가규률을 강화하며 북조선중앙은행을 창설할데 대하여
- 3: 국가재정관리를 잘하기 위하여; 화폐개혁을 실시할데 대하여
- 7: 농촌에서 고리대현상을 없앨데 대하여
- 8: 모든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 산업운수부문에서 나타

난 결함들과 그것을 고칠 대책에 대하여

- 9: 사회주의혁명의 현단계에 있어서 당 및 국가사업의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 10: 올해 국가예산을 정확히 집행하며 건설부문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 11: 새환경에 맞게 군인민위원회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화폐류 통사업과 량국가공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 16: 사회주의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재정은행기관들의 통제적 기능을 강화할데 대하여
- 17: 은행사업체계를 고칠데 대하여
- 23: 사회주의건설에서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데 대하여
- 26: 가격의 일원화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2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 29: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
- 30: 지방예산제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 31: 국가예산을 정확히 집행할데 대하여; 농촌금융사업의 몇가지 경험에 대하여
- 32: 지방예산제를 바로 실시하여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자
- 33: 지방예산수입을 더욱 늘일데 대하여; 재정관리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 34: 정무원 사업에서 혁명적 기풍을 세우며 재정규률을 강화할데 대하여
- 35: 올해 국가예산을 바로세울데 대하여

다. 交通·運輸

- 1: 건국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뚫고 나가자
- 2: 철도종업원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철도운수를 발전시키자
- 3: 정주철도 종업원동지들에게; 1947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대하여;

화물수송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 4: 1947년 계획실행총화와 1948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대하여
- 5: 2개년 인민경제계획 실행에서 교통운수부문 일군들의 임무
- 7: 전시수송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자
- 8: 모든 것을 전후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 교통운수부문 일군들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 9: 교통성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 10: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 11: 철도운수부문에서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우자
- 12: 집단적 혁신운동의 새로운 모범을 창조한 청년철도 건설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 1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59년 2월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원산철도공장 일군들과 한 담화
- 15: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 18: 교통운수부문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군중로선을 관철할데 대하여
- 20: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
- 23: 교통운수의 긴장성을 풀데 대하여
- 27: 축하문: 이천-세포사이 새 청년철도 건설에 참가한 전국청년돌격대원들과 철도건설자들에게
- 30: 당, 정권기관,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을 더 잘하여 혁명적 대사변을 승리적으로 맞이하자; 축하문: 평양-마동사이 철도전기화공사에 참가한 청년돌격대원들과 철도건설자들에게
- 32: 수송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 발전 제2차 7개년(1978~1984)계획에 대하여
- 33: 철도수송의 긴장성을 풀데 대하여
- 34: 룡해운부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무역항을 현대화하고 항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수송사업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하여
- 3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라. 通信

- 2: 체신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
 - 3: 1947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대하여
 - 4: 1947년계획 실행총화와 1948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대하여
 - 6: 전시조건에 맞게 체신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 8: 모든것을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
 - 10: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 15: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 3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2차 7개년(1978~1984) 계획에 대하여
- 「저작선집 9」: 통신보도분야에서 빨럭불가담 나라들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 建設業

- 5: 인민경제계획 수행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시정할데 대하여
- 6: 전후 평양시 복구건설 총계획도를 작성할데 대하여
- 8: 산업운수부문에서 나타난 결함들과 그것을 고칠 대책에 대하여; 전후복구건설에서 건축가들과 건설기술자들의 임무
- 10: 올해 국가예산을 정확히 집행하며 건설부문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건설사업에서의 혁신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 11: 당의 건설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건설분야에서 당정 책을 관철할데 대하여
- 12: 건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 14: 함경남도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당사업과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15: 모든 힘을 여섯개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 17: 농촌에 대한 로력지원사업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벌리며 건설에 대한 지도체계를 고칠데 대하여

- 18: 기본건설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 19: 새환경에 맞게 건설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할데 대하여
- 20: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
- 22: 7개년계획의 중요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총돌격하자
- 24: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며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 25: 평양시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 26: 자강도 인민들의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 32: 기본건설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대책에 대하여
- 36: 남포갑문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바. 國土管理

- 2: 보통강개수공사 착공식에서 한 격려사; 민주수도건설의 첫 성과를 축하한다
- 3: 산림조성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리자
- 12: 량강도 단단체들의 과업
- 13: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 18: 국토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산과 강을 잘 리용하자
- 19: 현시기 국가경제기관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20: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
- 22: 간석지개간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기 위한 몇가지 대책에 대하여
- 23: 간석지를 대대적으로 개간하기 위하여
- 28: 농촌수도화를 다그치며 산림조성사업을 힘있게 벌리자
- 32: 토지법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
- 33: 간석지를 많이 개간하여 농경지로 리용할데 대하여; 국토관리사업과 도시경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 36: 전당, 전국, 전민이 달라붙어 간석지개간과 새땅찾기를 위한 대자연

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리자

사. 都市計劃

-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제30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 16: 군인민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도시경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 31: 올해 농사를 잘 결속지으며 다음해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할데 대하여
- 33: 인민정권기관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강원도당위원회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 국토관리사업과 도시경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 34: 함경남도 도당위원회의 중요공장, 기업소당위원회 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 청진시와 함경북도 앞에 나서는 중심과업
- 35: 함경남도 경제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가지 과업

5. 對外貿易

- 5: 문화선전사업을 강화하며 대외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 12: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며 상품류통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
- 19: 무역일군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대외무역에서 자주성을 튼튼히 견지할데 대하여
- 20: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
- 21: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문제;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 23: 경제지도사업에서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세울데 대하여
- 2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31: 정무원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 34: 무역항을 현대화하고 항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 35: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지도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 38: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유엔무역개발회의 총서기 일행과 한 담화

6. 勞動行政 및 勞務管理

- 2: 로동법령 초안에 대하여;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8: 산업운수부문에서 나타난 결함들과 그것을 고칠 대책에 대하여
 10: 로력을 절약하며 대중정치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12: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
 17: 농촌에 대한 로력지원사업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벌리며 건설에 대한 지도체계를 고칠데 대하여
 18: 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20: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
 21: 당면한 경제사업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21: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문제;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을 집행하기 위한 내각의 과업에 대하여
 23: 로동행정사업에 대한 몇가지 문제; 당사업과 경제사업에서 풀어야 할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평안남도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앞장에 서야한다
 26: 로력의 긴장성을 풀기위한 몇가지 대책에 대하여
 2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3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로동법;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34: 기업관리를 정규화하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사회주의 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38: 현시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일군들속에서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하여

Ⅲ. 社會文化

1. 勤勞者團體 및 大衆組織

- 3: 사회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 14: 천리마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 전사이다
- 17: 공장당위원회사업을 강화하며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 22: 사회주의건설의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 23: 근로자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가. 朝鮮職業總同盟

- 1: 북조선공산당 각급 당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
- 2: 북조선인민교원직업동맹결성대회에서 한 축사
- 3: 대중지도방법을 개선하며 올해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할데 대하여; 북조선직업총동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 5: 새 환경과 새 조건은 새로운 사업태도를 요구한다; 2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유색금속광산부문일군들의 과업; 2개년인민경제계획실행에서 교통운수부문일군들의 임무
- 10: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 18: 근로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 26: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직업동맹의 성격과 임무에 대하여
- 36: 로동계급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에서 핵심부대가 되자

나. 朝鮮農業勤勞者同盟

- 18: 근로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 27: 농업근로자동맹의 중심과업에 대하여

다. 朝鮮社會主義青年同盟

- 1: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하여; 공청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할데

- 대하여; 현시기 남조선청년운동의 과업; 애국적청년들은 민주주의 기발아래 단결하라; 학생동맹을 민주청년동맹에 합칠데 대하여
- 2: 북조선민주청년동맹결성에 즈음하여; 사랑하는 새 조선 어린이들 에게; 민주조선건설에서 청년들의 임무; 민주력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민청단체들의 과업
- 3: 평양시 학생소년대표들과 한 담화; 앞날의 조선은 청년들의것이다
- 4: 세계로동청년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자;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은 민청단체들의 기본임무
- 6: 현정세와 민청단체들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 10: 민청단체들앞에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 12: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의 과업에 대하여; 집단적혁신운동의 새로운 모범을 창조한 청년철도건설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 16: 출판사업과 학생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 18: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 20: 소년단사업을 잘 지도할데 대하여
- 22: 청년들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전선에서 선봉대가 되자
- 23: 청년기동선동대활동을 널리 벌려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자
- 24: 청소년들에 대한 공산주의적 교육교양의 몇가지 문제
- 25: 사로청조직을 생기발랄한 전투적조직으로 꾸릴데 대하여
- 26: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로청사업을 더욱 적극화할데 대하여; 소년단원들은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가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 27: 축하문: 이천-세포사이 새 청년철도 건설에 참가한 전국청년들격대원들과 철도건설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새로 배치된 사로청중앙위원회 일군들과 도사로청위원장들 앞에서 한 연설
- 28: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자
- 29: 학교교육사업을 강화하기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세네갈전국

고 민족문화를 건설하자; 신흥세력 나라들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 高等教育

- 1: 종합대학을 창설할데 대하여
- 2: 민주주의적 국가건설에 헌신할 인재가 되라
- 3: 새조선의 우수한 민족간부가 되기 위하여 배우고 또 배워야한다
- 4: 교원대학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훌륭한 민족간부를 더 많이 양성하자
- 5: 대학의 사회과학과목 교수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능력있는 농업 기술인재를 더 많이 양성하자; 선진과학기술과 애국사상으로 무장한 민족간부가 되라
- 7: 조국해방전쟁의 전망과 종합대학의 과업; 유능한 기술인재를 더 많이 양성하자
- 8: 자체의 힘으로 우수한 기술인재를 많이 양성하자
- 9: 대학의 교육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 14: 기술인재양성을 더 잘할데 대하여;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
- 17: 대학의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 19: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 20: 생물학을 더욱 발전시키며 기계기술자 양성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 21: 우리의 인테리들은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가지며 조선 혁명의 리익에 맞는 과학지식을 배워야 한다
- 22: 우리당의 인테리정책을 정확히 관철할데 대하여
- 23: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자
- 28: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교육부문에 3대 혁명소조를 파견할데 대하여

- 31: 축하문: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민족간부 양성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 33: 축하문: 김책공업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나. 普通教育

- 2: 사랑하는 새조선 어린이들에게
- 3: 평양제2인민학교 교원, 학생들과 한 담화
- 5: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 15: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
- 16: 보통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 20: 어린이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육성하는 것은 보육원, 교양원들의 영예로운 혁명 임무
- 26: 소년단원들은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 27: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과업
- 28: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 29: 학교교육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 30: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창전인민학교 교원들과 한 담화
- 31: 어린이보육 교양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소년단원들은 지덕체를 갖춘 나 어린 공산주의적 주체의 혁명가가 되자; 청소년학생들속에서 경제립조성사업을 널리 벌릴데 대하여

다. 幹部養成

- 2: 중앙당학교는 당간부를 키워내는 공산대학이다; 민족간부는 새조선 건설의 기둥이다; 당의 립장과 사상을 고수하는 혁명투사가 되라
- 3: 당과 인민이 요구하는 훌륭한 당일군이 되자; 중앙당학교 6개월반

제3회 졸업식에서 한 훈시; 국가기관의 일군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 7: 조선로동당은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조직자이다;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것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
- 9: 당학교 교수교양사업의 기본은 학생들의 당성단련이다
- 11: 송도정치경제대학 제1회 졸업식에서 한 연설
- 12: 당과 혁명에 충실한 근로대중의 선봉투사가 되어야 한다
- 14: 산 당일군을 양성하자
- 20: 기업관리를 정규화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 26: 당간부양성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 31: 축하문: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축하문: 신의주공산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3. 科學

- 2: 현시기 과학자, 기술자들의 임무에 대하여
- 6: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 7: 조국해방전쟁의 전망과 종합대학의 과업; 우리나라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유능한 기술인재를 더 많이 양성하자; 과학원 개원식을 열렬히 축하한다
- 9: 대학의 교육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 12: 력사유적과 유물을 잘 보존할데 대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양양을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
- 14: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
- 15: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 17: 기술혁명수행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임무; 현시기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사회과학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 18: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 올해 사업방향에 대하여; 백과사전과 지도의 편찬방향에 대하여; 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 19: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지도방법과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여; 비료는 곧 짚이고 짚은 곧 공산주의이다;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 20: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려 나갈데 대하여; 생물학을 더욱 발전시키며 기계기술자 양성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 21: 우리의 인테리들은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당대 표자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가지며 조선혁명의 리익에 맞는 과학지식을 배워야 한다;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 22: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 우리당의 인테리정책을 정확히 관철할데 대하여
- 23: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자
- 24: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며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 25: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황해남도 당 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
- 27: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과업; 재일본조선인 과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28: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 29: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산간지대의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자
- 31: 정무원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 32: 축산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자
- 33: 정무원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 34: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재일본 조선인 과학자, 기술자들의 과업에 대하여
- 35: 정무원 책임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 38: 기술관리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저작선집 9」: 과학기술연구사업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할데 대하여;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4. 文學藝術

- 2: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 음악예술인들은 새 민주조선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애국가와 인민군행진곡을 창작할데 대하여; 민주건설의 현계단과 문화인의 임무
- 3: 혁명군대의 참다운 문예전사가 되라;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며 군중 문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할데 대하여
- 4: 우리인민의 정서와 요구에 맞게 민족무용을 발전시키자
- 5: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현시기 문학예술인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
- 6: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우리 예술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 7: 조국해방전쟁의 전망과 종합대학의 과업
- 9: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 10: 문화선전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인민경제복구 발전계획수행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현실을 반영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자
- 12: 영화는 호소성이 높아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나가야 한다; 역사유적과 유물을 잘 보존할데 대하여;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 13: 사회주의 예술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자
- 14: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 15: 문학예술총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군중예술을 더욱 발전시키자;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 17: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 정치 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의 문학예술을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키자; 혁명적 대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

- 18: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 문학예술작품에서의 갈등 문제에 대하여;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만들자
- 19: 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의 창작과 관련한 몇가지 의견
- 20: 기록영화를 잘 만들데 대하여; 깊이있고 내용이 풍부한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 혁명적이며 통속적인 노래를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려 나갈데 대하여; 우리의 미술을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혁명적인 미술로 발전시키자
- 21: 혁명주제작품에서의 몇가지 사상미학적 문제
- 23: 혁명적 영화창작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청년기동선동대활동을 널리 벌려 대중을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불러 일으키자
- 24: 청소년들에 대한 공산주의적 교육교양의 몇가지 문제
- 25: 교육과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민족 문화유산 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 26: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의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 38: 빨럭불가담 나라들과 발전도상국 나라들은 자주, 독립의 가치를 들고 민족문화를 건설하자; 신흥세력 나라들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저작선집 9」: 현대문학의 시대적 사명

5. 體育

- 2: 체육을 대중화하기 위하여
- 3: 생산에 대한 공장당단체들의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 15: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 24: 체육을 대중화하여 전체인민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자
- 26: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로청사업을 더욱 적극화할데 대하여
- 27: 체육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 28: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자
 - 30: 탁구선수들과 한 담화
 - 32: 새로창조자들 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 「저작선집 9」: 뽉럭불가담 나라들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6. 人民保健

- 3: 1947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대하여; 인민보건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 4: 보건위생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
- 6: 보건일군들의 당면과업
- 7: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잘할데 대하여; 적세 군무기와의 투쟁 대책에 대하여
- 8: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
- 11: 새환경에 맞게 군인민위원회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 12: 보건위생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릴데 대하여
- 13: 보건일군들은 참된 인민의 복무자로 되여야 한다
- 15: 보건일군들은 당의 붉은 전사가 되여야 한다;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
- 20: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다; 어린이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육성하는 것은 보육원, 교양원들의 영예로운 혁명임무
- 21: 제약공업과 의료기구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 22: 전염병과의 투쟁을 강화할데 대하여
- 2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 31: 어린이 보육교양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 32: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 33: 전력생산을 늘이며 보건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인민 정권기관 일군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 34: 동의학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함경남도 도당위원회와 중요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 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 청진시와 함경북도 앞에 나서는 중심과업; 정무원 사업에서 혁명적 기풍을 세우며 재정규률을 강화할데 대하여

- 35: 인민보건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함경남도 경제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가지 과업

7. 出版

- 1: 당보를 창간할데 대하여
- 2: 신문은 시대의 선구자이며 진정한 여론의 조직자이다; 문화인들은 문화선전의 투사로 되여야 한다; 신문 <민주조선>은 새조선 건설을 위한 올바른 지침이 되라; 잡지 <조선여성> 창간을 축하한다; 북조선통신사 창설에 대하여
- 3: 영농사업을 잘하며 인민정권기관들의 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방송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 4: 인민군신문을 창간하며 그 편집을 잘할데 대하여
- 5: 문화선전사업을 강화하며 대외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 6: 잡지 <군사지식> 편집부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 9: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 10: 문화선전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중앙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 16: 출판사업과 학생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 18: 백과사전과 지도의 편찬방향에 대하여
- 24: 5대륙의 진보적 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
- 28: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자

8. 司法·檢察

- 2: 검찰, 보안기관 일군들의 당면업무
- 3: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며 민족간부 양성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 5: 국가의 법령을 철저히 집행하며 국가기밀보장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 7: 검찰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 11: 중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 12: 우리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9. 公共安全

- 2: 진정한 인민의 보안일군이 되자; 검찰, 보안기관 일군들의 당면임무
- 4: 조국과 인민에 충직한 내무일군이 되어야 한다
- 5: 내무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조성된 긴박한 정세와 내무기관들의 당면과업
- 6: 후방을 튼튼히 보위하자
- 7: 내무일군들 속에서 인민적 사업작풍을 확립할데 대하여
- 19: 현시기 국가경제기관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23: 당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 24: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며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IV. 軍事

1. 人民武力部

* 제6권~7권에 수록된 모든 문건

- 1: 조선혁명의 진로; 좌경적 모험주의로선을 배격하고 혁명적 조직로선을 관철하자;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하여; 반일인민유격대 창건에 즈음하여; 무장투쟁을 국내어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로 진출할데 대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 조국광복회 10대강령; 조국광복회 창립선언;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작전으로 인민들에게 조국광복의 서판을 안겨주자;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임무; 적극적인 반격전으로 일제침략자들을 련속 타격하고 조국으로 진군하자; 조국땅에 혁명의 횃불을 높이 올리자; 조국광복의 대사면을 준비있게 맞이할데 대하여;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평양학원을 창립할데 대하여; 새조선의 항공대를 창설하자

- 2: 평양학원 개원식을 축하하여; 훌륭한 군사정치간부가 되라; 애국가와 인민군행진곡을 창작할데 대하여; 혁명군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 3: 보안간부 훈련소의 당면과업; 중앙보안간부학교의 임무; 혁명군대의 참다운 문예전사가 되라; 참다운 인민의 군대, 현대적인 정규군대를 창건하자;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인민군대의 간부가 되어야 한다
- 4: 인민군신문을 창간하며 그 편집을 잘할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창건에 즈음하여; 군인들을 백발백중의 명포수로 키우자;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보위하는 강유력한 인민의 무력이 되어야 한다; 38선 경비대의 임무; 군관들은 부대의 전투력강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놀아야 한다; 부대의 당정치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 5: 한치의 땅도 적에게 내주지 말라; 전술훈련을 강화하자; 인민군대는 현대적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되어야 한다; 부대의 전투준비와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자; 조국의 바다를 철벽으로 지키기 위하여; 군사정치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인민군대의 지휘관이 되어야 한다; 현정세와 인민군대의 당면과업;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어 무장하여야 한다; 항공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현정세와 경비대의 과업; 자기의 무기와 전투기술기재에 정통하라; 전투준비를 더욱 강화하자
- 8: 공화국 영웅들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세운 불멸의 위훈을 계속 빛내며 나가야 한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공고히 하며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 조국해방전쟁의 역사적 승리와 인민 군대의 과업에

대하여; 지휘관들은 부대관리를 잘하여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무장의 임무에 대하여; 1954년 새해를 맞이하여 조선인민군 전체 장병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전후 경제건설과 인민군대의 과업; 군수물자의 취급과 보관관리를 잘할데 대하여; 모범중대 육성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과 고급군사학교의 과업; 인민군대를 질적으로 강화하여 간부군대로 만들자

- 9: 현시기 우리 인민의 투쟁임무와 해군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 인민군대의 간부화와 군종, 병종의 발전전망에 대하여(발취)
- 10: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 11: 조국통일문제와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
- 12: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과업; 군인들속에서 공산주의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 13: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에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울데 대하여
- 14: 인민군대는 공산주의 학교이다; 인민군대내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 15: 병기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해군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여 조국의 영해를 튼튼히 지키자; 우리나라의 정세와 몇가지 군사과업에 대하여
- 17: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 정치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군대를 혁명군대로 만들며 국방에서 자위의 방침을 관철하자(발취)
- 20: 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
- 21: 인민군대는 수많은 혁명적 골간을 가진 무력으로 장성장화되었다; 당사업을 개선하며 당대표자회 결정을 관철할데 대하여;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 22: 조선인민군 창건 스무돛을 맞이하여

- 23: 축하문: 공화국북반부에 불법침입하여 정찰행동을 감행한 미제참략군의 대형정찰기를 쏘떨군 조선인민군 제447군부대 장병들에게
 - 24: 현정세와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몇가지 정치군사과업에 대하여; 인민군대의 당조직 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 25: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 28: 혁명적 동지애에 기초한 단결은 인민군대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인민군대의 중대를 강화하자
 - 30: 당, 정권기관,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대건설을 더 잘하여 혁명적 대사변을 승리적으로 맞이하자; 김일성정치대학과 강건종합군관학교 창립 30돐에 즈음하여
 - 32: 정치사업을 잘하여 인민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 34: 특무장의 위치와 임무에 대하여; 인민군대를 강화하여 사회주의 조국을 튼튼히 보위하자
 - 35: 김형직 군의대학 창립 30돐에 즈음하여
- 「저작선집 9」: 주체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자

2. 革命學院

- 3: 평양 혁명자유가족학원 개원식에서 한 훈시
- 4: 혁명선렬들의 뜻을 이어 나라의 훌륭한 일군이 되라
- 5: 만경대 혁명유가족학원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 21: 혁명자유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들의 뜻을 이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한다
- 22: 혁명자유자녀들을 직업적 혁명가로 키우자
- 32: 축하문: 만경대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에게

V. 統一關係

1. 南朝鮮革命과 統一

- 1: 허헌선생에게
- 2: 조선인민당 위원장 려운형과 한 담화; 미제의 반동적 책동을 폭로

분쇄하자

- 4: 반동적 남조선단독정부선거를 반대하고 조선의 통일과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북조선정치정세; 남조선 신문기자단과 한 담화; 김구와 한 담화; 홍명희와 한 담화; 남조선단독선거와 관련하여 우리 조국에 조성된 정치정세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대책
- 5: 국토의 완정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쫓기하자;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결성과 관련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결성에 대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방책에 대한 선언서와 관련하여; 조국의 통일위업을 위하여 모든 애국적 민주력량을 총집결하자; 통일적 민주주의 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
- 6: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 8: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
- 9: 농촌경리의 금후발전을 위한 우리당의 정책에 관하여; 8.15해방 10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 10: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 11: 송도정치경제대학 제1회졸업식에서 한 연설; 조국통일문제와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
- 12: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 체스꼬슬로벤스꼬 방송 및 텔레비죤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10주년기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 14: 조선인민의 민족적 명절 8.15해방 15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개성시 당단체들의 과업
- 15: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 16: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 18: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 19: 워싱턴에 있는 조선문제연구소 소장에게 보낸 회답서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오이>지 보도국장 가브리엘 폴리나를 비롯한 꾸바기자들이 제기

- 한 질문에 대한 대답; 조선로동당 창건 스무돛에 즈음하여
- 20: 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
- 21: 워싱턴에 있는 조선문제연구소 소장에게 보낸 회답서한; 당사업을 개선하며 당대표자회 결정을 관철할데 대하여;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 2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 24: 이라크통신사 부사장 따하 알 바스리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핀란드공산당 중앙기관지 <칸산 우우리세트>를 위하여 핀란드민 주청년동맹 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 25: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 26: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27: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 미국 <뉴욕타임즈>지 기자들과 한 담화; 일본 공명당 대표단과 한 담화; 총련조직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미국 <워싱턴포스트>지 기자와 한 담화;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스웨리에 사회민주청년동맹 대표단과 한 담화
- 28: 민족의 분열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조국통일 5대방침에 대하여; 일본 <이와나미>서점 상무취체역 총편집장과 한 담화; 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
- 29: 자주외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 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수단정부기관지 <알 싸하파>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미국조선 친선공보센터 집행위원회와 잡지 <조선의 초점> 편집국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파나마 기자대표단과 한 담화;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무조건 물러가야 한다; 에파도르 <불룬파드>출판사 사장과 한 담화; 일본 총평 및 중립로련대표단과 한 담화; 오스트랄리아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쿠웨이트 <알 카바스> 신문사 총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 30: 일조문화교류협회 리사장일행과 한 담화; 인도 주간신문 <블리즈>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일본교도통신사 대표단과 한 담화; 프랑스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리론잡지 <라 누벨 크리띠크>사 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일본 <마이니찌 신보> 편집국장일행과 한 담화
- 31: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카이> 편집국장과 한 담화; 축하문: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산하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 32: 일조우호축진의원련맹 회장과 한 담화;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프랑스 지지 및 행동위원회 대표단과 한 담화; 정치사업을 잘하여 인민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 33: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대표단과 한 담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카이> 편집 국장과 한 담화
- 35: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 36: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중국신화사통신사 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마르크 사회민주당 부위원장과 한 담화; 축하문: 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와 그 회원들에게; 미국에 있는 조국통일축진회 회장과 한 담화; 베네통화국 공보 및 선전부 연구계획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이탈리아 안사통신사 부사장과 한 담화
- 38: 소련 따쓰통신사 대표단과 한 담화; 단마르크 사회민주당 위원장과 한 담화; 일본 사회당 대표단과 한 담화
- 「저작선집 9」: 온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네팔 아르 에쓰에쓰통신사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카이> 편집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인도 네시아 <메르데카> 신문사 부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인류앞에 나선 초미의 과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2. 海外同胞 活動

가. 朝總聯 關係

- 2: 재일 100만 동포들에게
- 10: 일본 <요미우리신보>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 13: 재일 조선동포들이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떳떳한 민족적 권리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재일 조선동포들의 참다운 조국이다
- 16: 총련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 21: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 25: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 결성 15돐에 즈음하여
- 26: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27: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재일 조선동포들은 사회주의 조국의 공민된 영예를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총련조직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재일 조선청소년들은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여야 한다; 재일본 조선인과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28: 총련일군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총련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총련일군들은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재일 조선상공인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29: 재일본 조선인총련합회 제10차전체대회에 보낸 축하문; 재일본 조선예술인들은 사회주의적 민족예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세와 재일본 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 30: 총련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시킬데 대하여; 재일본 조선인총련합회 결성 20돐에 즈음하여; 조국의 사회주의건설 형편에 대하여
- 31: 총련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리자; 재일동포 상공인들은 조국의 사

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조선대학교 대표단과 한 담화

- 32: 총련지부와 분회를 강화하며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재일본 조선인총련합회 제11차 전체대회에 보낸 축하문; 재일본 조선민주녀성동맹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재일본 조선출판보도부문 일군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 34: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재일본 조선인 과학자, 기술자들의 과업에 대하여
- 35: 재일본 조선인총련합회 결성 25돐에 즈음하여; 재일본 조선인총련합회 제12차 전체대회에 보낸 축하문
- 38: 재일본 조선인총련합회 제13차 전체대회에 보낸 축하문; 재일본 조선인총련합회 제4차 선전원열성자대회에 보낸 축전

나. 在美僑胞關係

- 19: 워싱턴에 있는 조선문제연구소 소장에게 보낸 회답서한
- 21: 워싱턴에 있는 조선문제연구소 소장에게 보낸 회답서한
- 36: 미국에 있는 조국통일촉진회 회장과 한 담화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 (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 (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을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 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93-02 金日成著作 解題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10대 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2~1993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資料〉

- 92-01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單行本 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研究報告書 (93-02)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資料調查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6-9231,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TEL 266-0892

印刷日 1993년 7월

發行日 1993년 7월
